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246호 2014년 10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SNUAA Korean Studies Group 결성활발

미국에는 그 중요성에 비해 한반도 전문가가 부족하다

미주 동창회에는 과거 세차례의 Brain Network Symposium을 통해 전문인 동문들의 전문 지식을 발표하고 공유하며 축적하여 왔다. 특히 지난 제23차 평의원 회의와 동시에 워싱턴 DC 지역에서 개최한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6월 27일, Vienna, VA)에서 문유미(외교 85, Stanford대 역사학과 부교수) 동문이 발표한 ‘일제 식민지 정책의 재검토: 북미에서의 연구 동향’ 보고(본회보 8-9면 참조)에 의하면 미주류 한국학과 한국 역사학을 연구하는 미국 학자들이 일본 혹은 중국을 연구하다 한국학과 역사학을 접하게 됐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사관에 영향을 받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미국은 물론 서구학계의 대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제자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평의원 회의에서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담당 부회장 이채진 동문, 정치 55)을 주관한 하용출 동문교수(외교 67)가 제안한 ‘SNUAA Korean Studies Group’을 신설하기로 하고 앞으로의 연구활동을 전폭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오(조)봉완 동문(법대 53, Georgetown대 한국학 명예교수)도 미국내 한국 역사학과 한국학 연구를 일본 혹은 중국의 시각이 아닌 한민족의 시각에서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필자(오인환 회장) 자신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세미나 모습 - 9월 4일 Victor Cha 박사(한국학 책임자)가 ‘Korean Unification in a New Era’라는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 내걸었던 8대 사업안 가운데 미래의 건의안으로 내놓았던 제8의 사업인 Think Tank 설립 건의안이 눈앞에 성큼 다가와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채진 교수, 하용출 교수, 문유미 교수와 함께 필자(오인환 회장)는 전화와 e-mail 등으로 ‘SNUAA Korean Studies Group’ 설립 플랜, 회보 기사, 설립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 Package를 만들고 있다. 미주 동창회와 동문들이 국립대 출신으로 모국 한국을 위하여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겠다.

이번 10월 19일 제35차 Homecoming Day 참석을 전후해 총동창회와 모교의 관계자 여러분들을 만나 깊이있는 상의를 하기로 계획

하고 있다. 그리고 뜻있는 동문들과 비동문들을 포함한 독지가, 연구단체, 혹은 기업체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SNUAA Korean Studies Group’이 결성돼 본래도에 오르면 앞에서 지적한 미국 및 서구학계의 편향된 학문적 시각을 극복하고 한국과 한민족의 시각에서 보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쌓아갈 수 있고 일본과 중국에 맞서 단군 이래 독립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한국에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프랭크 자누치(Frank Jannuzi, President and CEO,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영국의 QS 2014 세계 대학평가 31위

서울대, 도쿄대와 공동순위

“지난 10여년간 세계 대학 평가 결과에 한국만큼 기뻐할 나라는 없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는 2014 세계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QS가 처음 세계 대학 평가를 발표한 2004년 이래 한국 대학들의 성장이 그만큼 두드러졌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중국·홍콩 등 아시아 대학들의 발전도 지난 10여년간의 큰 특징이다. 하지만 한국 대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국제화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QS는 지적했다.

▶도쿄대와 같은 순위 =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시작된 2008년 세계 대학 평가에서 일본 도쿄대는 19

위, 서울대는 50위였다. 서울대는 이 격차를 6년 만에 따라잡았다. 올해 두 대학은 나란히 세계 31위에 올랐다.

QS 학문자문위원장 Martin Ince는 “서울대와 도쿄대 순위는 아시아에서 한국 대학들의 지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전체 6개 평가지표 중 ‘학계평가·졸업생 평판도·교수당 학생수·교수 1인당 논문피(被)인용수’에서 도쿄대에 뒤진 반면 국제화 평가지표인 ‘외국인 학생비율’과 ‘외국인 교수비율’에서 도쿄대를 앞섰다.

과학·기술 특화 대학인 KAIST(51위)와 POSTEC(86위)도 지난 해보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를 비롯한 각종 후원금이 원동력입니다. 매년 미 전역의 동문 10명 중 3명(30%) 이상이 동창회비를 내주셔도 미주 동창회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니 동창회비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UGA 석좌교수 주중광(약대 60) 박사

The John A. Montgomery Award



조지아 대학(UGA) 약학대 석좌교수인 주중광(약대 60·사진) 박사가 지난 8월 24-29일 폴란드(Poland)의 Poznan에서 개최된 제11차 국제 원탁회의(International Round Table Society

Meeting)가 수여하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The John A. Montgomery Award’를 받았다.

The John A. Montgomery Award는 뉴클레오티드와 핵산(Nucleotides & Nucleic acids)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과학적 공헌을 인정받은 뛰어난 과학자를 2년마다 한 명씩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그 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 상은 항암과 항 바이러스제 개발과 뛰어난 효능으로 저명한 Southern Research Institute의 전설적 의약화학자(Medical Chemist) 몽고메리 박사의 이름을 따 제정된 상이다.

몽고메리 박사는 1986년 미국 화학협회로부터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헌액, 5개의 항암제를 개발해 FDA 승인을 받은 바 있다. <2면에 계속>

소장은 “미국에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때 한국에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라고 6월 1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하였다.

자누치 소장은 서울 한국 국제 교류재단(KF)과 맨스필드 재단이 미국내 한국정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신설한 NEXUS에 따라 1기 훈련생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고리(linch pin)로 평

가할 만큼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워싱턴에는 한반도 전문가가 많지 않다고 자누치 소장은 역설했다. 반면 일본은 1980년대부터 미국내 일본 정책 전문가들을 꾸준히 양성해 왔다고 한다. (한국일보, 2014년 6월 19일, 9월 9일자 인용). 들리는 바에 의하면 최근 한 CSIS연구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것을 두둔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순위	대학명	국가
1	MIT	미국
2	케임브리지	영국
2	임피리얼	영국
4	하버드	미국
5	옥스포드	영국
5	UCL	영국
7	스탠포드	미국
8	CALTECH	미국
9	프린스턴	미국
10	예일	미국
11	시카고대	미국
22	NUS	싱가포르
28	홍콩대	홍콩
31	서울대	한국
31	도쿄대	일본

다 각각 9계단, 21계단 순위가 뛰었다. 두 대학은 연구력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

KAIST 강성모 총장은 “최근 몇 년간 젊은 교수들을 대폭 충원했

는데, 그 자금이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해보다 8계단 오른 106위, 고려대는 29계단 상승한 116위에 이름을 올렸다.

▶꾸준한 투자가 비결 = 한국 대학 뿐 아니라 아시아 대학들도 지난 10여년간 순위가 크게 올랐다. 아시아 대학들은 2005년엔 세계 대학 평가 상위 50위 안에 8개 들었으나 올해는 11개 대학으로 늘었다. 상위 100위 안에는 2005년만 해도 아시아 대학이 11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5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학들이 국제 무대에서 선전하는 비결 중 하나로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투자’가 꼽힌다.

예를 들어 중국은 '21세기에 대비해 100개 대학을 집중 지원한다'는 '211 공정'을 1994년 시작해 100여개 대학에 수조원대 예산을 쏟아부었다. <3면에 계속>

새 회원 영입 Campaign

미주 각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 중에는 해당지역에 있는 서울대 동창회를 모르고 계신 동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러한 동문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각 지역 동창회 행사에 참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전 세계의 ‘Think Tank’ 들

한국은 KIEP 54위, KDI 55위

Think Tank는 정치전략, 사회정책, 경제, 과학 혹은 기술문제, 산업 혹은 사업정책에 대한 공공정책을 연구 내지는 지지하는 단체 혹은 기관을 말한다. 많은 경우에 비영리 단체이며 정부, 지지 그룹, 사업체 혹은 개인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Think Tank내에 특정 목적을 위한 연구 project도 있고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한 Think Tank 도 있다. 미국의 경우 국내 정책과 국제정책 연구를 하며 미국회 청문회에 전문가를 보내거나 국회 하원 혹은 상원의원에게 정책 조언을 주기도 하여 영향력을 발휘한다.

펜실베니아 대학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TTCSF, 2014년 1월 보고서)에 (http://gotothinktank.com/dev1/wp-content/uploads/2014/01/GoToReport2013.pdf) 따르면 전 세계 182개국에 6천826개의 think tank 가 있는데 25위까지의 나라별 숫자를 보면 미국 1천828개(1위), 중국 426개(2위), 영국 287(3위), 인도 268 (4위), 독일 194(5위), 일본 108 (9위), 이스라엘 55(20

위), 타이완 52(24위), 나이지리아 51(25위).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각 35개, 북한 2개 등으로 나타났다. 펜실베니아 대학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TTCSF)의 2014년 1월 보고서에서 전세계 Think Tanks를 심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가 54위,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가 55위에 그쳤다.

미국의 Think Tank들 가운데 한국학을 다루는 곳들 중 몇 군데 소개하면 미국내에서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유일할 정도로 한국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Victor Cha 교수가 Senior Advisor 겸 한국학 Chair를 맡고 있다.

Victor Cha 교수는 Bush 행정부에서 북핵문제 6자 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를 역임했고 미 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책임을 맡는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자랑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울대 동문의 자제다.

CSIS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전반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하와이에 Pacific Forum 을 별도로 운영 하고 있다.

한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동북아 정책 연구센터(CNAPS)를 두고 있으며 세종 연구소와 ‘Seoul Forum’ 을 시작했으며 헤리티지 재단에는 아시아 연구센터가 있고 한반도 전문가로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 연구원이 있다.

미국 Think Tank들에 외국 정부에서 자국을 위한 거액의 연구 지원

한편 New York Times지(2014년 9월 6일자)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외국정부 64곳으로부터 Brookings Institution, CSIS, Atlantic Council 등 28개 미국 Think Tank 들에 최소 9천2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고 한다.

조지프 샌들러 변호사에 의하면 Think Tank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Think Tank 들이 정책 보고서, Forum, Briefing 들을 통해서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자금 지원을 해 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외무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하여 작은 나라가 미국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혹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Think Tank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한국일보, 2014년 6월 19일과 9월 9일 인용)

워싱턴 DC 소재 국제전략 문제연구소(CSIS)에는 한국학 Chair를 맡고 있는 Victor Cha (한국인 2세, 서울대 동문 자제) 박사가 있다. Cha 교수는 미주 동창회 제 23차 전국 평의원 회의 만찬(2014년 6월 21일)에 초청돼 기조연설한 바 있으며 동문들의 많은 질문을 받은 바 있다. 그 후

워싱턴 지역 동문들이 CSIS Korea Chair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13일에는 박진 외국어대(법대 74)가 CSIS 에서 ‘US-Korea-Japan Triangle: A Korean Perspective’ 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최근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미국에 정책적 조언을 한 바 있었다. Heritage 재단 에는 현재 최중경(경제 75)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Senior Visiting Fellow로 연구하고 있다. 미국 전체 1천828개 가운데 10대 Think Tank는 아래와 같은데 브루킹스 인스티튜션(Brooks Institution)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http://dc.about.com/od/communities/a/Think-Tanks.htm; 2014.9.25) 한편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는 395개의 대소 think tank들이 있다.

1. Brookings Institution - The nonprofit public policy organization is consistently ranked as the most influential think tank in the U.S.

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The nonprofit nonpartisan think tank specializes in U.S. foreign policy. Offices are in Washington DC and New York City.

3.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The nonprofit organization is dedicated to advancing cooperation between nations and promoting active international engagement by the United States. The organization is based in Washington DC, with additional offices in Moscow, Beijing, Beirut, and Brussels.

4.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A public policy research institution dedicated to analysis and policy impact in government,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5.RAND Corporation - The global organization focuses o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health, education,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law and business, and the environment. RAND is based in Santa Monica, California and has offices throughout the world. It's Washington DC office is located in Arlington, Virginia.

6. Heritage Foundation - The think tank does research on a variety of issues - domestic & economic, foreign & defense, and legal & judicial.

7.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The nonpartisan, nonprofit institution is dedicated to strengthening free enterprise and conducts research on issues of government, politics, economics, and social welfare.

8. Cato Institute - The think tank conducts independent, nonpartisan research on a wide range of policy issues.

9.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The nonprofit, nonpartisan research institution is dedicated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0.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The think tank focuses on public policy issues such as energy, national security,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y, immigration, education, and health care.

미국의 Think Tanks 중에 Online 상에서 인기도를 Top 10 만을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도표는 연구소 명칭, Website 주소, 연간 기증 받는 액수 및 지출액수 규모, 월행사 빈도, Alexa Ranking (Online 방문 숫자 반영 지표) 등을 보여 주고 있다. 각 연구소 Website에서 더 자세한 연구활동을 볼 수 있다.***

<오인환 회장>

Top 10 Think Tanks in Washington DC ranked by Popularity (http://blog.linktank.com/most-popular-think-tanks/2/ (2014.9.22))						
Rank	Organization	Website	Annual Contributions	Annual Expenses	Average Events/Month	Alexa Ranking (Less is better)
1	Heritage Foundation	heritage.org	\$73,957,186	\$80,378,250	22.1	17,105
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org	\$47,654,800	\$50,731,317	10	45,172
3	Cato Institute	cato.org	\$39,253,053	\$23,648,195	11.3	58,117
4	Brookings Institution	brookings.edu	\$86,934,790	\$88,922,671	26.1	69,560
5	RAND	rand.org	\$250,987,982	\$266,873,864	1.5	74,123
6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mericanprogress.org	\$36,517,866	\$33,727,128	7.2	93,527
7	US Institute of Peace	usip.org	\$24,447,975	\$30,284,229	16.2	102,152
8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org	\$47,451,943	\$40,533,012	2.7	120,700
9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bpp.org	\$28,029,778	\$26,380,857	0	120,798
10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org	\$39,138,159	\$30,114,700	22.0	121,560

차 례				
3.<주필칼럼>불충분한 경제,세계경제 전망/<한시해설,영문번역>채련곡/ 게시판 4~5.<시국칼럼>위안부를 모욕한 시오노 나나미를 규탄한다/ 시인 윤동주에 관한 소고/북한이 단기적 내정불안 겪고 흔들릴 가능성 적어/ 얼굴과 이름 6~7.<모교 소식>진료문제가 가장 어려워/ 졸업후 뭘? 로스쿨 가야죠/테너 이용훈 동문 음대교수로/국문과 시 소설 창작과	정 첫 개설/입학땀 진보, 졸업땀 보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서창석교수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선임/서경배 아모레 회장 서울대 병원에 10억원 기부/ 서울대도서관의 친구들/도서관 기부 미주 동문께 감사 8-9.<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강연발췌>일제 식민지 정책의 재검토, 북미에서의 연구 동향 10.<8.15 69돌>60여년 전 이야기<3> 11~13.미주 동문 동정 14-19.미주 각 지역 동창회 소식	20-21.<관악세대 아크로 광장>고려인 한반도 대장정의 감격/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폭격/ 위험한 이심전심/ 어리석음의 행진/ <건강의학> 갑상선 종양<1>/필요시 도움 못하는 에이전트 22.<영화 이야기> Broke Back Mountain과 Annie Proulx 23.<My Journey to>아메리칸드림 50년<15> 24.<달러 속 주인공 이야기-4> 10달러 지폐의 알렉산더 해밀턴 25.<여행기>건너가 본 두만강<1>	26.<등반기>John Muir Trail의 완주 서울대 역사자료를 찾습니다 27.동창회비 및 후원금 납부명록 28-29.동문엽소록, 편집후기 30.광고,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31~32. 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주필 칼럼

불충분한 경제,세계경제 전망



백 순(법대 58) DC
미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한미포럼 위원
미주 동창회보 주필

IMF에서 출간하는 9월호 ‘재정과 개발(Finance and Development)’에 실린 5인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세계경제 전망은 아직도 2009년 세계 재정위기에서 회복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경제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4.2% 2/4분기 GDP성장률, 6.1%의 8월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가 요즈음 어느 정도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굴곡을 겪으면서도 성장을 지속해 왔던 선진경제가 앞으로 21세기에는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5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걱정거리다.

그들이 내다보는 선진경제 중심의 세계경제 전망은 한 마디로

‘불충분한 경제(Inadequate Economy)’ 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1)불충분한 수요(Inadequate Demand) (2)불충분한 잠재 GDP(Inadequate Potential GDP) (3)불충분한 배분(Inadequate Distribution) 등이 그것이다.

첫째 불충분한 수요는 엄청난 가정부채의 증식으로 인한 국민 소비의 감소가 그 주요 원인이고, 다음으로 투자기회의 축소가 경제성장에 근간이 되는 국민수요를 턱없이 부족하고 불충분하게 한다는 논지다.

얼마 전에 출간한 아티프 미안과 아민 수피의 ‘부채의 가정(House of Debt)’을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가정부채가 GDP를 크게 상회하는 \$17 trillion에 이르고 가정당 평균 부채가 가처분 소득의 115%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산업기술 개발의 담보와 기업이윤률의 감소가 투자기회의 부족을 결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불충분한 잠재경제력은 노동력의 부족, 기술개발의 부족, 자연자본의 부족 등 3가지 원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선진경제의 인구가 21세기 말 절반으로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현재수준보다 2050년에는 3.5배로 폭등하게 된다는 추세는 경제력 성장의 근간이 되는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1990년대 70%에 가까웠던 미국의 노동력 참여율이 62.9%로 폭락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잠재 경제생산력 성장의 근간 중 하나인 신산업기술의 개발이 1990년대의 IT에 뒤이어 새로운 산업기술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너무나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Global Warming은 잠재 경제생산력의 주 요인 중 하나인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의 부족을 결과하고 있다.

셋째, 불충분한 배분은 경제성장이 가져온 경제혜택을 모든 참여자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소위 경제불평등(Economic Inequality)이 크게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근래 베스트 셀러인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Capital in the 21st Century)’이 경제불평등의 추세를 통계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지난 19세기 이후 부의 성장이 경제성장에 비해 훨씬 크게 성장하여 왔고, 부는 세습되어 왔으므로 미국의 최고 3% 부소유자들이 전체 부의 54.4%를 소유하고 있는 세습 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가 경제불평등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가정부채로 인한 소비부족과 투자기회 부족이 결과로 나타나는 불충분한 수요, 노동력 부족과 기술개발 부족과 자연자본 부족 등이 결과로 나타나는 불충분한 잠재 경제생산력, 그리고 경제 불평등의 상승이 가져오는 불충분한 배분등 불충분한 경제가 21세기 선진경제와 세계경제에 편만(遍滿)하게 된다는 5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21세기 경제문제 제기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

<1면에서 계속>

‘중국의 아이비리그’라 불리는 저장대·푸단대 등 9개 대학(일명 C9)은 중국 정부의 전체 연구 예산의 10%를 집중 지원받고 있다. 이 중 6개 대학이 세계 대학 평가 20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고, 대다수가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상승했다.

벤 소터(Sowter) QS 평가 총괄 책임자는 “아시아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대학교육에 투자한다면 미래엔 분명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학 국제화 부족** = 올해 세계 대학 평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학들의 공통적인 약점은 '국제화'였다.

한국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 1위인 한양대가 76.5점으로 세계에선 150위에 그쳤고, 그다음인

서울대는 219위,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각각 509위, 609위다.

‘외국인 교수 비율’도 포스텍이 한국에선 1위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265위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둘 다 400위 밖이다.

QS 측은 “한국 대학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식 생산·교육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려면 국제화 분야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시 해설, 영문 번역



供亮 김기형(상대 75)CA

采蓮曲(채련곡)
許 蘭雪軒

秋淨長湖碧玉流(추정장호벽옥류) 가을에 맑은 호숫물 옥돌처럼 흘러가고
蓮花深處繫蘭舟(연화심처계란주)연꽃 피는 깊은 곳에 란초

배를 매놓고서
逢郎隔水投蓮子(봉랑격수투련자)당신보고 물 건너 연꽃을 던졌는데
或被人知半日羞(혹피인지반일수)혹시 남이 봤을까봐 만나질 부끄럽네(원래의 번역).

供亮의 영문 번역
Lotus Land

秋淨長湖碧玉流(Flows water as a clean whistle in autumn lake)
蓮花深處繫蘭舟(Blossoms lotus in the deep, rowing and rocking a boat for you)
逢郎隔水投蓮子(Throws a flower onto the water beckoning my dear)
或被人知半日羞(The whole village gossiping, I just flush

behind all day long)

供亮의 새로운 해석
采蓮曲(연꽃따는 아씨)

秋淨長湖碧玉流(가을 호반 프르름은 우리 아씨 바람이런가)/
蓮花深處繫蘭舟(연꽃 한아름 안고 임랑 누실 자리 마련하니)/
逢郎隔水投蓮子(아직도 낮설은 임랑 내 벗은 연꽃 아랫도리)/
或被人知半日羞(내 사랑 들길세라 손들어 반쪽 하늘 가린다)
(그저 철저히 무너지는 거요. 그럴 때는. 연꽃이란 순결 숭고함이요. 아랫도리 위에 살짝 걸친 꽃을 거칠게 내 던질 때 - 이 조의 사내들이 난폭했을 때, 즉 여인의 숭고함을 무시할 때 - 하늘도 돌아 돕는다는 거요. 그 어찌 예쁜 꽃을 내팽개칠까. 그저 살며시 바람에 날려야 하거늘.) ***

게시판

미주 동창회 제14대 회장 후보추천 공고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 중 미주 동창회원들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할 차차기 회장 - 제14대 동창회장(임기 2017.7 ~ 2019.6) -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후보추천 마감 = 2014년 12월

31일.

▶회장후보 공약 = 2015년 1~5월중 동창회보에 공약 발표.

▶2015년 6월 = 제24차 전국평의원회의에서 투표. 차차기 회장 확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인선위원장 김은종(제11대 미주 동창회장) e-mail : edk@npcims.com. 전화 310-667-2350 ***

새로 단장한 미주 동창회 Homepage 개설

미주 동창회는 기존의 Homepage를 대폭 수정하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동문들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http://snuaa.org이며 자유게시판에는 동문들께서 user ID와 password를 받아서 글,사진,음악 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 동창회 website가 link돼 있으니 지역 동창회와 networking은 물론 여러가지 홍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동창회 website 개설 혹은 기술적 문제가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onthly updates and maintenance를 위한 안정적 자

재비용 확보를 위해 Homepage에 strip 광고를 넣기로 하고 광고 기증을 해주실 동문들을 찾고 있으며 동창회와 관련있는 사업체와 광고계약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동문들과 관련 사업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김 원 영 Webmaster(wonyoungkim1@gmail.com, 전화 646-623-7701

▶손재욱 IT 위원장 (267-736-2991, jhaahs@tinhaahs.com, 전화 267-736-2992)

▶오인환 회장(ioh0858@comcast.net, 전화 301-775-3919***

IRS감사대비 내부감사 일정과 담당 감사위원

▶감사기간 = 2014년 1 ~ 12월-100% 마칠 때까지 요청한 세금 보고자료 보내주기 바랍니다.

▶박 숙 위 원 (Chicago, jhcspp@naver.com,847-707-9693) = 달라스·룩키마운틴·시카고·중부텍사스·휴스턴 동창회.

▶김 창 수 위 원 (NY, changsookimcpa@hotmail.com, 212-760-1768) = 뉴욕·뉴잉글랜드·조지아·오하이오·필라델피아 동창회.

▶김 지 영 위 원 (남가주, jkym@yahoo.com, 213-308-0009) = 남가주·북가주·샌디에고·아

리조나·하와이 동창회.

▶노 상 문 위 원 (DC, cpa_noh@yahoo.com,703-749-1110) = 미네소타·워싱턴 DC·플로리다·캐롤라이나·테네시 동창회.

▶배 규 영 위 원 장 (Heartland, kybae8533@gmail.com, 913-709-2335)) = 알래스카·오레곤·워싱턴주·유타·하틀랜드 동창회.

내부감사에 대한 문의는 배규영 위원장께 연락 바랍니다. Kiuyoung Bae, Ph.D. 전화 913-709-2335 Email: kybae8533@gmail.com ***

지역 동창회 후반기 행사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장경태) 송년회 = 12월 30일(화) 오후 6시 The Westin Tysons Corner Hotel Vienna, VA

▶샌디에고 동창회(회장 최흥수) 송년회 = 12월 6일(토) 오후 6시 Town & Country Hotel, San Diego, CA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호범) 총회 및 송년회 = 11월 30일 오후 6시 Drury Lane Oak-

brook.

▶남가주 동창회(회장 이서희) 골프대회 = 10월 25일(토) 12시 Westridge Golf Club(1400 S. La Habra Hills Dr. La Habra, CA 90631

▶남가주 관악연대 해끝잔치 = 12월 28일(토) 오후 6시. Garden Suite Hotel, Banquet Room, 681 S. Western Ave., LA, CA ***

중부 텍사스 동창회 경사

중부 텍사스 동창회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동문이 현재 재직중인 Earnest & Young사에서 partner로 승진돼 회사에서 미

주류 및 한인사회 언론사, 미주 동창회에도 Press Release를 보낸 바 이에 동문 모두가 축하해 주기를 바랍니다. ***

동창회보 우수 작품상 모집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미 공고한 바와 같이 시수필, 포트 등에 대한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동문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미주 동창회 사무실. 주소 =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182. e-mail snuaausa12@gmail.com. 전화 703-462-9083. ***

시국 칼럼

“위안부를 모욕한 시오노 나나미를 규탄한다!”



조화유(문리대 61) VA
저술가·전 조선일보 기자

▶소금밭에서 일곱달만에 태어난 딸 떨어진 사람 = “누가 위안부(慰安婦)라는 명칭을 붙였는지 알 수 없으나 참 상냥한 이름을 붙였다.” “인간은 부끄럽거나 나쁜 일을 했다고 느끼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스스로 믿게 된다.”

일본의 저술가 시오노 나나미(塩野七生)가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 최근호에 기고한 글에서 한 망언이다.

그녀의 이름 그대로 ‘소금밭(塩野)에서 일곱달 만에 태어난(七生) 딸 떨어진 사람’ 이나 할 소리다.

시오노 나나미는 조선인 종군위안부들이 강제로 일본군에 끌려다녔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란 이름이 귀엽다고 조롱까지 했다.

▶일본인 위안부 이야기 ‘산다칸 8번창관 망향’이란 실화 = 역사를 전공했다는 사람이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 당사자들을 거짓말장어로 매도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대 로마에 관한 책 몇 권 써서 일본 지식인을 자처하는 이 노파는 자기 나라 정부가 이미 21년 전에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을 통해 조선인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한 것도 무시한단 말인가.

글쎄나 쓴다는 여자가 자기 나라에서 1970년대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된 일본인 위안부 이야기 ‘산다칸 8번창관 망향’이란 non-fiction책과 동명의 히트 영화도 보지 못했는가?

시오노 나나미가 그 책과 그 영화를 보았다면 조선인 종군 위안부에 대해 위와 같은 망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강제로 매춘부가 돼 해외진출한 일본 민간인 =자기 나라 여성도 강제로 데려가 위안부로 쓴



일본군대가 식민지 조선인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실제로 증거 문서도 많이 발견되었다. 일본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치사한 행동을 그만두고, 대국답게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배상하기 바란다.

시오노 나나미 같은 지식인(?)들도 맹목적 애국심으로 허튼소리를 내뱉어 자기 자신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는 ‘산다칸 8번창관 망향’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고, 그 책을 바탕으로 제작돼 1974년도 아카데미 외국영화상 후보로 지명된 동명의 영화를 보고는 눈물을 흘렸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얼마 전 다시 한 번 이 영화를 볼 때도 마지막 장면에서 또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났다.

이 영화는 일본인 위안부에 대해서 그런 실화다.

주인공은 군 부대를 따라다녀야 했던 종군 위안부는 아니었지만, 강제로 매춘부가 되어 해외진출 일본 민간인과 일본 군대를 ‘위안’한 여성 중의 한 명이었다.

규우슈(九州)의 한 가난한 어촌에서 홀어머니와 오빠랑 같이 살던 10대 후반 처녀 오자끼(가명)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일종의 인신매매단의 꾀임에 빠져 보르네오 북부(지금의 말레이시아 영토)로 끌려간다.

오자끼는 보르네오의 항구도시 산다칸에서 일본인 경영 창관(성매매업소)에서 매춘을 강요당한다. 산다칸에 자주 집단으로 상륙하는 일본 해군 수병들의 위안부 노릇도 해야 했다.

▶하루 30명도 상대 = 병사들이 몰려들 때는 하루에 30명까지 상대할 때도 있었다. 그녀는 한 일본인 청년 노동자를 만나 사랑도 해보지만 곧 배반당하고 만다.

한편 고향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동생이 벌어서 보내준 돈으로 좋은 집도 사고 결혼도 하여 잘 살았지만, 그녀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동생이 가라유기상(해외에 매춘부로 팔려간 일본 여성들을 가리킴)이라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우니 동생이 보르네오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오빠와 율케의 대화를 엿듣고 목욕통에 머리를 박아 자살 시도까지 하다가 다시 고향을 떠난다.

◀종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간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 일본 저술가 시오노 나나미(77세). “네덜란드 여자들까지 위안부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큰일”이라며 “그 전에 급히 손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급히 손을 써야 한다는 것은 사과와 배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강제동원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

그의 작품을 통해 관찰해보면 윤동주가 흠모하던 Rainer Maria Rilke나, Francis James나, 윤동주 자신이나 윤치호나 모두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들 예술작품을 남겨 후에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진리를 말해주는 귀한 증거들이다.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 가슴이 아프게 찢어지고 눈물이 나온다. 힘이 없으면 서럽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한다. 분명히 잔혹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그런 과오를 저질렀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한다.

한편 아무리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정신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독도 등 분쟁을 일으키는 나쁜 일본인들을 용서하고 타협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모두 평화롭게 살아야 할 것이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윤동주 문학 기념관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만큼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에서도 대한민국 문화원의 계속적인 지원과 지역 문인들의 열성으로 그의 작품이 영어로 번역되어 남녀노소 동포들에게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윤동주의 일생은 우리 민족의 슬픈 기록이지만 그래도 그는 국경을 초월하여 그의 작품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그의 작품 속에는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별 헤는 밤’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하략.***

시인 윤동주에 관한 소고(少考)



서윤석(의대 62) VA
현대 시인협회 회원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1917년 12월 30일 간도 명동촌에서 출생,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福岡)형무소에서 사망).

윤동주는 순수하고 섬세한 예술적인 심성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가 남긴 동시, 순수한 서정시를 읽으면 우리나라의 지난 슬펐던 역사를 느낀다.

그는 일제 막바지에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감언이설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일본인들에게 체포되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다. 아마도 생체실험을 했던 의학자(?)들에게 희생을 당했던 피해자의 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가 나쁜 일본인들한테 희생과 고난을 당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는 조직적으로 항일운동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일본 교토(京都)의 도시샤(同志社)대학에서 공부하던 영문학도였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같은 연약한 예술가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는 조각가 로댕과 같은 그런 자신감에 넘친 강한 완벽한 예술가는 아니었지만 고향땅을 그리워하며 살던 선량한 문학도였

다.

프랑스 시인 프란시스 잼처럼 주어인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오래 오래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한 편의 시 ‘별을 헤는 밤’에서 말했듯이 부모와 친구들에 대한 기억, 별과 나무와 모든 것을 사랑했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깊고 넓은 애정을 가졌던 착한 문학청년이었다.

우리 민족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제 강점시대, 이유야 있었겠지만 80세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그 중 60년간의 유명했던 일기(주로 영문)로 글을 남겼던 윤치호 같은 사람에 비해 윤동주 시인은 아주 애석하게도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다.

그러나 그가 남긴 아름다운 서정시는 읽는 사람들에게 늘 깊은 감명을 준다. 그의 글들은 분명히 훌륭한 예술가, 빼어난 시인의 작품들이다.

한편 일본인들에게서 귀족 작위까지 받았고 YMCA에도 관여했던 윤치호는 결국 해방을 맞아 친일파로 몰린 뒤 사망했지만 윤동주 시인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해방도 못보고 사망했다.

1945년 2월 아마도 인체실험(?)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애석하게 사망했던 것이다. 그가 몇 달만 더 버텼으면 해방을 보았을 것이다.

그의 유해는 화장해서 만주의 고향땅에 묻혔다. 너무도 아까운 만 27세 젊은 나이였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만일 그가 더 오래 살아서 해방은 물론 6.25 한국전쟁 등 남북의 갈림 속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 때 아마자키 도모코라는 여성 언론인이 찾아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다.

▶조국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 “종군 위안부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한 시오노 나나미는 꼭 이 책과 영화를 보기 바란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놓치면 안된다. 보르네오에서 위안부 노릇하다가 본국(일본)인의 멸시가 두려워 귀국도 하지 못하고 머나먼 이국땅에서 죽어간 일본 여성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공동묘지에 모두 묻힌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들의 이름이 적힌 비목들이 전부 일본을 등지고 서 있다는 사실이다. 조국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그녀들은 죽어서도 일본 쪽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 영화(영어제목 Sandakan No.8)를 무료로 보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한다. 유튜브에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영어 자막이 붙어 있다. ***

<전반부>
<https://www.youtube.com/watch?v=5Jbb9cVs834>

<후반부>
<https://www.youtube.com/watch?v=YSmYJCJ0fIE> ***

시국 칼럼

“북한이 단기적 내정불안 겪고 흔들릴 가능성 적어...”



전재성(사회과대 83)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얼마 전 한국 정부에서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전재성 교수가 외교안보 분과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 교수는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를 전제한다.

최근 북한의 활발한 외교행보 배경 주목. 북한, 정권교체기에 심각한 불안 겪지 않아. 급변상황 대비와 함께 중장기적 남북협력·경쟁도 고려해야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외교적 행보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납치자 문제에 성의를 보이면서 북일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향후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러시아와 다각적 경제협력을 모색하는가 하면, 최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는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과거 두 차례밖에 없었던 북한 외무상의 UN 정기 총회 방문 소식도 들리고 있다.

동시에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식 인권 외교도 추진하고 있다.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권 문제 토론을 위해 국제사회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시사적이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강성택 처형을 목격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정성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단기적으로 내정 불안을 겪고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북한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를

외부에 시위하는 동시에 소위 ‘김정은식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북한의 노동신문은 ‘북한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 것이며, 이에 기반한 외교 전략을 추진한다’는 논설을 실었다.

현재 동북아가 미국의 약화, 중국의 부상,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으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국가가 되었으므로, 향후 북한은 막대한 물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정세를 좌우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권교체기에 심각한 불안, 퇴보 겪지 않아 = 우리 한국은 이제 북한이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이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김정은 정권 등장 직후 북한 내 급변사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은 급작스럽게 닥칠지 모르는 ‘흡수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흡수통일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도 부상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북한 내 정권 교체기에 북한은 심각한 불안과 퇴보를 겪지는 않았다. 경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행보를 한 것으로 관측되고,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북한 정권의 생존을 흔들 만큼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

한국 역시 정권 교체기의 북한을 변화시킬만한 정책 수단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 사실이다.

올 초에 한국을 강타했던 ‘통일 대박론’은 점차 약화된 통일 열망에 힘을 불어넣고,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 소요될 많은 비용을 현명하게 줄이는 노력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통일은 적극적인 대북 전략과 통일 전략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자 문제를 두고 북한과 양자 교섭에 나섰고, 북한은 이를 북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그야말로 전면적인 외교 난제에 휩싸여 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패를 용인할 수 없는 오바마 정부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북한 문제에 눈을 돌리기 어렵다.

당장 이라크·시리아·우크라이나·이란 등 산적한 문제가

얼굴과 이름



이태상(문리대 55) CA
전 언론인

미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해 ‘구제할 길 없는 야만인들’이라고 한 다른 백인들과 달리 그나마 대량 학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극소수 인디언 어린이들에 대한 자비심과 동정심에서 이들을 서구인화 하려고 애썼던 한 백인이 있었다.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재향군인 리처드 프라트는 펜실베이니아주 카라일에 ‘인디언 아이들을 위한 프라트의 카라일 학교’를 설립, 미국 각지의 인디언 부락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학시켜 이들의 머리를 자르고 서양식 교복을 입히고 세례를 받게 해준다.

이 가운데 한 아이가 이러한 경험을 기록해 놓고 있다.

미국을 괴롭히고 있다.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적 지책을 위해 가장 해결 가능성이 높은 외교 이슈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북핵 문제가 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 전략적 인내가 대북 정책 기조이지만, 그 인내가 얼마나 전략적일 수 있을지 회의가 일고 있다.

▶중국, 북한 버리고 한국에 올인하지 않아 = 중국은 한국의 대북 전략을 꾸준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한국 국민들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을 환대했고,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향후 중국의 강대국화라는 거대한 비전 속에서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다. 경제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이제 군사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협력과 경쟁이 교차되는 현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중국의 강대국화 정책, 그리고 주변국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과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보면 남한과 북한, 두 개의 한국을 적절히 관리하는 정책이지, 북한을 버리고 한국에 올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은 대남 도발을 하고 핵군사력을 강화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재개가 강화되어 생긴 계획경제의 무력화 현상이기도 하지만, 적국

“난 이제 더 이상 인디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백인의 모조품 같다.”

몇 년 전 미국병원에서 해산한 조카 며느리를 다른 가족들과 같이 방문했다. 신생아실에 있는 갓난아기를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아이 이름을 지었느냐고 아기 아빠 보고 물었더니 그는 대뜸 ‘조지’라고 한다.

아기 이름은 물론 부모나 조부모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 자녀들이 서양 이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도 동포 한인 아이들이 서양 이름을 가지면 어쩐지 타고난 얼굴 생김새와 이름이 맞지 않아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어색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 같다. 하긴 1.5세나 2세 자신들은 미국 이름 갖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자연스럽게 느낄 지도 모를 일이다.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중국 화교 출신으로 첫 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게리 로크(64) 씨가 지난 3월 1일 퇴임에 앞서 중국관영 매체의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다.

중국 신문사는 2월 28일 ‘잘 가시오, 게리 로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를 ‘썩은 바나나’로 지칭했다. 겉은 노랑고 속이 하얀 바나나는 생김새와 달리 자신을 서양인으로 생각하며 사는

적으로 시장화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핵을 가진 북한이 외부의 경제 지원을 얻어 경제발전의 계기를 확고히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장기 생존을 도모하는데 실패할 것으로 속단할 수 없다.

향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국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면 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더구나 빠른 속도로 핵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활용하는데 기민함을 보인다면?

▶대북전략 우회하면서 통일 꿈꾸는 것은 요행 = 2010년대의 후반부를 준비하면서 한국이 생각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자.

첫째, 북한이 고민하고 있을 중장기 전략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다양한 이슈에서 중장기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내부의 정치안정과 경제개선뿐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관계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다.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항상 진실인 만큼 중장기에 펼쳐질 남북 간의 경쟁과 협력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의 전략 스타일이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땀을 들이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패권이 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보와 분석을 총동원하여 변화하는 북한을 정확히 읽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의 염원이 깊어질수록 정교한 대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다.

이 사실은 ‘바나나는 오랫동안 놔두면 껍질은 썩고 하얀 속살도 까맣게 변한다’며 ‘화교 3세인 로크 대사가 미국 입장만 대변했다’고 비난했다.

이를 같은 동양인의 입장에서 풀이해보자면 인(仁)과 덕(德)을 으뜸으로 삼는 동양 왕도(王道) 대신 인의(仁義)를 경시하고 무력과 금력을 중시하는 서양 패도(覇道) 패권주의의 앞잡이 광대라고 조롱한 것이다.

한편 세계적인 음악가로 국내에 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활약해온 정명화·정경화·정명훈 남매들같이 한국인으로서는 한국 이름을 그대로 쓰면 얼마나 더 멋있게 당당하며 자연스럽게 존경스럽기까지 한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다워야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지킬 때 말이다. 원숭이처럼 남의 흉내나 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잃고 자기 고유의 개성과 인격을 버리고 나면 그런 나라나 민족 또는 개인에게는 참다운 ‘외교’나 정정당당하고 대등 공평한 대외 관계를 맺을 주권이 없는 셈이다.

그런 만큼 한국 사람이라면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는가,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대북 전략을 우회하면서 통일을 꿈꾸는 것은 요행에 기대는 것과 다름없다. 진보 정권 10년, 보수 정권 7년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 동질성 강화와 통일 기반 확충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철저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되 공세적이라고 오해받을 소지를 줄이고, 상호 간에 신뢰구축을 위해 소통하면서, 핵 없는 북한이 한민족 전체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의 결단이 중장기적인 북한의 발전, 더 나아가 통일에 유익하다는 사실도 전해야 한다. 한국의 대북 전략은 정권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기 변화가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셋째, 대북 전략과 외교 전략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향후 한국의 운명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미중관계 및 중일관계와 같은 강대국 세력정치의 향방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일변도 정책으로 외교 정책에 무리를 주어서는 안된다. 북한 문제를 풀면서 한국의 국력을 강화하고, 강대국 세력정치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북한 문제 활용론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재성 교수 프로필>

서울대 외교학과 졸, 노스웨스턴대 정치학박사- 2012 핵안보 정상회의 자문위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현재),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외교안보분과 간사, 현재)***





모교 소식

“진로문제가 가장 어려워”
학부생 대학원생 공통 고민

모교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대학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진로 문제’를 꼽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서울대 대학생활 문화원은 지난해 8월·지난 2월 학부 졸업 예정자 3천523명 중 1천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원생은 졸업예정자 2천994명 중 972명이 대상이었다. 학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 생활 중 어떤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진로 문제가 3.48점으로 가장 높았다. 학업문제(3.08점)와 이성친구 문제(2.80점)가 뒤를 이었다.

진로는 10명 중 4명이 3~4학년 때 결정했다. ‘4학년 때 결정’ 응답이 26.2%로 가장 높았고 3학년(15.9%), 중·고교 시절(9.5%) 순서였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국내 대학원 진학과 일반 기업 취업이 각각 37.6%, 35%로 가장 높았다. 전문직·기술직 취업은 8.4%에 불과했다.

진로 선택시 고려 요인은 ‘적성에 따라 결정’ 응답자가 가장 많

았고 ‘전망’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예정한 진로와 자신의 전공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7.3%나 됐다.

대학원생들도 진로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대학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진로 문제’가 3.23점으로 가장 높았다. 학업문제(2.95점), 경제적 문제(2.82점)이 뒤를 이었다.

학부 졸업예정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49.3%)이 ‘군 입대 외의 이유로 한 학기 이상 휴학했다’고 응답했다. 휴학 이유로는 ‘자격시험이나 각종 고시 준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진로문제’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격시험이나 각종 고시준비’, ‘학업부진’을 이유로 휴학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건강문제’, ‘진로문제’, ‘전공 적성문제’ 등의 이유가 더 많았다.***

<조선일보>

“졸업후 뭘?” “로스쿨 가야죠”
재학생 ‘로스쿨 이상열풍’

최근 서울의 한 식당에 이른바 ‘딘스 리스트(Dean’s list)’에 선정된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딘스 리스트는 서울대 경영대 재학생 중 각 학년 성적우수자 명단이다. 이들이 담당 교수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였다.

음식을 먹고 있던 때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자네들은 앞으로 졸업하고 뭐 하고 살 건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학생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들의 머릿속에선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최고경영자(CEO)가 되고 싶다’ ‘학업을 계속 이어가 학문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는 모범답안만 맴돌았다.

입을 연 것은 경영대생 A였다. 평소에도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밝혔던 그의 발언은 모범답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가려고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에 식사 자리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A는 당시 상황에 대해 “판에 박힌 대답은 싫었다. 주관을 보여주자는 생각에 품고 있던 말을 내뿜었다”고 털어놨다. 차가워진 분위기에 A는 역시 속으로 ‘이거 말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며 고개를 떨궜다.

A는 “그나마 취업이 잘된다는 경제학부나 경영학과가 이 정도인데 인문대나 사범대 같은 곳은 로스쿨 쏠림 현상이 더 심한 게 현실이다. 과거에 고시 준비

하듯 요즘 학생들은 ‘로스쿨에 한 번 도전해 보자’는 게 요즘 분위기”라고 전했다.

▶로스쿨 인기 시들었는데…서울대만 ‘무풍지대’ = 사실 다른 대학에서는 로스쿨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입학을 위한 법학 적성시험(LEET) 응시자 수는 최근 하락세다. 연간 1천500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취업이 쉽지 않다.

그러나 유독 서울대에서는 정반대다. 요즘도 서울대 곳곳에서는 로스쿨 논술 및 면접에 대비한 그룹 스터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로스쿨 준비학원 메가 로스쿨의 ‘연도별 서울대 수강생 현황’의 서울대 출신 수강생 수는 올해 355명으로 지난해(272명)에 비해 30.5% 늘었다. 반면 약대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수(172명)는 오히려 지난해(301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박어령 강사는 “서울대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에 비해 학원 수강보다 혼자 공부하거나 그룹 스터디 비율이 높아 실제로 로스쿨 준비생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로스쿨은 취업난 돌파용 = 로스쿨은 2009년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로스쿨 출신은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취업에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서울대생들이 준비에 매달릴까.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로스쿨은 그나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A씨는 “돈 잘 번다는 회계사, 변호사도 옛날만 못하다. 대기업도 이제는 정년 보장이 어려워

졌다. 반면 로스쿨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 좋은 곳에 취업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래도 평범한 쉐러리맨보다는 낫다는 얘기였다.

사법시험의 조만간 폐지에 할 수 없이 로스쿨로 눈을 돌린 학생도 많다. B씨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오직 사시 합격을 목표로 했으나 끝내 ‘최종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해 군복무를 하면서 로스쿨을 준비 중이다. 학교 다닐 때 사시 공부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이제 믿을 건 로스쿨 밖에 없다”고 했다.

▶제자가 로스쿨로 떠나는 모습에 허탈한 교수들 = 많은 제자들이 로스쿨에 매달리는 현실에 지도교수들은 “개탄스럽다”는 반응이다. 가능성 있는 제자들에게 애정을 다해 가르쳤는데 심중판구는 로스쿨 준비였다.

사범대 D교수는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려던 학생을 로스쿨로 떠나보냈다. “꼭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설득했지만 허사였다.

D교수는 “능력있는 제자가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말리고 싶었다. 끝내 ‘떠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허탈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렇게 로스쿨로 방향을 바꾼 이들은 과연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동아일보 취재팀과 만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대부분은 고개를 가웃했다. 사회과학대를 졸업한 뒤 로스쿨로 진학한 C씨(여)는 “대기업에 가기 싫어 로스쿨로 진학했지만 성적도 안 좋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겠다는 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모교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에 근무중인 30대 변호사 D씨 역시 “졸업 후 내게 돌아오는 건 ‘로스쿨 출신’이라는 주홍글씨와 차별대우였다”고 말했다. 아직도 한국의 로스쿨이 자리를 잡기에는 먼 길이 남아 있었다. *** <동아일보>

테너 이용훈 동문 음대 교수임용

신임 교수 채용에 파행 겪던 음대 성악과, 세계적으로 성가 높이고 있는 이 동문 채용

1년 6개월여 동안 신임 교수 채용에 난항을 겪던 모교 음악대학 성악과가 미주와 유럽에서 명성이 높은 테너 이용훈(41) 동문을 교수로 임용했다.

서울대 총장 직속으로 구성된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이용훈 동문을 음대 인사위원회에 추천했고, 음대에서 검토한 후 전임교수로 채용한 것이다.

이 동문은 본부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전임교수로 임용돼 9월부터 모교 음대 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동문은 서구 명문 오페라극장에서 활약하는 한국 간판 테너다. 모교 은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 2007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정식 데뷔했다.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하우스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과 이탈리

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영국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코벤트 가든) 등에서 공연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모교 음대 성악과 교수 정원은 8명이지만 정년 퇴임과 불법 행위로 인한 파면 등으로 교수 4명만 남은 상태였다. 이번에 이 동문이 새롭게 채용돼 들어오면서 앞으로 음대 학생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모교 음대 성악과 교수들은 테너 신모(41)씨의 전임교원 채용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극렬히 대립하던 과정에서 같은 과 교수가 다른 교수를 특정해 경찰에 고소하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

지난 5월에는 제자 성추행과 불법 과외 건으로 성악과 박모(48)교수가 파면되기도 했다.

사실상 학과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자 모교는 성악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장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교수 채용 작업에 착수했다.

모교 음대 관계자는 “현재 성악과에 남성 테너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명예교수와 기금 강사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테너 이용훈 동문이 전임교수로 임명되면서 교육 여건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대 내부에서도 교육 정상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 뉴시스>

국문과 시·소설 창작과정 첫 개설

모교 국문학과에 이번 9월 학기부터 시·소설 창작 과정이 교양강좌로 개설돼 본격적인 문예 창작 교육이 시작됐다.

이 교양강좌에서는 모교 국문학과 출신인 시인 이수명(85학번) 동문과 소설가 권여선(83학번) 동문이 각각 강의를 맡고 있다.

강좌는 매주 목요일 3시간씩 진행되고 있으며 두 사람의 동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학생들에게 시 창작과 소설 창작을 가르치고 있다.

수업은 학생들이 시와 소설 등의 습작 과제를 해오면 이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총 35명으로, 10명 남짓한 국문학과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제·경영학과 등 타과 학생들이다.

시·소설 창작 과정 개설을 주도한 방민호 국문학과 교수는 최근 “68년 서울대 국문학과 역사에 시·소설 창작 과정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민호 교수는 “학부생 중에 창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개별적 노력이나 전부가다시피 했다”면서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강좌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방 교수는 “일본에서는 도쿄대나 교토대 등 국립대와 게이오대 등 주요 사립대 출신들이 일본 근대 문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 주목할만한 작가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이어 “학생들이 문예 창작 공부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한국 문학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입학땐 ‘진보’ 졸업땐 ‘보수’ 법대 졸업생이 가장 비관적

모교 신입생은 갈수록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으나 졸업생은 보수적 성향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 대학생활 문화원이 공개한 신입생 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입생 888명 중 자신이 ‘진보적’ 이거나 ‘매우 진보적’ 이라 응답한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서울대 신입생들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 쪽으로 기울어왔다. 자신이 ‘진보적’ 이라고 응답한 신입생은 2007년 28.7%에서 올해 29.8%로 늘었고, ‘매우 진보적’ 이라는 응답도 같은 기간 1.6%에서 2.8%로 증가했다. 보수와 진보를 1~5점으로 구분해 5점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성향을 뜻하는 ‘정치적 성향 점

수’ 도 2007년 3.05점에서 지난해 3.18점, 올해 3.17점으로 높아졌다. 졸업생들의 양상은 반대였다. 2013년과 2014년 졸업생 1천254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보고서에서 377명(30.1%)이 자신이 ‘보수적’ 이라고 답해 ‘진보적’ 이라는 응답(25.7%)을 앞섰다. 졸업생의 보수 성향 응답률은 지난 2009년 29.7%에서 계속 증가해 올해는 32.5%로 조사됐다. 정치적 성향 점수 역시 점점 보수화되며 2010년 3.06점에서 작년 2.89점으로 하락했고, 올해는 2.95점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16개 단과대 중 법과대학 졸업생이 가장 자존감이 낮고 비관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



다. 법대 졸업생들은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일이 내 뜻대로 안될 것 같다’ 등의 질문을 통해 측정되는 ‘자아 존중’ 과 ‘미래에 대한 낙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08년까지만 해도 법과대학은 이 항목에서 중간 순위에 속했으나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순위가 급격히 하락하더니 매년 하위권을 다투다 올해 처음 최하위가 됐다. *** <조선일보>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그룹 회장 서울대 병원에 10억원 기부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그룹 회장이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연구 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10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피부 건강 연구 분야에서 앞장서 온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서울대학교 병원과의 오랜 연구개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Open Innovation Platform) 구축을 지원해 의학 연구 과정 혁신과 의료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진행됐다. 서경배 회장은 “아모레 퍼시픽은 1954년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연구실을 개설한 이후 도전과

창조 정신으로 국내 화장품 연구 분야의 선두에 위치하며, 혁신제품의 개발에 힘써왔다”며 “그동안 긴밀한 연구개발 협력 관계를 지속해 온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규 연구소 건립을 후원함으로써 서울대학교 병원, 나아가 우리나라 의학 연구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새로운 연구소 ‘의학연구혁신센터(CMI·Center for Medical Innovation)’는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산업체 등과 R&D 전체 과정을 협업하는 플랫폼을 구축, 새로운 의료 기술 및 약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산학연병 네트워크 연구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는 지하 5층, 지상 4층의 총 3만1484㎡(연면적) 규모로 건설되며, 내년 1분기(1~3월) 완공 예정이다.*** (서울=뉴스1)

모교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기금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의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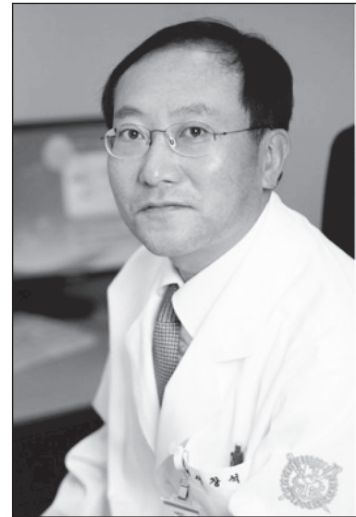
모교 서울대 도서관이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인 데다가 재학생 이용 수와 소장 장서의 포화상태로 한계상태에 부딪쳐 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네이밍(Naming) 캠페인과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벌이고 있다. ▶Naming 모금 캠페인 = 재학생 등 후배들이 사용할 책상, 의자, 서가에 기부해준 선배들의 이름을 넣어 후진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놓는다. <도표 참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 도서관은 학생들이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도서관이 관정 도서관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은 시설의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해 5월 이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조천식 동문이 ‘중앙도서관 시설환경 개선기금’ 으로 50억원을 후원한 외에도 300여 명의 동문들이 9억원 넘게 기부했

다.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모금 액수는 3년간 총 1천억으로 이 모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어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성을 새기며 더욱 모교의 미래를 만들어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가구·공간 Naming 모금 종류			
종류	내역	모금액	선택□
열람석	열람석 의자	100만원(\$1,000)	□
	4인 테이블	300만원(\$3,000)	□
	8인 테이블	500만원(\$5,000)	□
서가		500만원(\$5,000)	□
멀티미디어실	멀티미디어세트	500만원(5,000)	□
개인캐럴	개인실	1천만원(\$10,000)	□
그룹스터디룸	4~6인실	3천만원(\$30,000)	□
	8~10인실	5천만원(\$50,000)	□
세미나실	30석 규모	2억원(\$200,000)	□
	60석 규모	3억원(\$300,000)	□
컨퍼런스룸	100석 규모	10억원(\$1,000,000)	□
패컬티 라운지		10억원(\$1,000,000)	□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 바라고 있다. ▶캠페인 기간= 지난해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금 목표액= 3년간 총 1천억원의 모금 운동을 벌인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도서관 홍보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서창석 교수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로 선임



박근혜 대통령의 새 주치의로 서창석(사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선임됐다. 최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서창석 교수를 신임 대통령 주치의로 추천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통령 주치의는 이병석 연세대 의대 교수가 담당해 왔으나, 이 교수는 지난 7월 연세대 의대 학장을 맡으면서 의대 업무에 집중키 위해 청와대에 주치의직에 대한 사임 의사

를 전달했다. 새 대통령 주치의로 내정된 서 교수는 산부인과 전공이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해왔다. 서울대병원 본원이 아닌 분당병원에서 대통령 주치의를 맡게 된 것은 처음으로 서 교수는 경기도,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대통령 주치의는 양방과 한방 각각 1명씩 2명이 있으며, 한방 주치의는 현재 박동석 전 경희대 한방병원장이 맡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대통령이 호출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30분 이내 거리에 대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의 휴가는 물론 지방 및 해외방문 일정에도 모두 동행하며, 주기적으로 청와대를 찾아 의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상주 의료진과 함께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청와대 의무실장은 앞서 김원호 연세대 의대 교수가 맡아왔으나, 김 교수 또한 올 초 학교로 복귀해 현재는 현역 군의관이 의무실장직을 수행 중이다.*** <중앙일보>

일반고 수시합격 5년새 절반 이하

최근 모교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수시 합격생 총 2천649명 중 일반고 학생은 1천 243명으로 46.92%로 나타나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일반고 출신 학생 비율은 계속 감소해 2010년 1215명(60.1%), 2011년 1190명(57.7%), 2012년 1180명(58.5%), 2013년 1448명(54.6%)으

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981명의 합격생 중 일반고 학생은 35.9%인 352명에 불과했다. 반면 자율형 사립고 출신은 2010년 142명(7.0%)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405명으로 15.3%를 차지했다. 또 서울 소재 외고 6곳에서만 148명의 합격생(1개교 평균 24.7명)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도서관 기부 미주 동문들께 감사”

모교 졸업생들의 논문은 모교 도서관이 모두 검색 서비스하고 있고, 한국의 모든 석·박사 논문은 KERIS에서 운영하는 RISS 서비스(<http://www.riss.kr/index.do>)에서

검색 및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대학의 석·박사 학위 논문은 ProQuest PQDT, DODD database(<http://search.proquest.com/pqdt/dissertations/fromDatabases-Layer?accountid=6802>)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Institutional Repository (대표적으로는 <http://dspace.mit.edu>)를 만들어 석·박사 학위 논문을 저장해두고 있고 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google 에서도 pdf로 검색되고 있다. 전 세계 학위논문 상당수가 디지털화 되고 있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여러 database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는 모교 석·박사 학위논문의 디지털화와 검색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모교 도서관 신축 및 네이밍 모금에 미주 동창회 많은 동문들이 참여(표 참조)해 감사하고 있다. 일부 공간과 가구는 네이밍이 완료, 일부는 아직 남아 있다. *** <모교 도서관 김미향>

기부동문 이름	금액(\$)
이만택(의52)	5,000
김정희(음56)	1,000
오태요(의56)김명자	5,000
강창욱(의57)	1,000
고광선·양남주(공57)	10,000
최인갑(공57)	1,000
정동구(공57)	10,000
김진우(의58)	10,000
이홍표(의58)	1,000
반기문(문63)	5,000
오인환(문63)	1,000
김자역(의69)	1,000
박상원(음69)	1,000
손재욱(가77)	1,000
백승석	3,000
뉴욕 동창회	1,000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 강연발췌<1>

일제 식민지 정책의 재검토 북미에서의 연구 동향



문유미(외교 85)
Stanford 대 역사학과 부교수

일제 식민지 시대는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의 하나다.

식민지 시대의 경험에 대한 한국사 서술은 일제의 수탈과 우리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과 저항의 역사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를 한국의 민족주의 사관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위 사진 참조)

‘식민지 근대화, 근대성’ 이론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시각은 영·미권의 일제 식민지 연구에서 이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엄밀한 이론적 비판과 정교한 실증에 기반을 둔 대안적 시각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서구의 동아시아 연구와 학생 교육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수의 영·미권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식민지 근대성’ 논쟁의 파급효과는 장기적으로 학술 연구의 범위를 넘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주 동향회 주관으로 지난 6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3회 Brain Network 학술대회에서 일제 식민지 연구의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강연을 요청받고 식민지 경제, 식민지와 근대화 문제, 일본인 거류민의 정치와 일상, 동화정책, 식민지 전쟁 동원기의 자원병과 징병문제 등을 주제로 한 영·미권 대표 저작들을 소개하였다.

▶**학계 영향을 미친 저술들** = 최근 크고 작은 신간들이 발간되고 있지만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Peter Duus 교수의 ‘주판과 칼(The Abacus and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Carter J. Eckert 교수의 ‘제국의 후예(Offspring of Empire: The Koch’ 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Michael Robinson 교수와 신기욱(Gi-Wook Shin) 교수가 편집한 ‘식민지 근대성론(Colonial Modernity in Korea)’, Jun Uchida 교수의 ‘제국의 브로커들(Brokers of Empire: Japanese Settler Colonialism in Korea, 1876-1945)’ Takashi Fujitani 교수의 ‘인종과 제국(Race for Empire: Koreans as Japanese and

Japanese as Americans in World War II)’ 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 저서들은 학자 개인의 연구 초점과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식민지 근대화, 근대성’ 론을 제기하고 심화시킨 연구들로서 미국의 동아시아 학계에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소위 ‘글로벌 한국학’ 교육의 핵심적 교재로서 미주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읽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짧은 지면에 이 저작들의 주요 주장과 논거를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나마 그 핵심적 주장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이런 요약은 개별 학자들이 제시하는 논거의 복잡성과 학설의 뉘앙스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결국 하나의 책이란 두어개의 핵심적 주장으로 정리될 수도 있으며 이 핵심 명제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어떤 역사적 현상을 사회적으로 기억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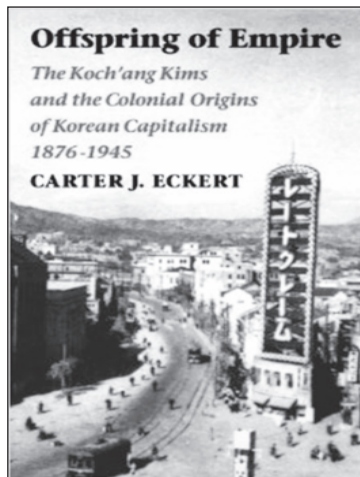
▶**‘주판과 칼’** = 우선 피터 두우스 교수의 ‘주판과 칼’ 은 개화기 이후 1910년 한일병합에 이



두우스는 한 편으로 고종 황제가 주도한 광무개혁에 대해서도 광무 시기 고종이 관료를 빈번하게 교체한 사실을 지적하며 그러한 불안정한 관료제에서는 효과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우스의 시각은 19세기 후반 이후 한국 내부에서 일어난 개혁운동 전반을 최종적 실패라는 입장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된 일제의 간섭과 행동을 공세적 침략이라기 보다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 개혁적 수세적 개입으로 규정함으로써 식민지 침략의 원인을 소위 피식민국가 내부의 ‘혼란’ 에서 찾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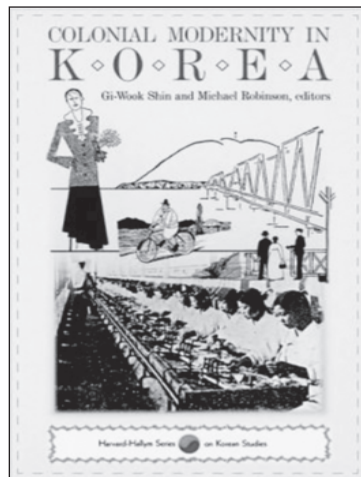
결국 두우스의 연구는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19세기 말 이후 한국사회가 걸어간 개화의 노정, 그리고 이 개혁의 한국적 경로와 일본 식민정책의 충돌, 일제의



적인 성장 계기도 3.1 운동 이후 조선 총독부의 대조선인 자본가 정책의 변화와 특혜 금융 및 보조금 지원과 밀접히 연관돼 있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그는 경성방직이 1937년 중일전쟁 개시 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보조금 없이는 안정적 이윤을 내지 못하는 취약한 기업이었으나 전쟁기 일제의 군사적 팽창과 보조를 맞추면서 크게 성장한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이 대표적 ‘민족 기업’ 이 금융, 기술, 시장의 모든 면에서 제국의 보호하에 탄생한 존재임을 실증하였다.

필자는 에커트의 사례 연구가 개별 기업과 식민지 국가의 미시적 거시적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식민지 자본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금융 배분 및 시장 진입 상의 특혜와 보조금이라는 장치를 통해 국가가 개별 기업의생존에 강력한



식민지 문화 연구의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입장의 학자들은 서구 제국의 ‘근대성’ 을 비판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식민지 연구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피식민국가 내부의 변동 및 역사적 주체 형성에 미친 식민 국가의 문화 및 지식 권력의 힘을 과대 평가함으로써 식민지 역사를 식민지에 대한 서구의 지식 및 담론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로 왜소화시켜버린 문제가 있다.

로빈슨과 신기욱은 완전한 탈식민주의도 근대주의의 입장도 아닌 절충적 입장에서 식민지 문제에 접근하면서 ‘문화적 헤게모니’ 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그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를 식민주의자의 수탈과 피식민 대중의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서술하는 민족주의 사학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식민지 시대 일제와 조선인의 관계는 동화, 협상, 저항의 다양하고 복잡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식민지 권력은 폭력과 강제를 넘어서서 사회 그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자발적 동의’ 를 이끌어내는 ‘문화적 헤게모니’ 에 의한 지배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로빈슨 교수는 일제의 ‘문화적 헤게모니’ 의 사례로 식민지 시대 라디오 방송을 분석하면서 일본의 기술과 자본, 정책적 요구에 의해 도입된 라디오 방송이 식민 권력의 의도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도 조선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심지어 문화적 저항의 공간까지 제공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신기욱 교수는 1930년대의 소작쟁의에 대한 식민지 국가의 개입을 분석하면서 식민지 국가가 조선인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하면서 농촌 사회내 중견그룹 지도자의 지도와 지원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적(corporatist)전략을 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국의 브로커들’** = 로빈슨 교수와 신기욱 교수가 일제 식민지 지배의 ‘근대성’ 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면 준 우치다 교수는 ‘제국의 브로커들’ 이라는 최근 저서와 논문들을 통해 이 패러다임을 식민지 정치경제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우치다의 연구는 ‘식민지 근대성’ 이라는 이론을 내세우기 보다는 실제 조선에 와서 거주하고 살았던 일본인들을 ‘일본인 정착민들(settlers)’ 로 명명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초상을 그려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9면에 계속>

“1990년대 후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에 대해 한국이 겪은 고통과 저항 등 민족주의 사관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정책을 메이지 정부 엘리트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한반도로 건너온 일본 거류민들의 활동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일본이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대외 팽창을 추진한 원인이 무엇이며 언제, 어떤 이유로 한국의 직접 통치라는 정책상의 결정을 내렸으며 결국 어떻게 식민화에 성공했는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두우스는 메이지 국가 엘리트들의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면서 일본이 최소한 1907년 고종의 강제 양위 이전까지 직접적인 식민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한국 스스로 ‘일본에 우호적이며 메이지 유신과 같이 성공적인 근대화를 추진하는 근대국가’ 를 수립하기를 원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입장에서 일본이 행한 갑오개혁(1894~1895)과 통감부 시기(1905~1910)의 한반도 개입은 조선의 근대적 개혁과 친일정부의 수립을 동시에 의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개화 세력이 일본이 기대한 것과 달리 무능했으며 한국인의 강한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친일 협력정권을 만들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후 서구 열강의 안보위협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일본은 결국 직접적 식민화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개혁적 수사와 실제 정책의 차이를 엄밀하게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식민지 침략에 대한 제국주의적 서사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재현하고 있다는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국의 후예’** = 카터 에커트 교수의 ‘제국의 후예’ 는 1991년에 출간돼 많은 화제를 낳았으며 사실상 ‘식민지 근대성’ 논쟁을 점화시키고 미주에서 일본 제국사 연구에 큰 전환을 가져온 책이다.

그의 연구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 민족주의 사학의 ‘자본주의 내재적 발전론’ 을 비판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 발전의 맹아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소위 ‘맹아론’ 은 그 근거가 부족하며 ‘민족자본가’ 라고 하는 집단의 실체도 불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한국의 자본가 계급은 ‘민족자본’ 으로서보다는 ‘식민지 제국의 후예’ 로서 태동하고 성장한 존재라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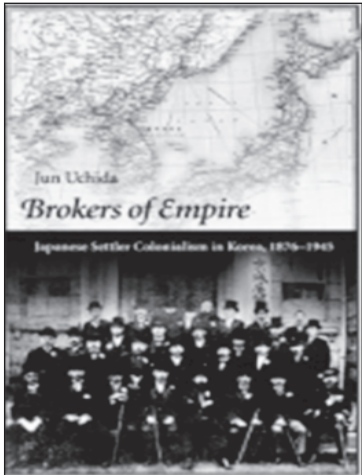
에커트는 방법론적으로 개별적 사례 연구의 방법을 택했는데 세밀한 실증을 그의 강점인 아름답고 정확한 문장에 실어 전개함으로써 논지의 서사적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는 ‘민족자본가’ 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고창 김씨 김성수 가문의 자본축적사와 경성방직의 성장사를 깊이있게 검토하면서 이 가문의 자본 축적이 조선 후기보다는 개항 이후 시작됐고 경성방직의 실질

영향을 미치는 ‘동아시아적’ 국가 - 기업관계의 원형이 식민지 시대에 이미 존재했음을 논증하였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성방직의 한 사례를 식민지 시대 ‘조선인 자본’ 의 일반적 발전 경로에 대한 주장으로 확대하거나 ‘조선인 자본’ 일반이 식민지 하에서 국가의 지원에 의한 ‘성장’ 의 경로를 걸었다는 확고한 증거로 제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식민지 국가와 일부 조선인 기업의 관계와 전후 한국의 산업화시대 국가 - 기업 관계를 동일한 ‘발전국가’ 모델의 선상에서 인식하기에는 실증의 부족과 이론적 비약의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할 수 밖에 없다.

▶**‘식민지 근대성론’** = 에커트 교수의 저서가 일으킨 충격과 속에서 마이클 로빈슨 교수와 신기욱 교수는 식민지 시대의 제도와 문화 변동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역사적 변화를 ‘식민지 근대성론’ 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했다.

90년대 이후 세계 학계의 식민지 연구는 푸코를 비롯한 탈근대주의철학의 영향을 받은 ‘탈식민주의’ 패러다임의 위세 속에서 비서구 지역에 대한 서구의 지식 형성 과정, 식민 권력의 담론과 지식이 식민지에서 인종, 민족, 젠더 등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역사적 과정 등에 초점을 두고



<7면에서 계속>
우치다는 또한 식민지 권력을 단일한 주체가 아니라 국가와 일본인 거류민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를 가진 주체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 거류민의 정체성을 총독부, 식민 모국, 토착민(조선인) 사이에서 한계적(liminal) 요소를 가진 존재로 묘사하였다.

그들은 지배 인종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제국의 형성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법률적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총독부 권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와 완전한 일체성을 가지기보다는 식민지 국가와 지원, 협상, 저항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특히 조선인들과도 의제에 따라 연대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조선의 이익을 제국에 대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우치다는 다양한 일본측 자료를 이용하였고 한국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어 자료를 포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방대한 실증의 면에서 귀감이 될 만한 성과를 남겼다.

필자가 ‘식민지 근대성’ 논쟁과 관련하여 우치다 교수의 입장을 종합해 본다면 그는 결국 국가의 권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상대적으로 다원주의적인 ‘공공영역(The Public Sphere)’이 존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식민지 공공영역’의 개념은 한국의 역사학자 윤해동 교수에 의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우치다는 한 논문에서 총독부가 철도 및 교통 산업의 과당경쟁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 정리를 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총독부의 인가를 얻기 위한 기업들의 연대와 갈등이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기업의 민족적 계선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으며 또 다른 논문에서는 한 지역의 전기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인과 조선인 거주자가 공동 의제를 가지고 대응해나간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소한 말기의 전쟁 동원기 이전까지 식민지 조선의 정치 경제는 국가와 다양한 사회 그룹간의 협상과 갈등, 연대가 공존하는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로빈슨과 신기욱이 주장한 ‘자발적 동의’에 의한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지배라는 ‘식민지 근대성’ 모델에 공감하면서 그 사례를 정치 경제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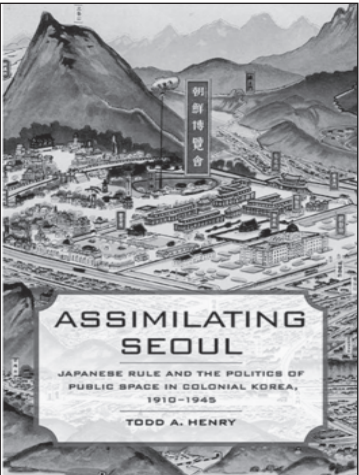
▶우치다에 대한 필자의 비판 =



우치다 교수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하면서 필자의 비판을 굳이 제시한다면 식민지 문제를 일본인 거류민의 시각과 그들이 생산한 사료를 중심으로 접근할 때 거류민들의 이해에 따라 형성되고 식민 권력과 검열에 의해 수용된 의제들을 ‘공공 영역’의 의제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우치다 교수 및 다른 교수들의 연구에서 ‘자발적 동의와 협력’의 사례로 제시되는 조선인 그룹의 숫자가 크지 않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룹들 역시 사회의 대변자라기보다는 국가와 분리되기 힘든 준 관료적 성격을 가진 국가의 대리인이거나 국가와 사회의 중개인의 성격이 강한 점이 보인다.

필자는 식민지에서 국가와 가까우나 독자적 이익을 가진 특수한 그룹이나 개인들이 국가와 사회를 중개하고 이 ‘중개인의 영역’이 사회 전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의제를 형성하고,



(vulgar racism)’에서 인종의 차이를 교육 등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신사적 인종주의(polite racism)’에 기반한 지배로 전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제 전시 동원기의 내선일체 정책과 조선어 금지, 창씨개명, 징병제 등은 조선 문화의 말살이라는 일견 가혹해보이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이를 소멸시키고 양인종의 평등을 확대하며 조선인을 제국의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한다.

▶후지타니에 대한 필자의 비판 = 그는 나아가 2차대전기 일제의 인종정책이 연합국의 아틀랜틱 차터와 유사하게 탈식민지로 이행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반영한 제국의 정책 변화였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치면서 이 시기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복지와 인구 정책을 도입하면서 소위 푸코가 말하는 ‘생명정치(biopolitics)’로

“일제의 전쟁 동원기에 조선어 미디어가 거의 폐쇄된 상태에서 일본군측 기록과 선전영화를 주 사료로 삼아 이같이 주장하는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대화, 논쟁, 설득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가는 ‘공공 영역’을 압도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비식민지 근대 국가와 구분되는 ‘식민지적 정치’의 한 특성이 아닐까 하고 가정해 본다.

그렇다면 어떤 의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의 기록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를 ‘공공 영역’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한 개념의 적용으로 식민지 사회의 역사적 실상을 오도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치다 교수의 사례들에 대해 현재의 연구 단계에서 필자가 책임있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에커트 교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심각한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 ‘인종과 제국’ = 마지막으로 ‘식민지 근대성’의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주장에 비해 다카시 후지타니 교수의 최근 저서 ‘인종과 제국’은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참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후지타니 교수는 2차대전기 일본계 미국인을 격리 수용한 미국의 정책과 일제 말기 대동아론에 기반한 인종 정책을 비교 연구하면서 이 시기 미국과 일본의 정책이 모두 인종의 생물학적 차이를 절대화하여 차별을 배타적으로 정당화하는 ‘저속한 인종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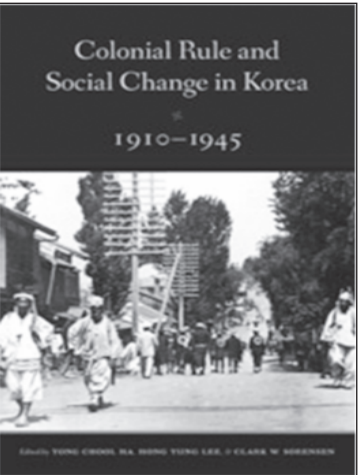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후지타니는 이 ‘생명정치’와 ‘신사적 인종주의’가 전쟁준비라는 동기에 의해 촉진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인 내부에서도 상당한 참여 열기를 일으켰다고 판단하면서 그 사례로 조선인 자원병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후지타니는 스스로 인구 센서스 실시와 군인 가족 지원 이외에 식민 당국의 복지 정책의 증거자료를 찾기는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선인 자원병의 숫자가 1942년에 25만, 1943년에 30여만명에 이르렀다는 점, 1944년 종전 직전에 일본 의회에서 조선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가 법안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30만명이 자원했다고는 하나 후지타니 본인이 제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자원병 중 실제로 훈련소에 입소한 자는 1943년까지 연인원 1만 8천여명에 못미치는 숫자인데 후지타니는 이를 식민 당국이 다수의 지원 열기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소수의 정예 인원만을 훈련소에 입소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후지타니 교수가 식민지 말기의 인종정책에 대해 이론적으로 ‘신사적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



다. 인종 차별이 생물학적 차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더 ‘수용적’이거나 ‘개방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후지타니가 ‘아틀랜틱 차터’에 비견해 ‘대동아공영권’의 탈식민주의적 성격을 주장한다면 ‘자결’이나 ‘권리’란 스스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 것인데 한 인종의 완전한 문화적 소멸을 강제함으로써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차라리 인종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정적으로 보면서 그 인종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독자적 공간을 인정하는 인종주의보다 현실에서는 더 저속하고 폐쇄적일 수 있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전쟁기 일제의 강제적 조선인 징용과 성노예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후지타니가 이를 ‘신사적 인종주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의 사례로 보는 것은 안이한 역사적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일제의 전쟁 동원기에 조선어 미디어가 거의 폐쇄된 상태에서 일본 군대측 기록과 선전 영화를 주된 사료로 삼아서 이같이 과감한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필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후지타니 교수가 연합군측에 포로로 잡힌 조선인 입대자에 대한 심문 자료에서 일제의 지원병 및 징병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이 나오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전승자에 의한 포로 심문이라는 기록의 맥락을 거론하며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은 사료 인용에서 균형점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상당한 숫자의 지원병이 존재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후지타니 교수가 이 문제를 아주 논쟁적인 방식과 상당한 자료 실증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제 식민지 말기의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저작이다.

이상에서 요약한 일제 식민지 시기에 대한 대표 저작들의 내용은 한국 역사학계의 사관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한국의 민족주의 사학계는 일본과 한국의 일부 경제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지만 궁극적으로 ‘식민지 근대화, 근대성’ 이론의 문제점과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성찰적이고 독창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특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복합체로 이루어진 북미의 지적 풍토에서 ‘한국민족’이란 민족주의 사학의 중심 주체는 보편적 의미를 획득하기 어려운 반면, 민족적 관점을 상대화하면서 계급, 성, 제국을 비롯한 초국가적 혹은 비국가적 단위체와 다양한 역사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식민지 근대성’자들의 학설은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수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영미권의 저작들이 역으로 한국으로 수입되어 신진 학자들의 식민지 문화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과제 = 이상 일제 식민지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며 최소한 북미에서 민족주의 사학의 단선적 역사인식은 충분히 비판된 반면 ‘식민지 근대성’이 가진 문제점은 보다 정확히 규명되고 평가되어야 하는 연구 단계에 놓여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무엇보다 ‘식민지 근대성론’은 식민지와 탈식민지의 역사적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식민지’라는 역사적 실체의 성격을 희석하여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문제로 치환해버리는 문제점을 보인다. 이는 근대의 체문제 속에서도 식민지와 과시즘에 의해 구조화된 특정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성찰적 개념적 인식을 회피하고 식민지 연구를 근대 국가 혹은 근대성 일반에 대한 서술 혹은 해석으로 대체해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에서 폭력을 식민지 지배의 상수이지만 주변적 요소로 돌리는 연구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폭력의 민족적 형식이 제국적 형식보다 항상 더 낮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제국의 지배에서 탈피하여 탈식민지로 나아간 세계사적 전환에 대해 학자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족주의 사학이 민족의 단일한 저항을 실증하기보다는 가정했다면, 그리고 일제 식민지 정책의 복합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단순화시켰다면 ‘식민지 근대성론’은 제국에 대한 ‘자발적 동의’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그 ‘동의’의 내용과 정도가 어땠는가 과연 식민지 제국의 지배가 문화적 헤게모니에 의한 통치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으며 식민지와 비식민지의 차이란 근대성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 해소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인지를 보다 엄밀히 검증해야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런 ‘식민지 근대성론’의 문제를 얼마나 많은 연구자 개인들이 민감하게 느끼면서 기존 연구를 압도할 만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런 비판적 연구자들이 영미권 학계에서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현실적 문제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학계에서 일본사의 경향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낙관적인 태도만을 취할 수가 없다. 동문 제위의 관심과 고민을 바란다. ***



60여년 전 이야기<3>



홍용식(공대 51) VA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중신회원

그러자 그들은 한 명씩 차례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며 명함을 내게 주기 시작했다. 명함에는 그 도시 부시장, 은행장, 백화점 사장, 부동산업 대표 등의 직함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진 돈은 자기 은행에 맡겨 달라느니,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든 준비돼 있으니 자기 백화점을 이용하라느니, 근방에 좋은 땅이 많으니 투자를 도와줄 수 있다느니 하고 선전을 시작했다.

▶**나를 부자 아들로 오인** = 한국전쟁에서 많은 미군이 전사하고 부상당했는데도 남부 시골의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몰랐고, 다만 신비스럽고 특수층은 엄청난 부자들이라는 소설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가난한 유학생인 나를 신비스러운 동양의 한 영주 아들 썸으로 생각해서 이곳 유지들이 호텔로 나를 환영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담당이 대학촌의 저렴한 호텔 대신 도시의 고급호텔에 나를 안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형편으로는 부담스런 많은 숙박료를 지불하고 호텔에서 나와 다시 버스를 타고 대학 캠퍼스로 돌아가 좁은 대학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니 비로소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 되돌아 온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이렇게 미국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날씨가 어찌나 더운지 기숙사 방과 복도에 코카콜라 빈 병들이 널려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

▶**흑인 인권운동** = 남부의 흑인들은 무지하며 숨 소리도 제대로 못내고 기가 죽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외국 학생들이 말을 걸면 매우 좋아하고 친절했다.

대학에는 흑인 학생은 물론 한 명도 없었고, 캠퍼스 밖 수도는 흑인과 백인용이 따로 있었다. 백인이 경영하는 식당에는 문 밖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봉사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글이 걸려 있었다. 흑인은 음식을 주방 밖에서 받아 가고 영화

“2차대전 말기인 1945년 서울 상공을 매일 유유히 날아다니던 B-29를 보면서 미국 유학과 Boeing사를 꿈꾸었던 나는 꼭 13년만에 그 꿈이 실현된 것이었다”

관 1층은 백인용이고 흑인은 외부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서 영화를 보았다. 흑인 사무직은 본 일이 없으며 전부 정원사, 노무자, 식당과 호텔 종업원, 백인집 하인들이었다.

그러던 것이 내가 도착하기 전 해인 1955년 Rosa Park라는 흑인 여성이 몽고메리에서 버스의 백인 앞자리에 앉았다가 뒷자리로 이동하기를 끝까지 거부해 경찰이 끌고가는 장면이 전국에 방영됐다. 이로 인해 흑인의 버스 보이콧이 시작돼 몽고메리 버스는 텅텅 빈 채로 운행하게 되었으며, 대법원이 ‘버스 내 좌석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 11개월이나 계속되었다.

이를 계기로 흑인 인권운동이 남부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몽고메리는 흑인 인권운동의 발원지로 유명해졌다.

1961년에는 그레이하운드 버스의 앞 뒤 좌석에 가득 탄 흑인들

←Auburn Hall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지금은 아파트로 변했다.

이 앨라배마주의 버밍햄에서 몽고메리로 향했다. 버스가 몽고메리 정류장에 도착하자, 흑인들을 경호하며 따라왔던 경찰이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KKK단원과 폭도들이 나타나 흑인들을 무차별 구타하였다. 이에 격분한 케네디 법무장관(케네디 전 대통령 동생)이 연방 보안관을 출동시켜 이를 진압했는데 이 또한 세계적으로 보도되었다.

또 1965년에는 흑인의 투표권 쟁취운동으로 앨라배마의 작은 도시 Selma에서 몽고메리까지 시위행진이 있었으나 주 보안관들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무산되었고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으며 세계적 토픽 뉴스가 되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Martin Luther King, Jr.목사가 선두에서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몽고메리까지의 행진을 마쳤다. 이 셀마-몽고메리 행진후 미 의회는 흑인 투표권 법안을 상정했고 1965년 8월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다.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8년 4월 인종 차별주의자에 의해 대낮에 암살당했다.

1999년 1월 클린턴 대통령의 연두 교서시에는 의회 맨 앞자리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선구자 Rosa Park여사를 초대해 대통령이 연설 중 할머니가 된 그녀를

탄 버스가 이 정류장에 도착하자 이들을 경호하던 경찰은 갑자기 없어지고 대신 200여 명의 KKK단원이 나타나 무차별 공격해 많은 부상자를 냈고 이에 분개한 케네디 법무장관이 450명의 연방보안관을 동원하여 이를 진압했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다음은 앨라배마 공대의 내가 지내던 기숙사를 간신히 찾았는데 지금은 임대 아파트로 변해 이 건물이 전에 Auburn Hall기숙사였다는 작은 표시가 새겨 있었다. 내가 있었던 방을 걸으로나마 보고 감개무량했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앨라배마에 도착해 처음 묵었다가 환영나온 지역 유지들을 KKK단원으로 오해했던 오펔리카의 호텔은 이름도 주소도 몰랐는데, 무작정 시내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레이하운드 정류장을 발견했다. 버스 2-3대 주차 정도의 작은 곳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43년 전의 정류장이라고 하였다.

정류장 건너편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호텔이 있지 않은가! 옛날에 겁이나고 걱정돼 밤을 새우고 KKK단원에 폭행당하는 줄 알고 놀랐던 곳이다. 지금은 오래된 Bed & Breakfast 여인숙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43년 전의 그 불안했던 기억이 나서 감회가 새로웠다. 기념으로 하룻밤을 묵을까 했는데 투숙객과 분위기가 마음에 안놓여 그대로 돌아왔다. 킹 목사가 이끌고 떠났던 셀마-

몽고메리 행진의 출발지 셀마시에는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I had a Dream” 이 새겨진 기념비가 서 있다. 당시 킹 목사의 흑인 인권운동을 남부의 지역적 운동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그 규모, 격렬함, 미국역사에 미친 영향 등에서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

▶**미국에서의 첫 여름** = 앨라배마 공대에서 2학기를 힘들게, 그리고 정신없이 지내고 첫 여름방학을 맞았다. 해방 후 혼란과 6.25, 가교사를 전전하던 대학공부, 특히 중요한 고3의 1년을 완전휴학한 영향은 너무나 컸고, 이 빈 틈을 메꾸기 위해 잠도 제대로 못자고 노력해야 했다.

우선 summer job을 얻어야 해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시카고로 갔다. 그러나 영어가 서툴어서인지 일자리를 못찾아 세끼를 굶고 엘리베이터를 돌리기도 했다. 엘리베이터를 하루 종일 돌리고 밤에 침대에 누우면 밤새 몸이 파도를 타고 위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러다 시카고 교외의 한 고급 휴양지에서 bus-boy(식사 끝난 접시를 나르는 사람)로 일하게 되었다.

하루는, 당시 세계적 거물급 지휘자였던 Pierre Monteux가 로비

←왼쪽 사진은 미국에서 처음 묵었던 Opelika의 호텔. 오른쪽 사진은 몽고메리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의 카페테리아 자리. 흑인 인권운동 기념비가 철망 뒤에 서 있다.

에 와 있다고 해서 함께 일하던 한국친구와 함께 버스보이 제복을 입은 채로 나가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했다. “카메라가 있느냐”고 물기에 기숙사 방에 가서 가져왔더니 그 사이 그는 없어졌다. 점잖게 거절당한 것이다. 그리고 곧 친구와 나는 그곳을 떠나야 했다. 버스보이 주제에 깨끗하지 않았을 제복을 입은 채 호텔의 중요한 손님에게 사진 함께 찍자고 했으니 호텔에서 가만히 놓아두었을리 만무하다.

우리는 콜로라도의 푸에블로 제철소에 철물 붓는 일자리가 있다 해서 가려는데 가진 돈이 버스값도 안되었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났다. 가는 차를 구했다는 것이다. 사연인즉 신문 광고란을 보면, 주로 노인들이 먼 곳에 차를 가져가야 하는데 직접 운전은 힘들어 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해 갈 사람을 찾는다. 우리 같이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거저 빌리니 좋고 차 주인은 거저 차를 이동시켜주니 좋다.

젊은 기운에 잠자지 않고 non-stop으로 콜로라도에 운전하고 갔다. 제철소를 찾아가 면접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거절했다. 우리같은 체력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의 Reedley라는 곳에 한인이 복숭아 농장을 크게 경영하고 있다 해서 Greyhound 버스를 타고 찾아갔다. 그는 김호라는 이민 1세였는데 텅 없는 복숭아(Nectarine)로 성공한 백만장자로 일거리를 찾아오는 한국 유학생은 다 받아주어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이었다. 나는 공대 기계과를 나왔으니 수학을 잘 할거라며 복숭아 상자의 구분과 세는 일을 시켜 힘든 복숭아 따기를 하지 않아 편했다.

고마운 일이었지만, 대학 출신 엔지니어의 수학과 사과상자 개수를 세는 산수를 연관시킨 그분의 위트있는 논리가 재미있었다. 복숭아 철이 지나자 다른 포도농장에서 포도따기를 했는데 허리는 아프고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결국 한 여름동안 잡일만 하다 보니 돌아갈 버스값 정도만 남았다. 고생은 많았지만 유익한 경험을 한 여름이었다.

나는 그동안 일리노이대 기계과 대학원에 입학수속을 해놓아 또 그레이하운드 버스로 Urbana에 갔다. 당시에는 미 전역을 다니는 값싼 Greyhound 버스가 우리처럼 가난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이였다.

▶**13년만에 이룬 꿈** = 석사 학위가 끝날 무렵 나는 취직하려고 입사원서를 사방에 보냈는데 계속 거절당했다. 어찌하나 걱정하던 차 마지막으로 Boeing에서 입사통보와 함께 시애틀까지 비행기표, 이사비용, 시애틀의 생활과 회사에 대한 안내서 등 각종 서류가 한보파리 왔다.

당시 미국 유학생이 미 주요회사에 취업되면, 한국의 신문에 누가 어디에 취직되었다고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고 화제거리가 되던 때다. 더구나 2차대전 말기인 1945년 서울 상공을 매일 유유히 날아다니던 B-29를 보면서 미국유학과 Boeing회사를 꿈꾸었던 나는 너무나 기뻐다. 꼭 13년만에 그 꿈이 실현된 것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동문 및 동문단체 동정(일부 중앙·한국일보 인용)
아르곤 연구소 장윤일(공대 60) 박사

한국에 절실한 차세대원자로 개발중

효율성과 안정성 뛰어나 2050년까지 상용화 완료,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공동 추진

지난 8월 한국의 원자력연구원과 르몬트 소재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0년까지 4억달러를 투자해 소듐냉각 고속원자로(PGSFR)를 만들고 2050년까지 상용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주도한 장윤일(공대 60·사진) 박

사의 역할이 컸다.

장윤일 박사는 지난 1984년부터 10년간 아르곤 연구소에서 총매니저로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해왔다. 또 고국의 KAIST 초빙교수를 역임하면서 한국 정부에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적극 설득하기도 했다.

장 박사는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 효율성과 안정성에서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기존 상용 원자로는 우라늄 자원을 1%도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 일체형 고속로(Integral Fast Reactor)는 100%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 아울러 건식재처리(Pyroprocessing)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후 핵연료가 자연상태의 수준으로 떨어지기까지 기존 30만년에서 300년 이내로 대폭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박사는 “아르곤 연구소에서

←장윤일 박사가 아르곤 연구소에서 차세대 원자로의 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35%가 원자력 발전인데 40%까지 늘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세대 원자로의 경우 기존 원자로에 비해 안정성이 탁월하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누출사고와 같은 일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고 밝혔다.

장 박사는 모교 공대 원자력공학파를 졸업한 뒤 텍사스 A&M 석사, 미시간대 박사, 시카고대 MBA를 받았으며 197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아르곤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힘쓰고 있다.***



워싱턴 총영사관 이준호(외교 89) 참사관 부임

“친절·정확한 영사업무 제공할것”

“영국에서 영사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 동포 업무가 낫설지 않습니다. 워싱턴 지역 동포들을 위해 최선의 영사업무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8월 9일 언론사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호(왼쪽) 참사관과 강도호 총영사가 동포 업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워싱턴 총영사관에 부임한 이준호(외교 89·사진) 참사관은 최근 중화원에서 열린 언론사 기자 간담회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업무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모교 외교학과 출신인 그는 외무고시 28회로 외교부에 입부, 통상국과 북미국에 이어 주영국 대사관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북핵외교기획단에서 근무했고 본부 인사운영팀장과 북핵정책과장을 지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도호(외교 81) 총영사와 최영준 영사도 참석, 영사서비스 전반에 관한 브리핑도 했다.***



전소정(미대 01) 작가 뉴욕 두산 갤러리 개인전

“밤이 다됐으니 이 밤 잊으세요”

두산 갤러리 뉴욕이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국 현대 미술의 신세대 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전소정(미대 01) 개인전을 개최했다. ‘밤이 다 됐으니 이 밤을 잊으세요(Forget This Night When the Night Is No More)’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존 작품 3점과 신작 2점의 비디오 작품이 전시됐다.

기존 작품으로는 극장 간판장의 삶을 다룬 ‘되찾은 시간’과 한 자리에서 40여년 동안 미싱사로 살아온 이의 일상을 그린 ‘어느 미싱사의 일일’, 외출하기 곡예사를 통해 예술과 예술가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기쁨’이 전시됐다.

신작 ‘열두 개의 방’과 ‘보물섬’은 각각 피아노 조율사와 제주 해녀의 이야기를 통해 예술가를 둘러싼 세계와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이 두 점의 영상 작품은 전시 안에서 쌍을 이뤄 동양과 서양, 외부와 내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이성적 세계와 신화적 세계의 경계를 오가며 사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 작가는 조소학과 졸업 후 서울 시립미술관과 오사카 국립미술관, 프랑스와 루마니아 등에서 다수 그룹전에도 참여했다. ***

소프라노 김현심 교수 하와이대서 독창회

소프라노 김현심 교수의 독창회가 9월 6일 오후 7시30분 하와이 대학교 음악대학 오비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이청행 교수 피아노 반주에 한국 가곡의 밤으로 열린 독창회에서는 산유화, 달밤, 고흥의상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김설아 국악인의 장구와 해금 연주와 함께 선보였다.

김현심 교수는 모교 음대와 대학원 및 뉴욕 맨하탄 음대(Manhattan School of Music)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 뉴욕, 내쉬빌에서 독창회 11회, 서울 바로크싱어즈, 부산시립 및 제주시립 합창단, 최훈차콰이어, 부산 아트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국원로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세계소리축제, 서울창작음악제, 평화음악회, 신년음악회, 베르디 오페라갈라 콘서트, MBC-FM 목요일음악회, CBS-TV 개국축하음악회(부산), CTS-TV ‘내 영혼의 찬양’, Broadway Gala Concert, 바로크와 현대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영미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스페인 가곡의 밤, Schubert Song Festival 등 100여 차례 국내외 연주 출연했다. ***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 유상대(경제 82) 소장

“미 금융당국과 긴밀관계 유지할것”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지금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조사연구와 정보수집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8월 23일 뉴욕에서 공식업무를 시작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유상대(경제 82·사진) 소장은 최근 언론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런던사무소와 함께 3천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일정 비중을 실시간으로 미국과 영국 현지에서 운용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리서치와 연구를 통해 미국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짚어내는 것 역시 뉴욕사무소의 역할이다.

유 소장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며 “효율적 외자운용과 동시에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정책 그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이머징 마켓의 변화 금리 등 국제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할만한 변수도 더욱 많아졌다는 게 유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뉴욕은 미국 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중심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준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뉴욕연준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소장은 1986년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뉴욕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은행에는 지난 1986년 입행한 이후 조사부 조사역 국제국 과장 금융시장국 부국장 국제국장 등을 지냈다.***

뉴저지의 성악가 박미용(음대 83) 동문

아이소리모아 합창단 NJ 지부 담당



AWCA 아이소리모아 합창단이 뉴욕 웨체스터 지부 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로 창단 5년째인 아이소리모아 합창단은 9월부터 뉴저지와 웨체스터 등 두 지역에서 각

각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뉴욕 웨체스터 지부 합창단은 아이소리모아 합창단을 창단한 정인영 지휘자가 맡았으며 기존의 뉴저지는 성악가 박미용(음대 83·사진)동문이 맡았다.

박미용 동문은 모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전문 성악인이다.

아이소리모아 합창단은 6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래동요와 복음성가 등 다양한 곡들을 배우고 연주한다.

아이소리모아 합창단은 10월 9일부터 오후 4-6시에 발성 및 합창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201-862-1665 ***

황성주(의대 77) 박사 암·면역 캘리포니아 세미나

“면역체계 강화하면 암 예방 가능”

생식 업체로 출발 ‘이름’ 종합식품기업으로 키워

“암에 걸리는 것은 면역력이 약화된 게 가장 큰 이유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면 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식 전문업체에서 출발해 종합식품기업으로 발돋움한 ‘이름’의 창립자 황성주(의대 77·사진) 박사가 캘리포니아 OC에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전했다. 지난 9월 10일 부에나파크의 할러데이 인에서 열린 ‘생식 암·면역 세미나’에서 황 박사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황 박사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 생활태도 스트레스 등이 암을 불러오고 있다”며 “자연식품을 통해 몸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누구나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대부분 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나쁜 음식 스트레스

등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증식되고 결국 암이 발병하게 된다는 것이다.

황 박사는 “런던 암 병원에 입원한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 가운데 62%가 암 발생 전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연구 결과를 나오기도 했다”며 “현대인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적절히 털어내는 것이다. 상한 감정과 숨겨진 분노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연식품을 통해 몸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자연면역요법인 미술토요법을 통해 암 환자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한다. 황 박사는 미술토요법을 최초로 한국에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식이요법으로 개발한 것이 이름생식이다.

이어 “생식만 섭취하기 힘들면 식사를 할 때 같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같이 먹으면 다이어



트에도 효과가 있고 음식의 나쁜 성분을 제거해준다”며 “생식은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자연식품이다. 질병 몸 상태에 따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생식이 개발돼 있다. 많은 한인들이 생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황성주 박사는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리텐바일러 암 전문 병원에서 치료 의학을 공부했다. 현재 암 전문병원인 사랑의 병원 원장(주), 이름 생명과학연구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꿈이 있는 교회 목회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의과대 미주 동창회보 이원택(의대 65) 편집위원장

‘Meta Writing’ 출간 출판기념회



정신과 전문의로 재미 수필가이며 의과대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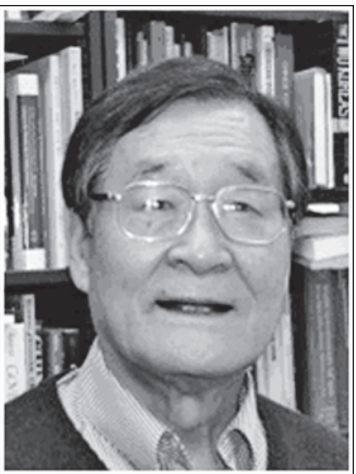
(의대 65) 동문이 신간 ‘Meta Writing’을 출간하고 10월 11일 LA ‘작가의 집’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한국의 문학도를 위해 쓴 미래 지향적 글쓰기 지침서로 폭넓은 인문학에 기초를 두고 남다른 관찰과 심층 분석을 통해 글쓰기의 본질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교양서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글쓰기에 관한 know how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포괄적 백과사전”이라고도 풀이하고 있다.

신국판 429쪽으로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이 간행했다. ***

W.Virginia대 김홍락 교수 ‘학교장’



47년간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7월 7일 80세를 일기로 별세한 김홍락(정치 52·사진) 교수의 장례식이 지난 7월 15일 학교장으로 치러졌다.

이날 엘리자베스 무어 홀에서 열린 장례식은 김홍락 교수의 부인과 제프 김 등 유족들, 학교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엄수됐다.

대구에서 출생한 김 교수는 모교 서울대를 나와 조지타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67년부터 웨스트 버지니아대에서 비교 정치학, 동아시아 정부, 비교 공공 정책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학 등을 가르쳐 왔다.

김 교수는 지난 1985년 에벌리 인문과학대 우수 교수상을 받았고 1권의 저서와 6권의 공동 저서 등을 펴냈으며 동북아 연구 저널 등에 100여편의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또 2004-05년 워싱턴 DC의 국제한국학회 대표를 지냈고 하와이 동서센터에서 POSCO 펠로우를 지냈다.

이 대학의 켄 해머스미스 역사학과 교수는 “김 교수는 학자이자, 스승, 동료이자 친구였다”며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그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마음을 열어주는 선구자였다”고 추도사를 통해 전했다. ***



남가주 미대 동창회 홍선애(미대 62) 전 회장

남가주 COEX에서 작품 전시회

남가주 미대 동창회 홍선애(미대 62) 전 회장이 진나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남가주 서울 COEX 1층, Hall A & B에서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홍선애 전 회장이 평소 추구해 오고 있는 것은 광활한 우주 세계다. 따라서 홍 전 회장의 작품 속에서도 특히 우주 세계와 그 에너지가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번 작품 전시회에 대해서 홍 전 회장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술회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내가 전시했던 모든 작품들을 ‘우주의 꿈(Cosmic Dream)’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세계를 초월한 영적 영역에 속한 무한한 우주의 의미가 보여주는 이미지(영상)가 나를 매혹해 왔습니다. 언뜻 보기에 내 작품들은 단순한 추상화로 보일지 모르나 실은 이들이 ‘우주의 형성(Cosmic Formation)’을

←남가주 미대 동창회 홍선애 전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전시회장에서 동문들과 같이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표현한 것입니다. 작품들은 천상의 속한 물체들의 운행과 그들의 색채를 표현한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체의 형식이 혼돈과 질서의 상호 모순됨을 상징하는 표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감정과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나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열정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제 전시회의 모든 제목을 ‘우주의 꿈’으로 지었습니다. 저는 광대한 우주의 이미지, 하늘과의 의미에 끌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리적 세계를 넘어 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제 작품은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들은 우주 형성의 표현입니다. 캔버스에 천체의 움직임과 색상을 상징하고 혼돈과 질서 모두의 opposition 상태에서 나타난 제 자신의 천상의 패턴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감정과 감정을 캔버스에 표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계속 작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

테너 신동원(음대 93) 동문 필라델피아 독창회

“필라델피아는 제2의 고향이죠”

현재 최고의 테너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신동원(음대 93) 동문이 지난 8월 30일 필라델피아 한국일보 3주년 기념 콘서트에 초청돼 공연을 가졌다.

신 동문은 모교 성악과 졸업 후 인디애나대 음대를 거쳐 필라델피아 The Academy of Vocal Arts를 졸업했다. 신 동문은 2001년부터 필라델피아와 사랑에 빠졌다. 영화 ‘록키’의 팬인 신동원은 “필라델피아 도착순간 제가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남은 인생을 필라델피아에서 지내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인생에 아름다웠던 순간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들이 모두 필라델피아에서 펼쳐졌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제2의 고향이죠”라고 전했다.

“프로 일수록 피아니스트와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교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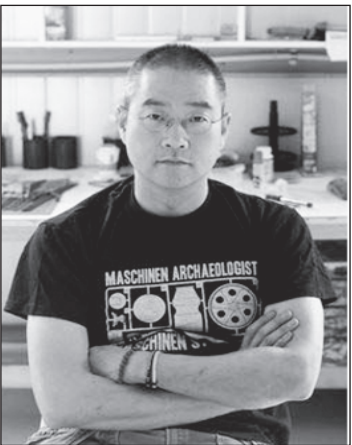
“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은 관객과의 교감”이라는 신동원은 “관객들이 음악을 진정 즐겼으면 좋겠다. 이번 공연으로 관객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전했다.

신 동문은 이번 공연에서 성악적 기량이 마음껏 발휘된 ‘Non ti scordar di me (E.Curtis 날 잊지 말아주요)’, Cardillo: Core'ngrato (카르딜로: 무정한 마음)’ 등 전 세계 오페라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곡들로 꾸며졌다. 뿐만 아니라 심희진 소프라노가 찬조 출연해 Nessun dorma(공주는 잠 못이루고)- G. Puccini Turandot 등도 함께 선사했다.***

설치 예술가 서도호(미대 81) 동문 개인전

뉴욕의 두군데서 전시회 가져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맞아 서도호(미대 81 사진) 동문이 뉴욕의 Asia Society(725 Park Ave.)와 Lehmann Maupin Gallery(201 크리스티 St. 540 West 26 St.) 두 군데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설치 미술로 잘 알려져 있는 서도호 동문의 이번 전시의 제목은 ‘드로잉’이다.

서 작가만의 독특한 ‘실’ 드로잉 등을 비롯한 작품들이 공개됐다.

서울에서 태어난 서 작가는 모교 미대 동양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난 1991년 미국으로 건너와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RISD)에서 공부했다. 이어 예일대에서는 조각을 배웠다.

전시 시작은 지난 9월 11일 시작돼 10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서 작가는 오프닝인 9월 11일 오후 6시 전시장을 찾아 관람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www.lehmannmaupin.com ***



김민지(의류 87) 한국 복식연구가 강의에 카멜 주민들
“Beautiful, Wonderful Hanbok!”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카멜 지역 주민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다.
지난 9월 9일 카멜 카사 피에스타 회관에서 열린 김민지(의류학과 87) 한국 복식 연구가의 초청 강의를 통해서다.

이날 우리 한인 동포들 외에도 80여 명의 타민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연구가는 한복과 서양 스타일, 일본 기모노와의 차이점, 한복 제작 과정 등을 설명, 한복의 미와 그 우수성을 알렸다.

강정식(외교 81) 외교부 국제 법률국장
신임 캐나다 토론토 총영사 부임

강정식(외교 81 사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신임 토론토 총영사로 최근 부임했다.
강정식 총영사는 모교 의외학과 졸업 후 영국 켄브리지대 국제정치학 석사를 거쳐 87년 외시 21 회로 외교부에 입부, 주시카고 영사, 주 인도네시아 2등서기관, 주 유엔 1등서기관을 거쳐 2003년 대통령 비서실, 문화협력-안보정책 과장을 역임했다. 2006년 6월 주 밴쿠버 영사를 지내 캐나다 근무가 처음은 아니다. 토론토 부임직전까지 외교부 국제법



률국장으로 일했다.***

소프라노 서예리(음대 96) 동문 마침내 고국 무대
서울 LG아트 센터에서 공연

소프라노 서예리(음대 96) 동문이 지난 10월 3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바로크 & 현대’로 고국 팬들에게 단독 공연으로 처음 인사했다.
독일 미디어에서 ‘1000년을 아우르는 소프라노’로 극찬 받은 서 동문은 맑은 음색, 정확한 음정, 또렷한 발음, 학구적인 해석으로 주목 받고 있다.
모교 성악과 졸업후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재학 중 베를린 방송 합창단(RIAS Kammerchor) 단원으로 사이먼 래틀,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켄트 나가노 등 세계적인 거장과 작업했다.
지휘자 르네 야콥스와 마스터클래스를 계기로 2003년 인스부르크 고음악 페스티벌에서 그가 지휘하는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오르페오’의 ‘넌파’역을 맡아 솔로 데뷔했다.
이후 필립 헤레베헤, 지기스발트 카위켄, 마사아키 스즈키, 안드레아스 슈페링 등 바로크 거장들과 작업했다. 동시에 진은숙, 피에르 볼레즈, 볼프강 림 등 현대 작곡가들의 러브콜도 받았다.



올해에는 필립 헤레베헤가 지휘하는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및 콜레기움 보칼레 켄트와 하이든의 '천지창조'을 협연하며 유럽투어를 했다. LA 월드 디즈니홀에서 LA필하모닉과 해리스 버트위슬의 성악곡을 협연하기도 했다.
2010년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와 바흐의 소프라노를 위한 칸타타로 바로크, 2012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아르스 노바’에서는 경찰모에 채찍까지 들고 나와 통쾌한 현대음악을 선보였다.***

←지난 9월 9일 북가주의 카멜 카사 피에스타 회관에서 열린 한복 특별 강연에서 김민지 한국 복식 연구가가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혼례용 한복의 의미와 착용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한복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상과 섬세한 바느질 기법 등에 찬사를 보내며 “뷰티풀, 원더풀”을 연발했다.
한 미국인 참석자는 “더운 여름 날씨에 혼례를 치를 경우, 여러 벌의 옷을 겹겹이 입어야 하는 신랑 신부는 무척이나 힘들었겠다”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민지 한국 복식사 연구가는 모교 서울대 의류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2000년 역시 모교 의류학과에서 발해복식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아트 뮤지엄(AAM) 등지에서 한국 복식의 아름다움과 이면에 담긴 스토리 등을 주류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글·사진= 김종식 몬트레이 한인회 사무총장>

FIT 미술사학과 변경희 교수

첫 개설된 한국미술사 강의 맡아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FIT)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미술사 강의를 개설했다.
이 강의를 진행할 주인공은 변경희(사진) FIT 미술사학과 교수다. 수업은 지난 8월 26일 시작했으며 한 학기 동안 이어진다.
변경희 교수는 “근현대 미술사 흐름에 동참한 뛰어난 한국 작가들의 창의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싶어 이 수업을 개설했다”며 “최근 10년 사이 한국미술과 관

련된 자료도 많이 생겨 강의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강의 개설이) 더욱 시기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변 교수에 따르면 수업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경우 앞으로 인터넷 강의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FIT의 스캇 스토다드 인문대학 학장은 “이번 강좌는 다양한 문화 환경에서 온 우리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패션.문화계 리더를 키워가는 우리 학교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드로긴 미술사학과 학과장 또한 “동양미술사 수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 미술을 자세히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변 교수는 뉴욕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 해부터 FIT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NY Times 아트섹션 커버스토리로 진은숙 동문 인터뷰

“진은숙은 틀을 벗어난 작곡가!”

최근 세계 곳곳서 그의 음악 연주하는 무대 이어져
뉴욕 타임스가 세계적인 작곡가로 명성이 높은 진은숙(음대 81) 동문을 집중 조명했다.
신문은 9월 23일자 아트 섹션 커버스토리로 진 동문 인터뷰 기사를 다뤘다. 신문은 진 동문을 ‘틀을 벗어난 작곡가’라고 평하며 그의 음악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풀어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진씨의 음

악을 연주하는 무대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뉴욕 필하모닉의 시즌 첫 무대에서 초연된 진씨의 클라리넷 협주곡 공연을 비롯해 내년 2월에는 LA 필하모닉이 연주하게 될 진씨 오페라 ‘앨리스 인 원더랜드’가 있다. 이 오페라는 추후 런던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신문은 진 동문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 속에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진 동문은 뉴욕 타임스와 인터

←진은숙 동문을 소개한 뉴욕타임스 9월 23일자 신문.

뷰에서 “동료 중국인 작곡가들이 서양과 동양적인 요소를 결합해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그렇게 작업하면 성공하기가 너무 쉬운 경우를 많이 봤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진 동문의 음악에는 본인만의 특색이 살아 있다.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며 드라마틱하다.
뉴욕필 음악감독인 알란 길버트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씨 음악엔) 높은 수준의 장인 정신과 상상을 초월하는 명확성이 있다”며 “자신만의 또렷한 음악적 스타일이 있는 것 또한 특징적”이라고 말했다.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난 진 동문은 모교 음대를 졸업, 85년 독일 함부르크로 이주하면서 쇠르지 리게티의 지도 아래 작곡을 공부했다. 리게티는 20세기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작곡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진 동문은 문화비평가 진중권 교수의 누나이기도 하다.
뉴욕필과 함께하는 진 동문의 클라리넷 협주곡 공연은 26·30일에도 이어졌다.***

CA Trinity 대학 동문 앤서니 최 학과장

PGA Class A Golf교실 진행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 중 싱글에 근접하는 사람들은 실력에 걸맞는 이론을 갖추고 싶어하고 나아가 티칭 프로에 한번 도전해볼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스럽다. LA의 미주 중앙일보 중앙교육문화센터는 California Trinity 대학(CTU)과 제휴해 실력을 갖춘 아마추어나 프로골퍼 지망생을 위한 'PGA 클래스 A 골프교실'을 개설했다.
강사로는 서울대 체육학 박사이자 CTU 스포츠매니지먼트 앤서니 최 학과장이 PGA 클래스 A 전 익한 프로와 같이 강의한다.
▶이론통한 실력 향상 = 'PGA 클래스 A 골프교실'은 두 강사의 현장레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 교실이다. 골프역사, 심리, 스윙매케닉, 골프 룰 등 4개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 핵심은 이론을 통해 실천실력 향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경기 중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심리

적 문제점과 스윙 개선방법을 제시한다. 골프 룰 강좌는 골퍼가 꼭 알아야 할 룰에 대해 사례별 예를 들어 강의한다. 아마추어 골퍼 뿐 아니라 프로골퍼 지망생들에게 유익한 강좌로 PGA 클래스 A가 되기 위한 초급 PGM (Professional golf Management) 입문과정이다.
▶PGA 클래스 A = 미 PGA 티칭 프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CTU등 전문기관에 개설돼 있는 PGM 학위과정을 이수해야하며 PAT(Playing Ability Test)라는 실기 테스트도 통과해야 한다.
▶강의 = 9월 30일(화)부터 개강된 이번 강좌는 주 1회, 총 8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 DC 동창회

우래옥에서 2014 제 1차 이사회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장경태·사대 75)가 지난 9월 13(토)일 버지니아의 우래옥에서 2014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34대 회장 및 신입 임원소개가 있었으며 2명의 감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어 2014~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인준, 동창회 회칙 개정안, 윤경의(공대 57) 장학기금위원장의 기금설명 등이 있었다.

회칙 개정안에서는 제5조 회원의 자격에서 회원 자격으로 기존 'Washington DC, Maryland, Virginia주에 거주하는 동창'에서 'West Virginia에 거주하는 동창'을 추가했다. 이는 West Virgini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오인환(문리 63) 미주 동창회장은 워싱턴 지역 동창회원에 대한 경조비 지출 예규(초안)을 작성해 발표했다(오른쪽 아래 별첨 참조). 총 9조로 되어 있는 이 예규에는 동문 각 경조사에 대한 제반 사항과 화환, 조화, 조기 및 경축 깃발을 제작해 이에 대한 사용 등에 관한 내규가

포함돼 있다.

장경태 회장은 이 외에도 앞으로 추가 추진 사업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교실, 불우 이웃돕기 행사 참여 등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친교를 위해 골프, 주말 등산, 라인댄스, Wine Tasting 방안 등이 제의됐다. 이 밖에도 네트워크로 사랑방 운영, 아크로폴리스 활용, 월간 뉴스레터, 웹사이트 운영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최중경(경제 75) 지식경제부 전 장관이 초대돼 '한국의 발전을 위한 재미 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이뤄졌다. 워싱턴 DC동창회의 제34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 장경태 ▶수석 부회장(미정) ▶부회장 = 정종갑(경영 75) ▶부회장 = 노상문(인문 82) ▶회계 = 한정희(미대 81) ▶총무 공영기획 = 신원석(의대 82) ▶홍보 = 이우진(농대 86) ▶부총무아크로폴리스 = 강민구(농대 96) ▶미디어(미정) ▶송년기획 = 이헬렌(수학 54) ▶골프회 = 정세근(자연 82) ▶장학기금위원장 = 윤경의(공대 57)***



↑ 위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윤경의 장학위원장이 장학기금 현황 설명 중이다. 새로 감사에 선임된 공순옥(간호 66) 동문, 안선미(농대 65)동문, 아래 사진 왼쪽부터 장경태(사대 75)회장, 정종갑(경영 75) 부회장, 노상문(인문 82)부회장, 정세근(자연 82)골프회장, 한정희(미대 81)회계, 신원석(의대 82)총무.

워싱턴 DC 동창회 하반기 남은 행사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장경태 사대 75)에서는 2014년 올 하반기 남은 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동문과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송년잔치>

- ▶일시 = 2014년 12월 30일(화) 오후 5시 30분
- ▶장소 = The Westin Tysons Corner,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전화 (703) 893-1340
- ▶참가비 = 1인 \$100, 부부 \$180, 학생 1인당 \$60
- ▶기타 = 복장은 정장입니다. 베이비시터 준비됩니다.



<정기총회>

- ▶일시 = 2014년 12월 30일(화) 오후 6시
- ▶안건
 1. 회칙 개정(세부사항 별도 공고)
-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한다.

- 본회 회원 자격에 West Virginia 주 거주자 추가.
- 2. 경조사 지출 예규(세부사항 별도 공고)

<장학생 모집>

-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 2014년 10월 1일에서 11월 1일로 연장합니다.
- ▶명단발표 = 선발된 장학생 명단은 12월 30일 송년잔치 때 발표합니다.
-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DC 동창회 홈페이지 (<http://snuwashington.org/>) 동창회 소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전 장관이 '한국의 발전을 위한 재미 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최 전 장관은 1979년 2월 모교 경영대학을 졸업한 뒤 5월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 전 장관의 이날 강연 내용은 11월호에 자세히 게재할 계획이다.***



필라델피아 동창회

총회개최 제28대 전방남 회장 취임

필라델피아 동창회가 지난 9월 6일 오후 블루벨에 위치한 남산 레스토랑에서 총회를 열고 신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약 60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에서 제27대 한중희(공대 80) 회장의 뒤를 이어 제28대 전방남(상대 73, 트랙셀대 경제학과 교수) 박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전방남 신임 회장은 이미 그동안 동문회 부회장으로도 봉사해 온 바 있는데 올해는 회장으로 추대된 것이다. 전방남 회장은 상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인디애나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트랙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봉사해 줄 임원들도 선출됐는데 ▶수석부회장 = 유영진(경영대 85, 템플대 교수) ▶부회장 = 김상돈(공대 77, 보험업) ▶부회장 = 서원혁(자연대 94, 템플대 조교수) 등이다.

전방남 회장은 취임사에서 “올해에는 특히 동문들간 세대의 간

격을 줄이고 동문들간의 소통을 증진하며, 모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28대 회장단의 2014년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으로는 한글날이 있는 10월 19일에 ‘세종이랴면...’의 저자 박현모 박사(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 연구소 소장, 한국형 리더십 개발원 대표)의 ‘세종 리더십’ 특강, 가을 골프대회(10월), 그리고 정기총회와 연말 파티 (12월 6일)가 계획돼 있다.

내년에는 미주 동창회 평의회 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며, 그 외에도 춘계 골프대회와 특별강연, 필라델피아 지역 동창회보 발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도 뉴저지 중남부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어진 특강시간에는 김중수(상대 66) 한국은행 전 총재가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과 처방, 여러 가지의 해결 노력, 그리고 한



↑전방남 회장(가운데)이 신임 부회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손재옥(가정대 77) 미주 동창회 차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한중희(공대 80)전 회장이 감사패를 받고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이다.

국의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어 이를 경청한 뒤 열띤 토론을 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글 = 유영진(경영대 85) 수석부회장, 사진 = 진근우(공대 99)>



↓이날 특강을 해준 한국은행 김중수 전 총재(왼쪽)에게 전방남 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중수 전 총재는 9월부터 Univ. of Pennsylvania 방문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는 9월 6일 총회를 하기 전인 8월 31일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임원회의에서 수석 부회장은 동창회를 위한 학술, 홍보, IT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부회장 1명은 동창회원 관리와 소통 및 총무역할을 담당을 하며 또다른 부회장 1명은 재정과 회계를 맡아서 담당하도록 결의했다.





남가주 음대 동창회 정기 연주회

↑ 왼쪽 사진 왼쪽으로부터 박영희 동문회장, Mrs. 권길상, Pianist 정낙영(52) 동문, 작곡가 권길상(46) 동문. 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최경은·오재경·김양희·라일라 양 동문이 연주에 열중하고 있다.

콜벤스쿨 지퍼홀에서 개최

남가주 음악대학 동창회(회장 박영희)가 자선 음악회를 겸한 ‘2014년도 정기 연주회’를 지난 9월 6일 오후 7시 반경부터 콜벤스쿨 지퍼 홀에서 개최했다. 음대 동창회는 행사 전부터

“세대 아우르는 자선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52학번부터 2004학번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동문 연주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음악회입니다”를 기치로 내걸고 캠페인을 벌여 많은 동문 가족들

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박영희 회장은 “이번 음대 정기 연주회에서는 정상급의 음대 동문들로 구성된 첼로 쿼텟, 오보에 트리오, 듀오 피아노 등 앙상블 연주와 솔로, 국악 합주로 음

악적, 시각적인 다양성을 선사한 것이 큰 특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국악합주 ‘천년만세’ 중 시작 계면과 ‘양청도드리’가 오프닝을 장식하고 피아니스트 듀오 정나경·박초현 동문

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7곡과 아리아 1곡을 연주해 많은 갈채를 받았다. 유혜연, 손미래, 박영지 동문으로 구성된 오보에 트리오 연주, 피아니스트 이승현, 줄리아드 음대 출신 바이얼리니스트 박민정 동문이 루셀 베넷의 ‘헝가리 3번’, 알프레도 담브로시오의 ‘칸초네타’, 생상의 ‘바이얼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75번’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이서희 법대 70)가 협찬한 이번 연주회는 지난 해에 이어 2년째 가정상담기관인 ABC 상담대학 교육원(대표 여명미)을 돕는 자선음악회로 열려 수익금의 일부가 한인 가정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을 위해 쓰이게 된다. 박 회장은 “행사 전부터 광고 후원을 통해 많은 동문들이 기부를 아끼지 않고 있다. 동포 한인 커뮤니티가 성숙해져 문화활동을 후원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음악도 감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는 일에도 적극 동참해주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글·사진 = 백옥자(음대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남가주 동창회 산악반 그랜드 티톤 산행

남가주 동창회 산악반(반장 김동근·공대 60)이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 산행을 실시했다. 이 행사에서는 총 16명이 참가했는데 다소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 그랜드 티톤 정상에 거쳐서 무사히 등반 산행을 마쳤다. 남가주 동창회의 동문 산악회는 매월 첫 토요일 별로 어렵지 않은 코스의 일정으로 산행을 실시하고 있다. 모임의 참가 멤버는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서 서울대를 졸업했거나, 입학했거나, 가고 싶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모두 환영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면서 푸른 숲의 에너지를 마시고 돌아오는 발걸음엔 삶의 기운이 넘쳐난다고 한다.***

남가주 김진형(문리대 55)박사 광장 현판식

‘Dr. Gene Kim Square’ 탄생 하기환 박사 이어 동문으로 두번째

캘리포니아 Los Angeles 시내에 동문 김진형(문리대 55) 한인 축제재단 명예 대회장) 박사의 이름을 딴 광장이 설치됐다.

Los Angeles시 의회는 지난 해인 2013년 11월 20일 Olympic Blvd and Vermont Ave.교차점을 ‘Dr. Gene Kim Square’ 로 명명한 바 있다. LA시 의회는 이에 대한 현판식을 올해인 지난 9월 18일 오전 10시 The LA. Korean Festival Foundation 과 The Korean American Commissioners Association 의 후원으로 거행한 것이다.

이날 113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에 있는 Olympic Community Police Station에서 100여명의 축하객이 모인 가운데 President, LA. City Council Herb J. Wesson, Jr.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말을 해주었다.

“Dr. Gene Kim is considered by many as the founder of ‘Koreatown’ which laid its first foundation along Olympic Blvd. between Vermont Ave. and Western Ave. in 1972, and is also the founder of the ‘Koreatown Festival and Parade’ in 1974. Additionally, Dr. Kim has been served as a L.A. County Commissioner of Aging for 18 years and the L.A.P.D. Permit Review Panel’s Commissioner for 13 Years. I extend my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and memorable event!”

“김진형 박사는 LA.한인축제를 창시했으며 Korea Town을 세우는 데 앞장선 분으로 LA.시와 한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을 이 교차로를 지날 적마다 기억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Yvonne B. Burke Attorney at Law의 축사(Your Leadership in the 1nd District of L.A. county created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people of all races and ethnicities. I deeply appreciate your support of the L.A. county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와 김현명 LA. 총영사의 축사가 있었다.

김 총영사는 “김진형 박사의 열정과 불굴의 개척정신은 모든 이민자의 표상” 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김진형 박사의 족적은 후손들의 뿌리와 미래 삶의 이정표가 될 것” 이라 했고, 함기선 한국한서대학교 총장은 “김진형 박사는 젊은이들의 거울” 이라고 했으며 박효우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은 “LA. 한인커뮤니티의 초석” 이라고 감사해 했다.

남가주 동창회 이서희(법대 70)회장은 ” Dr. Gene Kim Square는 코리아 타운의 원동력입니다. Ken Cha President of Korean American Commissioners Asso. 은 김 박사님을 빼놓고 코리아 타운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형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전했다.

“1968년 미국의 꿈을 안고 LA에

정착한 저는 당시 차이나 타운과 일본 타운을 돌아보고 우리 한인 동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급선무가 코리아 타운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 섰습니다. 이런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 LA. 시 정부와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머리 숙여 전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민족이 어울려 다양성을 살려나가는 미국사회 발전에 계속 기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Herb J. Wesson, Jr. LA. 시 의장과 Mitch O’ Farrell 제13지구 시 의원이 공동 발의해 시 의회를 통과하도록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김진형 박사의 ‘Dr. Gene Kim Square’ 표지판은 한인축제 퍼레이드 40주년을 맞는 올해 업적을 기리며 세워졌고, 동문인 하기환(공대 66) 한인회 전 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이 지역에서 우리 서울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명명으로 김진형 박사는 도산 안창호 교차로를 시작으로 세미 리 박사와 하기환(공대 66) 박사, 장성균 전 사회연합 회장에 이어 LA시 내 한인이름을 딴 광장의 다섯번째 주인공이 됐다.

김진형 박사 프로필과 활동
▶1933년 9월 29일 평양 출생 ▶용산고등학교 졸업 ▶1962년 서울대 문리대 불문과 졸업 ▶국제관광공사 총재 비서 ▶1968년 미국 유학 ▶Pepperdine대 대학원 종교학과 석사 및 명예 행정학 박사 ▶1971년 한국서적센터 경영 ▶코리아 타운 번영회 단체조직 한글 간판 달기 운동 ▶캘리포니아 주립대(CSULA) 이중언어 교실 호바트 초등학교에서 동포 영어교육 실시 ▶올림픽가의 한국종합의료원내 한인 의사 진료소 유치 ▶1972년 코리아 타운 번영회 주최로 김진형 박사 리더십 발취 ▶1974년 ‘한국의 날’ 축제 퍼레이드 성공 ▶한국의 날 개정 LA시 인준 ▶Koreatown Specific Plan 계획서 LA시 의회에 제출, 만장일치로 주거 지역을 상가 지역으로 용도 변경 성공 ▶LAPD 역사상 최초의 파출소를 코리아 타운에 설치 ▶산타모니카 고속도로 한인타운 출입구에 Koreatown 표지판 부착 성공 ▶미 하원 머빈다일팔리 의원 발의로 국회 하원 의사록(Congressional Record)에 공덕 등재 ▶미 하원 제31지구 아시아인 담당 커미셔너로 7년 봉사 ▶노인복지 담당 커미셔너로 18년 봉사 ▶한서대학교 명예 행정학 박사 ▶LAPD 본부에서 1972년부터 40년 동안 한인사회의 지도자로 헌신한 공을 기리기 위한 ‘Dr. Gene Kim Square’ 현판서명, 2013년 8월 21일 발의해 2013년 10월 18일 통과.***

<글·사진 = 백옥자(음대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남가주 LA.시와 LAPD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개치한 뒤 김진형(가운데)박사를 중심으로 기념촬영한 것이 다(윗 사진). 남가주 동창회(회장 이서희 법대 70)가 이날 용궁 레스토랑에서 김진형 박사에 대한 만찬을 베풀고 화환 등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박양중(문리대 61) 동문, 김진형 박사, 김창신(사회과학대 75) 남가주 동창회 총무국장, 백옥자(음대 71)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Dr. Kee Whan Ha Square

LA 한인타운 내에 동포 이름을 딴 광장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해인 2013년 12월 16일 Wilshire Blvd와 Vermont Ave. 교차로에 대해 하기환(공대 66) 박사(전 LA 한인회장)의 이름을 따서 ‘Dr. Kee Whan Ha Square’ 로 명명하고 현판식을 가진 바 있다.

또 동문은 아니지만 장성균 전 LA 사회연합회장의 이름을 따서 8가와 Western Ave. 교차로를 ‘Sung Kyun Chang Square’ 로 명명해 역시 기념식을 갖고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기환 박사 스퀘어는 허브 웨슨 시 의장과 탐 라본지, 미치 오패럴 시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장성균 스퀘어는 웨슨 시 의장과 미첼 잉글랜드, 오패럴 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0년에는 올림픽과 노르만디 교차로가 미국 한인 올림픽 다이빙 금메달리스트 ‘새미 리 박사 스퀘어’ 로 명명된 바 있다.

현재 한남체인 회장인 하기환 박사는 모교 공대 전기공학과를

↑지난 2013년 12월 16일 남가주 LA.시와 LAPD 관계자들이 ‘Dr. Kee Whan Ha Square’ 현판식후 기념 현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미치 오패럴 13지구 시 의원, 길 세디요 1지구 시 의원, 탐 라본지 4지구 시 의원, 하기환 박사, 신연성 LA 총영사, 허브 웨슨 LA시 의장, 하 박사 부인 하경희 씨, 티나 니에토 올림픽 경찰서장, LA시 소방국 에밀 맥 부국장.

거쳐 위스콘신대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UCLA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LA 한인회장과 노인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미 사회에 크게 봉사한 결과를 인정받았다.***



휴스턴 상대 동창회

Ocean Palace식당에서 가족모임

휴스턴 동창회 산하 상과대학 동창회(회장 진기주·상대 60)가 지난 8월 22일 저녁 휴스턴시 Bellaire Boulevard에 위치한 Ocean Palace Restaurant에서 가족모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에서 휴스턴으로 전근해 온 필자(최재현 상대 96)를 환영해주기 위해 진기주 회장께서 손수 마련해주신 자리였다.

그런데 상대 동창회 회원 6명과 그 가족 등 총 22명이 모여 오랜만에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되었다는 평을 들었다.

진기주 회장의 필자에 대한 환

영 인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동문들의 근황과 가족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되었는데, 레스토랑에 준비된 고급 와인이 모두 동이 나셔야 아쉽게 끝이 났다.

휴스턴 상대 동창회는 일년에 2-3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는데 이번 행사에는 회원 가족이 전원 참가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글·사진 최재현(상대 96입)>



↑진기주 회장께서 필자에 대한 환영 만찬을 베풀어주셨다. 왼쪽부터 필자 최재현(96, 사진이 잘못 촬영돼 모습이 잘렸음)·박흥권(87)·박연중(81) 동문, 진기주 회장(60), 구자동(77)·김용호(90) 동문.



뉴잉글랜드 동창회

Ogunquit Beach 가을 바다여행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장수인·음대 76)가 지난 9월 20일(토) Maine의 Ogunquit beach에서 가을바다 구경을 위한 모

임을 가졌다.

55학번인 김인수 원로동문(사대)부터 03학번인 새내기 민소윤 동문(공대)까지 세대를 초월한

20여 명의 동문들이 함께 어울려 참여했다.

동문들은 이날 Maine 주에 있는 Ogunquit beach를 산책하고, ocean view를 즐길 수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며 웃음꽃 피는 학창 시절로 돌아가 동문애를 다졌고 새롭게 모임에 참여한 동문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 모임에 나온 변상균 동문(공대 00)과 장백규(법대 78) 동문, 민소윤 동문을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수인 회장은 “참석한 동문들이 앞서거나 뒤처거나 긴 얘기를 나누며 상쾌하고 편안한, 그리고 여유있는 시간을 가진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가을바다 여행에 동참한 동문들이 Ogunquit Beach에서 함께 추억을 남겼다.

이날 모임은 현장까지의 자동차 여행 편의를 위해 동문들이 카풀을 시행해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와 Alewife Station, 또는 Andover에서 오전 8시 경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미리 조율함으로써 동문들에게 큰 편의도 제공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10월 11일(토)에 Concord의 North Bridge에서 동문 피크닉 행사도 실시했다.***

<글·사진 = 이재형(공대 91) 기획국장>



워싱턴 주 동창회

Grasslawn Park에서 야유회

워싱턴주 동창회(회장 이원섭 농대 77)가 지난 8월 9일(토) Redmond의 Grasslawn Park에서 동문 야유회를 가졌다.

올해는 참석자가 유난히도 많아서, 50여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석하였다.

피크닉 장소로 레드먼드 시립 공원 Grasslawn park를 올해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수려한 모양의 현대적인 건물 시설도 좋았고, 전기 시설도 있는 데다가 따뜻한 물도 나왔다. 화장실도 바로 옆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주립공원과 달리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기에 모든 분들이 만족하였으며, 앞으로도 여기를 이용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멀리 고국에서 잠깐 시애틀을 방문한 허진규 동문(한국 회사

‘일진’ 회장, 1963년 졸업)께서 김인배(수의대 59) 동문 초청으로 오셨고, 이회백(의대 55) 동문께서는, 멀리 워싱턴 DC에서 온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대동하여 대가족의 행복한 하루를 보여주셨다.

음식은, 대규모 호텔 피로연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종류에 맞춘 음식들을 준비해 푸짐했는데 음식들을 보니, 모든 접시가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은 대단한 요리의 경연장이었다. 또한, 이원섭(농대 77) 회장, 하주홍(경영대 77), 필자(임헌민 공대 84), 유성열(공대 72), 이정관(농대 83) 동문 등이 분담해서 물품을 준비해 온 덕분에, 음료수와 식사가 매끄럽게 되었다.

이번에는 city park의 규정상, 술은 안된다고 하여 wine등 알콜



↑ 동문과 가족들이 무리가 들어 있는 풍선 게임을 하고 있다. 잘못 던지거나 잘못 받으면 시원한 물을 가득 뒤집어 쓰게 돼 있는데 날씨가 약간 더웠던 탓에 물을 뒤집어쓰고도 오히려 시원해 했다.

음료는 일절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

올해도 풍치 구이를 준비하였고, 굽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기 때문에, 음식을 다 들고 난 후에 풍치가 준비되어, 차라리 디저트

로 풍치를 내놓는 지경이었는데도 여전히 인기가 많아서, 반죽도 없이 모두들 한 마리씩 하고 과일도 드는 풍경이 연출됐다.

식사후 간단하게 총회를 개최했는데 새로 온 분, 떠나신 분 소개와 이종성(의대 58) 동문께서는 한성학(의대 58) 동문 장례에 배에 우리 동문회에서 준비한 ‘조기’를 걸어드려 가족들께서도 좋아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를 소개해주었다.

특히 올해는 새로이 만든 주소록을 참석 동문들 모두에게 나누어 드렸다.

필자는 이날 jade tree라고도 하고 money tree라고도 하는 화초를 나누어 드렸다. 이것은 원래는 박진수(의대 56) 동문께서 주신 화초인데, 여기에서 떨어진 줄기 가지들을 하나씩 화분에 모아 다시 심어 물을 주며 3개월 키운 것들로 가정에 행복이 깃든다는 꽃말을 가진 화초다.

여흥시간의 첫 게임은 물 풍선 던지기였다. 날씨가 화창하고 더운 편이라 터지는 풍선에 옷이 젖는 것도 마다 않고 즐겁게 게임을 하였고, 두번째 게임으로는 이번에 새로 개발한 지렁이 먹기 게임이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이 게임은 ‘거미 배어 지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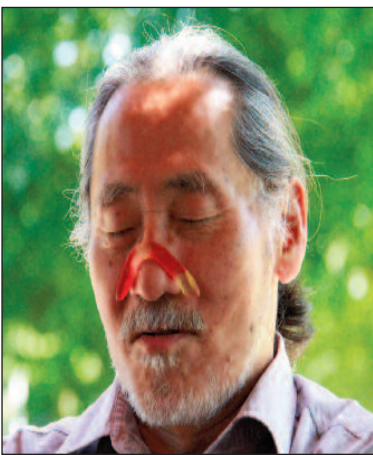
←지렁이 과자 먹기 게임은 이날 최고 히트 아이디어 게임이 됐다. 참가 동문들의 다양한 얼굴 표정이 압권으로 인기 만점이었다.

라는 과자를 하나씩 이마에 얹어 놓고, 손을 대지 않고 3분 안에 얼굴 근육으로만 내려뜨려 먹어야 하는 게임으로 참가자나, 그것을 구경하는 분이나, 모두 폭소를 참지 못하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혀를 아무리 내밀어도, 얼굴을 아무리 찌뜨려도, 어설픈 지렁이는 내려오지 않아 어떤 회원을 받을 동동 구르며 노력을 해보는 데도, 여전히 지렁이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 능력의 한계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여성 회원들께서는 품이 나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주저하다 나중에는 선물을 두개씩 준다는 유혹에 결국 게임에 참여했는데, 정작 남자 회원들보다 더 잘 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다양한 원인 분석으로는, 여자가 얼굴 표정에 더 기술이 있기 때문이라거나, 눈을 흘기는 표정 등 인상 찡그리기를 워낙에 많이 해봐서 그렇다거나 하는 등 갖가지 억측도 있었다.

지렁이 게임을 마칠 즈음 shelter 사용시간이 지나 자리를 내주어야 했는데, 모두들 너무 재미있어 집에 가는 분들이 없어, 이번에는 바깥 잔디밭으로 이동해 마지막 빙고 게임으로 푸짐하게 준비한 경품을 모두 나누어 드리며 다음 행사를 기약했다. ***

<글·사진 = 임헌민(공대 84) 수석총무>





관악세대/Acro광장

고려인 한반도 대장정의 감격

이원영(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한의학 박사

지방선거, 세월호 특별법, 병사 폭행사망, 교황 방한 뉴스 등에 매몰됐던 지난 한달간. 이 사이에 러시아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고려인들의 대장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 후에 ‘고려인’들이 러시아 - 한반도 즉 유라시아를 이동하는 1만 5000km 자동차 랠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고려인들이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맞아 38명이 참가한 ‘통일 대장정’이었다. 이들이 자동차를 몰고 모스크바 - 우즈베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블라디보스톡 - 백두산 - 개성 - 평양 - 휴전선 통과 - 서울 - 천안 - 해운대로 이어지는 50일간의 행사였다. 이들은 러시아로부터 북한땅에 들어가 이동해서 38도 분단 철책을 넘었던 것이다. 고려인들의 김철성 단장은 백두산 정상에서 가진 한반도 출정식에서 “외세에 의한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길 신념을 굳게 가다듬자”고 외쳤다. 과거 우리 고려인의 역사는 끝없는 수난으로 점철됐다. 1863년 함경북도 경원 지역에 살고 있던 13가족 60여 명이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 ‘지신허’ 마을에 정착한 것이 첫 이주다(러시아 기록을 따라 올해를 150주년으로 삼는다). 이들은 하와이 이민보다 반세기나 앞선 선구자들이었다. 1880년대 중반엔 연해주 고려인 인구가 3만에 달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지자 연해주 고려인촌은 항일운동의 전초 기지가 됐다. 소비에트 연방 치하에서 가혹한 삶을 견뎌내던 고려인 17만명은 그로부터 1937년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송돼 허허벌판에 버려진다. 일본과 갈등관계였던 소련이 “고려인촌에 일본 스파이들이 잠입한다”며 이를 차단한다는 명목이었다. 화물열차에 실려 한달 동안 이송되면서 수천 명이 흑한과 기아로 죽었다. 소련은 고려인들을 적성 민족

취급했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생존을 위해 소련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 민족과 혼혈이 되고, 우리의 모국어를 잃어버리며 빠르게 그들과 동화해야 살 수 있었다. ‘승냥이 떼 속에 살려면 승냥이 울음소리를 배워야 한다’는 러시아 속담은 고려인들의 삶을 투영한다. 1990년대 초 소련 연맹국들이 민족국가로 독립하면서 고려인들은 연해주로, 러시아로, 다시 터전을 떠나야 했다. 이렇듯 150년간 유랑과 정착을 반복하며 고난의 역사를 이어온 고려인들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분단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를 가졌다는 것은 가슴 뭉클한 의미를 던진다. 인체에 신경이 끊기거나 마비되면 감각을 느낄 수 없다. 신경이 끊긴 손발이 못에 찢려도, 잘려나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위장을 치료하려 무릎 부위에 침을 놓거나, 충혈된 눈을 보고 간의 열을 낮추기 위해 발가락 사이에 침자리를 잡는 것도 몸 전체에 기가 흐르는 경락이 있기 때문이다. 분단된 우리 한반도는 신경이 끊기고 경락이 막힌 인체와 비교된다. 붙어 있으며 다른 반쪽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와 단절의 몸이나 다를 게 없다. 남과 북이 경락처럼 기가 흐르지 못하니 서로에게 위안과 치료가 되지 못한다. 고려인들이 분단의 허리를 가로질러 백두산에서 부산까지 내달리는 것은 끊어진 신경과 경락을 잇겠다는 몸짓과도 같다. 나라 떠난 이민족으로 시베리아 별관에서 150년을 견뎌낸 고려인들의 한반도 대장정을 어찌 스쳐 바라볼 수 있겠는가. 남북한 반토막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비와 무감각에서 깨어나라는 죽비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다. 고려인들은 명동성당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 특별 미사에도 참여했다. 거기서 러시아·북한·남한 흠을 섞어 쿡을 심은 ‘통일 화분’을 교황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광복절 특별담화, 프란치스코 교황, 고려인 대장정..., 메마른 한반도에 단비가 쏟아질 것 같은 지난 8월이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폭격

신복례(인문대 83) CA
미주 중앙일보 사회부장

실종됐던 이스라엘 10대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은 한달에 걸친 무차별 폭격으로 지난 8월 현재 가자지구에서만 18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유엔이 집계한 사망자는 1천 814명. 이 가운데 최소 72%가 민간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18세 미만은 429명이다. 목숨이라고 다같은 목숨이 아니니고 태어난 나라에 따라, 빈부·권력 유무에 따라 목숨 값이 천양지차라는 걸 모르진 않지만 그래도 3대 429라는 냉혹한 숫자는 무력감과 좌절마저 느끼게 한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군을 철수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공격은 정당한 일이었으며 모든 민간인 사상자의 발생은 하마스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다른 정파인 파타와 협력해 가자지구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의 땅굴과 로켓 발사장 파괴라는 공격 목표 달성, 승리 선언만 남은 이스라엘의 전쟁

드라마 마무리에는 미국 정치인 뿐만 아니라 언론도 한 몫했다. 매마침 발표된 CBS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전쟁의 책임을 하마스 34%, 이스라엘 6%,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동책임 47%라고 정리해줬다. 그렇다면 결론은? 누구를 탓하라. 2006년 선거에서 무능하고 부패했지만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비폭력 노선의 파타 정파 대신 팔레스타인 영토 회복을 외치며 무장투쟁을 하는 하마스를 선택한 가자지구 주민들 잘못이라는 얘기일 밖에. 이번 전쟁을 지켜보며 가장 의아했던 것은 아랍의 형제 국가들이 과거 전쟁 때와 달리 이해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1월 교전 당시만 해도 적극 중재에 나서 8일만에 전쟁을 끝내게 했던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기운 휴전안을 내밀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대신 하마스에 휴전안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했다. 1만 명이 넘는 사상자에 전력은 거의 무력화되고 가자지구를 옥죄고 있는 국경봉쇄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다면 모를까, 얻는 게 아무 것도 없는 휴전안이

하마스에게는 굴욕임에도, 아랍의 형제국들은 휴전안을 거부한 하마스를 비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마스와 같은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세력이었던 이집트의 무함마르 무르시 민선 대통령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권좌에 오른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이스라엘 간에 하마스를 몰아내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실 아랍권의 암묵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한 달 동안이나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지상군까지 투입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2010년말 아랍세계를 휩쓸었던 ‘아랍의 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쿠웨이트의 왕들은 30~40년 철권통치를 해 온 이집트·리비아·예멘의 지도자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며 수니파 근본주의자들이 득세를 해가는데 위기감을 느꼈다. 그들에게 더 두려운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의 권좌를 위협하는 수니파 근본주의 세력이었던 것이다. 세계의 경찰임을 자임했던 미국의 위세가 꺾이면서 세계 각 지역에서 민족간·종교간 분쟁으로 하루도 쉴 틈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힘의 공백 속에서 지역 열강들의 각축이 계속되는 한, 무고한 목숨의 희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분노 외에는 할 게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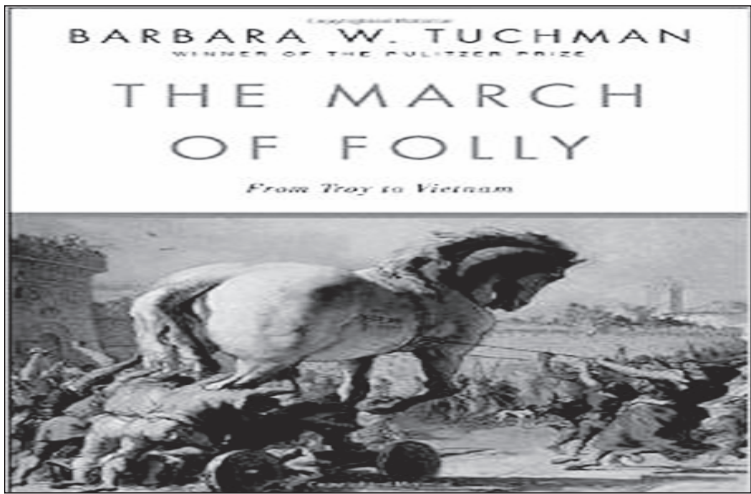
위험한 이심전심(以心傳心)

한정민(농대 87) VA
워싱턴 가정상담소 상담사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나 한자성어가 ‘진짜 맞는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많다. 옛날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마음 상하던 부분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부분에는 먼저 삶을 살아내신 어르신들의 지혜와 옛 성현들의 교훈을 통해 사람과 형편을 대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진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자주 생각하면서 떠올리게 되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바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 송(宋)나라의 중도언이 기록한 ‘전등록’에 기록된 이야기다. 석가가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은 뒤 그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연꽃 한 송이를 집어 들고 말없이 약간 비틀어 보였다. 제자들은 석가가 왜 그러는지 뜻을 알 수 없었으나 가섭만은 뜻을 깨닫고 빙긋이 웃었다. 그제야 석가도 빙그레 웃으며 가섭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수했다고 한다. 이처럼 ‘말이나 글이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였다’고 한 데서 ‘이심전심’이 유래되었다. 우리도 석가와 가섭처럼 빙그레 웃는 미소나 슬픈 표정만으로 자

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상대의 표정을 읽고 어림짐작으로 추측하다가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를 경험한다. 그래서, 설부른 ‘이심전심’의 기대와 추측은 위험할 수 있음을 상담을 할 수록 더 깨닫는다. 마음에 품고 있던 감정과 생각이 언어를 통해 상대에게 전달할 때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들을 종종 접한다. 불안이나 우울증으로 상담소를 찾는 여성들의 상담수는 상대의 표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확대 해석하여 긴 장편소설을 쓰며 괴로워 한다. 아내들은 종종 “남편 표정만 봐도 알아요. 집에 오는 걸 싫어하는게 얼굴에 역력해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얼굴에 써있어요”라고 말하며 우울해 한다. 그러나 부부상담 중에 남편은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 그냥 뉘눕고 표정 없이 혼자 쉬고 있는 것 뿐인데 오해를 했었네”라고 말하는 경우를 본다. 그렇다면 남편이 혼자 쉴 때 “내가 오늘 직장에서 많이 피곤해서 혼자 쉬는 시간을 한두시간 갖고 싶어”라고 한 마디만 해주어도 아내는 그런 상상으로 소설을 쓰며 괴로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담 중 자주 듣는 말 중의 하

나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요?” 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들이 마음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많은 내담자들이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돼요”라고 말한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듯이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하고, ‘당신 정말 멋지네’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힘이 난다. ‘고마워’ 또는 ‘미안해’라는 한 마디로 오랫동안 쌓여 있던 감정들이 눈처럼 녹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언어의 힘을 안다. ‘말을 안해도 알겠지’란 생각은 위험한 기대를 낳고 결국 스스로를 슬프고 힘들게 만든다. 오늘은 가까운 이들에게 문자나 말을 통해 마음을 표현해보자.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라고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의 표현 몇가지를 적어보았다. 표현하는 것이 아직 어색하다면 소리내어 읽어보고 연습을 거친 후 자녀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에게 말이나 문자를 띄워보자.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당신이 참 든든해요. 네가 내 옆에 있어 참 좋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네가 참 자랑스럽다. 고마워. 널 믿어. 당신이 내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멋져요! 사랑해.”*** monicalee@gmail.com



관악세대/Acro광장

‘어리석음의 행진’

민경훈(법대 78) 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 논설위원

‘어리석음의 행진(March of Folly)’은 미국의 대표적 역사학자 바바라 터크먼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다.

이 책은 ‘트로이의 목마’부터 ‘월남전’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저질러왔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10년 간 싸우던 그리스 인들은 물러가고 해변에는 커다란 목마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이것만 불태워 버리면 트로이 인들은 옛날처럼 평화롭고 풍족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제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그렇게 하면 신들의 분노를 살 것’이란 이유로 이를 성 안으로 끌어들인다. 카산드라와 라오콘을 비롯한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극구 만류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묵살된다.

결국 트로이 인들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술을 마시고 꿀아떨어진 순간 목마에 숨어 있던 그리스 인들은 10년 동안 열지 못했던 성문을 안에서 열며 이와 함께 트로이는 멸망하고 만다.

루터의 종교 개혁 때도 그랬다. “가톨릭의 타락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외침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왔지만 르네상스 시대 교황들은 이에 귀를 닫고 사치와 향락에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그 결과 기독교권은 루터가 이끄는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양분됐으며 ‘30년 전쟁’ 등 수많은 전쟁을 거친 채 아직까지 갈라진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책은 이 외에도 실리 없는 명분에 집착해 악착같이 식민지 주민들로부터 몇 톨 안되는 세금을 거두려다 아예 식민지를 잃어버린 영국 왕 조지 3세, 프랑스가 이미 손들고 나가 버린 인도차이나에 뒤늦게 뛰어들어 명분 없는 전쟁을 하며 수많은 월남인들과 자국 병사를 희생시킨 미국 지도자들을 어리석음의 표본으로 들고 있다.

터크먼이 속편을 쓴다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 지도자들이 보여준 행태도 아마 포함될 것 같다. 1991년 2월 미국이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군을 몰아내고 이라크로 진격하자 많은 사람들은 사담 후세인의 몰락은 시간문

제로 내다봤다. 아닌 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미국이 마음만 먹었으면 사담 축출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나 아버지 부시는 바그다드 입성을 포기했고 사담은 살아남았다. 독재자를 제거하고 이라크를 우방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에도 부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당시 부시의 안보 담당 보좌관이었던 브렌트 스코우크래프트는 훗날 “우리가 그 때 바그다드로 쳐들어갔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적대 세력으로 둘러싸인 나라에서 점령군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아들 부시가 이라크 침공을 계획하자 부시 가문과의 오랜 친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비판했다. 2011년 오바마가 이라크 조기 철군을 발표하자 그는 “이라크가 스스로 치안을 지킬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패배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더 정확히 중동 사태를 예언할 수는 없다.

2011년 오바마는 두 가지 중요한 실수를 범했다. 하나는 물지마식 이라크 철군이고 또 하나는 시리아 온건파 반군에 대한 지원 거부다. 오바마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화학 무기 사용이야말로 “빨간 선”이 될 것이라 공언하고도 실제로 이를 사용하자 조용히 넘어갔다. 이로 인해 미국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그 빈 공간을 알 카에다를 능가하는 극렬 회교단체 IS가 파고들었다.

오바마가 이런 실책을 범하지 않았던들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를 널리 장악하고 하루 300만 달러의 세수를 자랑하는 테러 집단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IS의 팽창을 3년 동안 묵묵히 지켜보던 오바마가 드디어 반격을 선언했다. 무고한 미국인과 영국인의 목을 자꾸 자르는 것을 더 이상 볼 수만은 없었나 보다.

오바마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원해서라기보다 여론에 떠밀린 인상이 짙다. 미국인의 2/3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과연 오바마처럼 내키지 않는 지도자가 IS를 성공적으로 격퇴하고 중동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건강의학 칼럼

갑상선 종양(Thyroid Tumor) <1>

차민영(의대 76)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1년 전 일이다. 42세 된 여성환분이 목 앞쪽에 뭔가 만져지는 것 같다고 해서 찾아왔다.

조그만 혹이 만져졌는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기능 저하의 증세도 전혀 없었다.

초음파를 했더니 2.5cm짜리 종양이 나왔다.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갑상선암’으로 판명됐는데 다행히 ‘papillary carcinoma(유두종암)’라고 하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었다. 며칠후 수술을 받고, 환자는 퇴원하였다.

한국 여성의 암 중에서 제일 많은 암이 무슨 암인지 아시는지? 답은, 위암도 아니고, 유방암도 아닌 갑상선 암이다(요즘 한국의 의료계에서는 ‘갑상선’이라는 말 대신에 ‘갑상샘’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다. 갑상선(甲状腺)의 ‘선’자는 ‘샘선’자다. 하지만 여기서는 계속 ‘갑상선’으로 쓰겠다).

왜 갑자기 이렇게 갑상선 암이 늘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딱 부러지게 설명할 길은 없으나, 실제 종양도 약간 증가

했을 것이고, 초음파 검사가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과거에는 그냥 갖고 살았던 혹이 많이 발견되어서일 가능성도 있다.

갑상선 종양은 크게 양성종양(Benign Tumor)과 악성종양(malignant Tumor)으로 나뉜다.

▶양성종양 = 생명에는 지장이 전혀 없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전혀 없으나, 미용상의 문제로 수술하기도 한다.

단, 악성인지 아닌지 반드시 감별진단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갑상선 낭종, 선종성 증식증, 선종의 3가지가 있다. 이중 선종성 증식증이 가장 흔하다. 선종증여포상 선종(follicular adenoma)은 암은 아니지만, 수술 전에는 암과의 감별이 어렵고 약물 치료에 잘 듣지 않아 수술을 하는것이 좋다.

▶갑상선 암 = 갑상선 암의 환자가 혈액검사를 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나올까, 아니면 기능 저하로 나올까?

답은 거의 대부분 갑상선 기능 정상으로 나온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갑상선 암의 증세는 대부분 없다. 단지 혹이 최근에 빨리 자라거나, 아주 단단하고 침을 삼킬 때도 위 아래로 잘 움

직이지 않으며, 목소리가 쉬거나 하면 갑상선 암일 가능성이 높다.

갑상선 암의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다. 과거 목 부위에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험과, 유전적 소인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 암의 진단은, 경부(목) 초음파와 가는 바늘을 이용해 갑상선 혹의 조직을 채취하여 쉽게 내릴 수 있다.

일단 진단된 뒤에는 암 주위 조직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 CT스캔을 한다. 갑상선 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대부분은 암의 분화도가 좋은 유두상 암(papillary carcinoma)과 여포상암(follicular carcinoma)이 차지하며 예후는 아주 좋다. 그외 수질암, 미분화 암 등이 있는데, 미분화암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예후가 아주 나빠서 대개 6개월 내 사망한다.

갑상선 암의 치료는 우선 수술로 갑상선을 전부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거하며, 근처 림프절의 절제를 동시에 하기도 한다.

수술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한다. 다행히도 갑상선 암의 대부분은 완치가 가능하다. 비록 빠나 폐로 암이 전이 됐다 할지라도 갑상선 제거 수술과 방사선 동위원소 요오드 치료를 하면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50%나 된다. 그러므로 갑상선에 혹이 만져지면, 빨리 내과의를 찾아 초음파를 실시해 진단과 치료를 받기 바란다.***

필요시 도움 못주는 에이전트

노재원(인문대 82)CH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얼마 전 개인적인 용무로 타주를 찾았다가 숙된 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을 한꺼번에 겪었다. 일정을 모두 마친 토요일 저녁, 늦은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출발하려고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다.

언제쯤 다시 시도했지만 마찬가지로였다. 며칠 전 배터리와 케이בל을 교체하는 등 제법 비용을 들여 정비를 마쳤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공교롭게도 휴대전화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더니 급기야 전원이 나갔다.

마침 주차장 관리직원이 보이길래 도움을 요청했다.

“어쩌면 점프 케이블이 있을지 모르겠다”던 그는 잠시 후 휴대용 기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여전히 시동은 걸리지 않았다.

인근 호텔 1층 투숙객이 진땀을 흘리는 우리를 지켜보다가 자신의 SUV를 운전해 와서 점프 케이블을 연결해보고 스타터를 막대기로 두드려보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한 레스토랑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배터리 충전을 위해 전원 콘센트에 전화기를 연결했다. 그 사이 종업원 두 명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술자를 찾아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자동차는 멈추어 있고 휴대폰은

안 되고 게다가 웬만한 업소는 모두 문을 닫은 주말 저녁. 낯선 소도시에서 한꺼번에 찾아온 낭패였다.

보험사 전화 자동응답기에선 메마른 기계음만 지겹도록 반복될 뿐이었다. 집으로 오는 걸 포기하고 속도로 들리고 했으나 주변 호텔은 모두 매진 상태였다. 긴급 도로서비스와 연결이 되었고 긴긴 기다림 끝에 자정이 가까워져야 견인 차량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또 합흥차사. 겨우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에 온 견인 차량을 타고 단 한 개의 방만 남았다는 호텔에 도착,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긴급 도로서비스, 토잉업체, 보험사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토잉은 보험 커버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 에이전트에 연락했지만 제때 연결되기는 커녕 결론은 “직접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거였다.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 대신 대표전화가 안내해주는 본사로 연락해야 한다. 고객과 서비스 대행 업체와의 클레임 문제도 우리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카고로 돌아와 전화 통화를 한 보험 에이전트 대표도 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마치 사고는 자신들의 근무 시간에만 발생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다.

사실 많은 한인들이 한국인 에

이전시를 찾는 이유는 곤경에 처했을 때 그나마 의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 때문일 거다. 그러나 그 기대는 허상인 듯했다.

하지만 세상엔 착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건 소득이다. 호텔에 있다가 맨발로 뛰어나와 어려움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와준 브렛, 그는 나중에 일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안부를 물어오기까지 했다.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기술자를 찾아주려고 분주히 움직이던 레스토랑 여종업원들, 로비에서 휴대전화 충전을 하면서 잠시라도 편히 쉬라고 커피를 건넨던 호텔 직원.

시카고 남부 출신이라며 우리를 고향사람처럼 반가워하던 자동차 수리업체 직원 선, 애초 차량정비가 잘못되었음을 증언해주겠다던 시골 마을의 기술자 알렉스 등 이름도 성도 낯선 고마운 사람들을 만났다.

고된 여정이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안다’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격언을 다시 한 번 되새긴 계기였다.

우리 한인 동포들이 서로를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영화이야기

Broke Back Mountain과 Annie Proulx



이건일(의대 62) CA

9년이나 지난(2005) 영화이기는 하나, 여태까지 본 영화들 중에서 내 머리 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몇 안되는 영화 중 하나에 이에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 = 원작자인 Annie Proulx와 영화를 만든 Ang Lee 감독 두 분 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이다. 주연 Heath Ledger·Jake Gyllenhaal·Michelle Williams의 연기가 빛난다.

후일담으로, Ledger와 Williams는 결혼은 안했지만 이 영화 후들은 아기를 가진 모양이다. 아쉽게도 레저는 몇년 전 마약 과다복용으로 사망했고 그후 윌리엄스는 많은 영화에 출연했다.

이 영화는 가서 볼 때도 인상 깊었지만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했고 또 며칠을 이 영화 생각하며 지나게 만들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성간의 사랑만 사랑인가, 동성간의 사랑은, 나아가 인간끼리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다.

대만 출신 Ang Lee(한국에서는 ‘이안’이라 부른다) 감독이 만든 정말 오랫동안 만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한다. 대학생 때 ‘Deer Hunter’를 보면서 느꼈던 그 전율을 오랫동안 느꼈다.

▶**동양인 첫 아카데미 감독상** = 그는 이 영화로 동양인으로서는 처음 아카데미 감독상을 타게 됐다. 그동안 ‘음식남녀, Pushing Hand, Wedding Banquet, Hulk, Ice Storm,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Sense and Sensibility’ 등등 대만과 미국에서 많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으니까 오스카상 수상이 좀 늦은 감도 있다.

그는 원래 공과대학 출신이었고 학생 때 연극활동을 하던 것이 결국 NYU에 유학와서 영화를 공부하게 됐는데, 어쩌면 자신의 재능을 살린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머그에도 쓰여 있듯이 ‘Success is doing what you love.’ ‘Success is loving what you do.’ 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그가 영화공부하는 동안 그의 부인(같은 공대 출신 엔지니어)이 생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그녀 역시 같은 연극반 출신 남편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 감독을 잘 아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대만 출신 여자 의사에게서 들은 말이니까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보아야 되겠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장가를 잘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은 모두 장가 시집 잘 가서 인생에서 성공하였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Brokeback Mountain’은 두 카우보이 이야기인데, 그냥 카우보이가 아니라 게이(동성 연애자) 카우보이들 이야기다.

▶**두 Cow Boy Gay 이야기** = 나는 원래 게이들에 대해 일종의 엘러지 반응이 있어 될 수 있으면 게이가 나오는 영화, 소설은 피해왔다. 오죽하면 몇년 전 이곳 발레단을 위한 자선모금 만찬에 참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것을 잘 안다. 같은 병원에 좀 친한 백인 의사가 하나 있다. 서로 집안 아이들 얘기를 하다가 자기 큰 아들은 의사고 결혼했으며 딸도 결혼했으나 모두 아직 자식이 없고 둘째는 결혼도 안했는데 아마 그에게서는 손자 손녀 기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기에 왜 그러냐니까 게이란다. 얼마 전 파트너라고 한 녀석을 집에 데려왔는데 좋은 집안 출신의 훌륭한 청년이라 자기 부부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고 한다. 어버이로서 어찌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리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얼굴이 매우 쓸쓸해 보였다. 부모로선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가 이야기한 것은 이 감독의 작품 중 하나인 ‘Wedding Banquet’의 줄거리와 매우 흡사하다.

대만에서 부모가 뉴욕으로 아들을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왔다. 아들은 게이, 한 남자와 동거 중 급해서 아는 중국 여자에게 애인 역할을 부탁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비밀이 탄로나고 아버지가 아들의 파트너와 대면하는데 그가 자기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알고는 그에게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하면서 떠난다.

이야기가 옆으로 새었는데, 이 영화 Brokeback Mountain의 줄거리는 이렇다. 1960년대, 미국 와이오밍주, Ennis Del Mar는 중학교 중퇴의 고아, 형에게 얹혀 살다 형이 결혼하게 되는 바람에 더 있을 수 없어 집을 나온다.

시간은 흐르고 둘은 각각 결혼해 아이들이 생기고 연락없이 지내다 책이 보낸 엽서로 둘의 관계는 다시 시작돼 20여년간 지속된다.

▶**책의 죽음** = 책에게서 연락이 없어 애가 타던 에니스가 책의 집에 전화해 부인으로 부터 책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다. 아마도 게이인 것이 발각돼 아내 아니면 장인 손에 죽은 것일 거라고 에니스는 짐작한다.

책의 부모를 찾아간 에니스는 책의 아버지의 냉정한 접대를 받았으나 따뜻한 어머니의 배려로 책이 쓰던 이층방에서 책의 어릴 적 물건들을 보다가 옷걸이 옆 비밀장소에 걸려 있는 책의 셔츠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자기의 셔츠를 발견한다. 둘이 산 위에서 말다툼하다 싸움을 하게 됐을 때 자기가 흘렸던 피가 묻어 있던 셔츠인데 에니스는 잊어버린 줄 알고 있었고, 책이 그걸 훔쳐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니스는 책 어머니의 승락을 얻어 가지고 나온다. 근처 잡화상에서 30센트에 Brokeback Mountain의 사진이 있는 엽서를 사서 트레일러의 옷장 속 책과 자기의 피묻은 셔츠 옆에 붙여 놓았다.

그리고는 중얼 거린다. “책, 난 맹세코—.”

영화는 여기까지나 원작 Annie Proulx의 소설 ‘Brokeback Mountain’에서는 이렇게 끝난다.

He stepped back and looked at the ensemble through a few

stinging tears.

“Jack, I swear—.” he said, though Jack had never asked him to swear anything and was himself not the swearing kind.

그(에니스)는 뒤로 물러나서 눈물로 메워진 눈으로 그 셔츠들을 바라 보았다.

“책, 난 맹세코—.” 라고 중얼 거린다. 비록 책이 그에게 맹세를 시키지도 않았고 그 또한 맹서하는 타입도 아니었지만.)

이 영화는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을 만큼, 원작인 단편소설의 분위기와 내용과 문장을 잘 살리고 있다. 원작 소설의 한 문장이 영화에서는 5내지 10분씩 가는 것도 있다.

▶**섬세한 연출, 빼어난 촬영** = 감독인 Ang Lee의 섬세한 연출과 빼어난 촬영이- 와이오밍의 높은 푸른 하늘과 웅장한 산들- 또한 한뫼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영화를 본 후 읽은 Annie Proulx의 원작 단편소설도 매우 좋았다.

Annie Proulx는 현존하는 미국 작가들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중 하나다. 프랑스에서 건너 온 선조가 캐나다 퀘벡에 정착했다가 미국으로 이주해 할아버지 때 코네티컷주에 정착하게 되어 거기서 태어나 University of Vermont를 졸업했다.

Canada Montreal의 Sir George William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받는데 이어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구두 시험을 통과했으나 장래 직장 문제로 고민하다

Wyoming주로 가게된다.

그 곳에서 생활하며 관찰하고 느낀 것들이 결국 Brokeback Mountain이 실린 ‘Close Range’라는 책으로 출판된다.

그녀는 그외에 Heart Songs and Other Stories Postcards The Shipping News Accordion Crimes The Old Ace in the Hole 등의 책을 출간 하였다.

그중 ‘The Shipping News’는 이미 영화로 만들어졌다. (Kevin Spacey, Julianne Moore, Judy Dench and Cate Blanchet 공연)

내가 이 작가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영화 ‘The Shipping News’를 본 다음이었다. 그녀의 문장은 간결하고 단어의 절제가 아주 심하다. 탁탁 끊기는 듯한 문장 속에 함축적인 단어의 사용으로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욱 강조됨을 느낀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마음을 파고 든다고 할까? 어느 평론가 말대로 ‘biting’ 하는 문장력을 영화 ‘The Shipping News’는 제대로 표현 하지 못했는데, 영화 ‘Brokeback Mountain’은 Ang Lee 감독의 훌륭한 연출로 원작의 묘미를 십분 아니 십이분 전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Brokeback Mountain’에 대한 작가의 대답을 받쳐해왔다.

“Brokeback Mountain” was/is one of a number of stories examining rural Western social situations. But it is NOT a story about “two cowboys.”

It is a story about two inarticulate, confused Wyoming ranch kids in 1963 who have left home and who find themselves in a personal sexual situation they did not expect, understand nor can manage.

The only work they find is herding sheep for a summer. Some cowboys!

Yet both are beguiled by the cowboy myth, as are most people who live in the state, and Ennis tries to be one but never gets beyond ranch hand work; Jack settles on rodeo as an expression of the Western ideal. It more or less works for him until he becomes a tractor salesman.

Their relationship endures for 20 years, never resolved, never faced up to, always haunted by fear and confusion.

How different readers take the story is a reflection of their own personal values, attitudes, hang-ups.

It is my feeling that a story is not finished until it is read, and that the reader finishes it through his or her life experience, prejudices, world view and thoughts.

Far from being “liberal,” Hollywood was afraid of the script as were many actors and agents.

작가가 말한 소위 ‘Liberal Hollywood’는 그 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영화에 작품상을 주지 않았다. 아직도 보수적인 미국 사회를 의식 해서 인지 ‘게이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되는 이 영화를 제끼고 인종문제를 다룬 ‘Crash’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

“이 영화는 내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성간의 사랑만 사랑인가, 동성간의 사랑은, 나아가 인간끼리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다”

석했다가 열명씩 앉는 테이블에 게이 두명이 앉는 걸 보고 기겁해서 영문 몰라 하는 아내 손을 끌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일도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요즈음 게이들이 점차 사회 주류에 편입되는데 저항감이 많이 줄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차별은 할 수 없게 돼 있어 요즈음은 주위에 점점 더 눈에 많이 띄게 되는 것 같다.

같이 일했던 그룹에도 20여명 중 두명이 게이였다. 덕분에 그들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걸 느끼고 있다.

‘게이면 어쩌나. 자기들끼리 좋아하면 그만이고, 또 그건 그들의 자유이니까’ 하는게 요즈음 생각이다. 이곳에 살면서 인생에서 관용(Tolerance)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자기와 다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배척하고 증오하는 것은 얼마나 속좁고 비열한 행위인가!

Jack Twist은 부모는 있으나 별로 더 나을 것도 없는 집안 환경, 겨우 고등학교나 마쳤을까?(이부분은 불분명 하다) 로데오 대회에 나가 이름내는 것이 소원이다. 둘이 여름 한 철 일자리를 찾아 목장감독 트레일러 앞에서 맞나는 데서부터 영화가 시작된다.

▶**일반 관객의 거부감** = 둘은 Brokeback Mountain에서 여름 한철 양떼를 지키는 일자리를 얻게 됐고, 높은 산속 웅장한 자연을 배경으로 둘만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서로 외롭고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어쩌다 둘이 게이 섹스 관계를 갖게 된다. 이 부분이 아마 많은 일반 관객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곳일 것 같다. 둘은 서로 주장한다.

Ennis : I'm not no queer.

Jack ; Me neither. A one shot thing. Nobody's business but ours.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부정하려 하나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게이인 것이 발각되면 린치를 당하고 죽게 되는 환경에서 그들이 감내하는 위험성과 공포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멀리서 쌍안경으로 이 둘을 지켜보던 감독에 의해 이들의 일자리는 끝이 난다. 말 없이 돌아서 걸어가던 에니스가 책이 보이지 않게 되자 골목 길에서 짐승같이 울부짖는 장면은 우리 가슴도 아프다.

←영화 ‘Brokeback Mountain’의 포스터.



아메리칸 드림 50년<15>

최용완(공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내가 흑인 건축가와 백인 건축가를 동행하는 AAI 건축 사무실을 창업한 1986년 6월 후에 8년 쯤 지나 1994년 데이튼 상공회의소에서 그 해의 ‘스몰 비즈니스’로 입상하면서 더 큰 프로젝트를 얻기 시작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리기 자선 봉사 = 데이튼 VA를 포함한 병원 건축설계를 하던 중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만나면 한국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1995년 오하이오 주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프로젝트에 설계비와 공사 감독비 12만 달러의 비용을 무료봉사로 하였다.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세워진 비석에 회사 이름과 내 이름이 새겨짐을 보고 살아있는 사람의 비석을 보는 이상한 느낌마저 들었다.

1999년 데이튼 한인회가 약 2천 300명 동포의 관심을 잃고 일할 사람이 없어 위기에 봉착해 문을 닫게 된다고 들었다. 식당 사업하는 손상현 회장에게 금년도 일을 맡기고 나는 부회장으로 다음해의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회장직을 이어받았을 때 당시 한글학교를 구해낸 우기희(현 중앙일보 ‘이 아침에’ 칼럼리스트)의 한글학교 모금운동으로 한인회와 한글학교는 다시 튼튼한 기반을 쌓기 시작했다.

그 해 한인축제는 데이튼 한인회 역사에 가장 큰 행사였다. 나는 한국 연세대 건축과에서 한국 온돌주택 건축 연구자료를 얻어와 온돌방 모형을 만들었다. 북음밥, 불고기와 김치가 제일 많이 팔렸다. 한국정부와 현대건설의 지원을 요청하며 한국의 문화를 미국 중서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한국 정부가 참전용사를 위한 행사를 알려왔다. 40명을 수용할 능력을 가진 한인회는 클리블랜드·신시내티·콜럼버스 등 대도시의 한인들이 감당할 수 없고 데이튼 한인회만 할 수 있다고 한다. 선발된 대학 학생들과 유명한 인간문화재들을 포함한 연예 예술인단이 오하이오 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만나게 됐다.

미군 재향군인 회장과 나는 데이튼 시장을 찾아가 데이튼 컨벤션 센터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대학생 모두를 2박 3일 동안 무료 숙박하도록 미국 가정과 한국가정에 분배하였다.

한국에서 준비해 온 무대공연과 전시장을 보는 참전용사와 가족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도록 감동을 선사했다. 참전용사 한 사람씩 무대에 올라와 한국 국방부에서 준비한 메달을 목에 걸어주었을 때 가난하고 비참했던 한국전쟁의 기억을 씻기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얼굴을 그들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심어주었다.

오하이오 각처에서 찾아온 75명의 참전용사들과 100여 명의 가족들,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주 고위 인사들이 참관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포들과 미국 가정에 감사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그들에게 참으로 고마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같은 해 한인회관 설립 모금 음악회를 개최하고 한국에서 김성길 오페라 가수 및 국내외 음악인들을 초청했을 때 여비와 숙박비도 자진해서 부담했다.

▶정치인 토니 홀과 교류 = 그곳 국회의원 토니 홀은 매년 선거철마다 당선되어 반평생 민주당 자리를 지켜온 미국 정치계의 터줏대감이었다. 1973년 그가 미국 국회의 국가 안전보장 위원장

“1997년 데이튼 한인회장 시절, 국회의원 토니 홀은 한인사회에 관심이 많아 내가 다니는 한인 침례교회에 가끔 들러 우리와 함께 예배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으로 일할 때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닌슨 대통령을 방문하여 경제지원 약속을 받을 때였다. 박 대통령은 백악관에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27살 젊은 정보원이 박 대통령의 자제들 영어교사로 수행해갔다.

그 때부터 25년이 지났을 때 필자가 1997년 데이튼 한인회장으로 일하던 무렵, 국회의원 토니 홀은 항상 한인사회에 관심이 많았고 내가 다니는 한인 침례교회에 가끔 들러 우리 한인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나는 옆에서 통역을 하기도 하고 선거철이면 한인들 모금운동을 하여 그의 재당선을 지원했다. 나의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선거자금을 지원을 했다.

▶김대중 납치사건 = 어느 날 나는 토니 홀과 점심을 같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왼쪽은 오하이오 데이튼의 1995년 6.25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개원식 장면으로 최용완 동문이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지역 신문에 게재됐다(편집자 주). 오른쪽은 2010년 6월 26일 이 공원의 기념식 장면.



“1973년 늦은 밤 잠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울렸다. 미 정보국장이 일본 동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김대중씨 납치사건에 관한 보고였다. 의심스런 몇 사람이 김대중씨를 결박하고 동경 앞바다에 데리고 나간다는 보고였고 미국 정보부 요원들이 멀리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김대중씨는 한국의 민주화 노력의 유일한 희망으로 미 정보원의 감시와 보호를 받도록 배치된 상황이었다. 그는 즉각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박 대통령은 사건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느꼈다. 박 대통령은 즉시 김대중씨를 구출하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 토니 홀 국가안전보장 이사회장 지시가 미 정보부장을 통해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대중 씨는 팔과 다리가 묶이고

▶금강산 관광 =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총회에 오하이오주 대표로 참석하는 중에 북한 금강산을 관광하는 기회가 있었다. 나는 로성근 화가와 귀면암을 보고 싶었다. 북한 국경을 지나며 우리의 여권을 가져가는 인민군을 보며 마음이 설레고 두려움마저 느꼈다.

경관이 좋은 곳마다 김일성을

새벽녘에 잠들려는 무렵, 건물 밖 멀리서 인민군 군가가 들려왔다. 발코니 밖에 나가 보니 내 귀에는 씩씩한 군가라기보다 침울하게 들리는 슬픈 합창이었다. 방마다 김일성·김정일 얼굴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자유를 빼앗긴 공포의 삶 속에 장송곡처럼 슬피 들려왔다.

다음 날 남한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유행가 부르는 남한 관광객과 저만치 철조망 건너편에 영양실조로 자라지 못하고 여원 체구의 인민군이 험령이는 군복을 입은 모습은 눈물겹도록 대조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 투덜대며 끌려가는 버스 엔진 소리는 시간이 멈춰선 계곡의 가슴을 치며 언젠가 햇볕 비추는 날이 있을 거라고 길설 바위의 침묵은 눈물겨웠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런 글을 썼고 그해 미주 조선일보 2005년 12월 3일에 인쇄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우리 민족의 자유 북한연합이 당신에게 구합니다. 북한 인민에게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인간 도살장 같은 정치범 수용소를 치워버리고 인민이 각자의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방시켜주세요. 그들이 당신만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각자 생명의 가치를 동등한 사회 안에 공정하게 평가받는 권리를 보장해주시요. 수천만 동포의 목숨을 당신의 손아귀에 쥐고 권력과 부귀를 세습적으로 누리려는 생각은 우리 민족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유 민주시대의 흐름을 막겠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국방위원장님, 사회주의 이론이 비과학적임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북한이 체제를 개방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정치범과 탈북자 처형을 중단할 것을 강구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남침 전쟁으로 생사기로서 벗어나려는 우리 민족 모두가 바라는 바요. 용단을 가지시고 대담하게 인민을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직업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나는 우리 어머님을 많이 닮은 사실을 알게 됐다. 제주도 여자로 일제강점기 광주 여고보에서 교육을 받고 목포 상업학교를 졸업하신 아버지와 결혼해 8남매를 두셨다가 두 딸을 잃고 지금의 6남매를 기르셨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식정구 운동을 피아노·오르간 연주를 즐기시던 어머니는 육상선수로 하모니카를 대중 앞에서 연주하시는 아버지와 잘 어우러져 우리에게도 자주 가르쳐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금강산 귀면암



<달러 속 주인공의 이야기>

10달러 지폐의 알렉산더 해밀턴

이영목(공대 59)DC
미주 동창회 상임고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1755년 1월 12일 코네티컷의 식민지인 카리브해의 네비스 섬에서 태어나 1804년 사망했다. 그는 법률가이며 정치인·재정가·사상가며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중 한 사람으로 1787년 미국 헌법 제정에 공헌을 했다.

▶26세로 초대 재무부장관 = 그는 비록 1955년 코네티컷 식민지에서 출생했으나 그의 본거지는 뉴욕 콜럼비아 대학을 나온 뉴욕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는 독립전쟁 당시 자신이 부대를 조직하여 트랜트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그 후 조지 워싱턴이 그를 중령으로 임명하면서 부관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 즉 뉴욕 출신, 조지 워싱턴 부관이 었다는 사실은 곧 그가 조지 워싱턴과 같은 연방주의자라는 말이 된다. 사실 그는 미 연방 설립 당시 대륙주의자(Continentalist)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필명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독립 초기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대립은 대단하였다. 그 대립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념 대립이 아니라 돈의 문제였다. 또한 북부에 상공업 지대와 남부의 농업 지대라는 구조적 상반도 대립의 요인이기도 했다. 사실 독립전쟁 때 전쟁수행을 위하여 많은 빚을 졌다. 연방주의자들은 모든 미국 땅에 사는 사람을 위한 전쟁이었으므로 모든 13개 주들이 빚을 끌고루 나누어 갚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반연방주의자들은 각 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빚을 지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각 주에서 써버린 돈을 왜 각 주에서 끌고루 나누어 갚아야 하느냐면서 갈등을 빚었다.

해밀턴은 빚을 제일 많이 진 주 가운데 한 곳인 뉴욕 출신이니 당연히 연방주의자의 리더였고, 반연방주의자의 대표는 버지니아 출신의 토마스 제퍼슨이었다. 두 대표가 결국 타협이 이루어져 각 주에서 힘을 모아 전쟁 빚을 갚

았으나 그중 타협 중 하나로 당시 수도가 뉴욕이었으나 남부와 북부의 경제지역인 현재의 워싱턴으로 옮기게 되었다. 당시 해밀턴은 이 문제 해결의 중심인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이었다. 대통령을 지내지도 않은 그가 어찌 10달러 짜리 화폐의 초상화로 등장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역사상 초유의 결투는 1801년 7월 11일 벌어졌다. 일정한 거리에서 서로 상대를 향해 권총을 쏘는 방식이었는데 해밀턴이 총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해답은 26세란 나이에 그가 재무장관으로 미 연방 초기에 산업화, 무역관세로 자국 산업 보호 등의 미국의 경제의 기틀을 세운 공로일 것이다. 사실 그의 공은 오늘 날의 미국의 기틀을 잡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 초유의 결투로 사망 = 그리고 해밀턴이라면 그에게서 펼쳐버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애런 버(Aaron Burr 1756-1836)와 결투 이야기다. 아마도 어느 정치사에서도 그 둘 만큼 서로 증오하고 결국 미 역사상 초유의, 그리고 최초로 결투까지 간 사건은 없을 것이다. 해밀턴이 어찌해서 그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자기도 연방주의자였지만 애런 바가 너무나 극단적이라 판단했는지 그의 대통령 출마를 방해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과 투표에서 동수가 되어 그 선거의 최종 결정이 하원의회 총회로 넘어갔을 때 토마스 제퍼슨의 편을 들어 제퍼슨이 대통령, 애런 바가 부통령이 되었다. 당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러닝 메이트가 아니라 득표가 1등이면 대통령, 2등이면 부통령이 되던 때였다.

아마도 그 이후에도 해밀턴과 애런 바는 사사건건 대립해 오던 중 이를 참지 못한 애런 바가 결국 결투를 신청한다. 해밀턴은 이미 자기 아들이 결투에서 죽음을 당한 바 있어 꺼렸지만 애런 바에게서 비겁자라는 비웃음을

↑화폐 인쇄소. 프랑스가 전쟁 중이라 물자가 부족해 카드에 사인한 것을 화폐로 사용했다고 한다.

살 것 같아 결투에 응한다. 당시 뉴욕주는 결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허드슨 강 건너 뉴저지 위호캔(Weehawken)에서 결투를 했다. 이 미국 역사상 초유의 결투는 1801년 7월 11일에 벌어졌다. 일정한 거리에서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권총을 쏘는 방식이었는데 해밀턴이 총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후세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는 해밀턴은 용기만 보이고자 총을 겨누지 않았지만 애런 바는 적의를 가지고 총을 쏘았다 하여 그 후 그는 많은 비난 속에서 부통령직을 떠나야 했다.

▶중앙은행 설립 = 워싱턴에서 해밀턴의 발자국은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재무성 건물 앞에 있는 동상이 전부다. 그리고 그의 묘지는 뉴욕의 월가 증권 거래소 바로 옆에 영국 성공회 교회로 가장 오래된 트리니티(Trinity)에 묻혀 있다.

그를 기념하는 유물과 또 증기선의 발명자 로버트 훔톤(Robert Fulton), 또 1812년 영국과 벌어진 소위 2차 독립전쟁의 영웅 해군제독 제임스 로랜스(James Lawrence)도 함께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교회 묘지에는 해밀턴 묘지만 눈에 띈다.

↓재무부 건물 앞의 해밀턴 동상.



↑해밀턴의 초상화가 그려진 10달러짜리 지폐의 앞면. 뒷면은 재무부

그의 과란만장의 생애 중에서 또 하나의 큰 업적은 1791년에 설립한 중앙은행일 것이다. 물론 이 때에도 반연방주의자 토마스 제퍼슨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대통령 워싱턴이 그의 손을 들어 줌으로서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주마다 마음대로 찍었던 화폐를 통합시켰다. 그러한 의미에서 해밀턴과 다소 관계되는 곳이 미국 조폐국(United States Mint)일 것이다. 조폐국은 1792년 경화주조법안과 함께 미국 의회가 창설했다. 최초의 건물은 필라델피아에 있

나 워싱턴에 있는 곳에는 항상 달러 지폐를 인쇄하는 전 공정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달러는 가끔 속어로 ‘벅(Buck)’으로 불린다. 이는 서부 개척시대 물품교환의 수단으로 숫사슴 가죽(Buckskin)을 썼는데 이것이 속어의 유래다.

또 하나 ‘그린백(Green Back)’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형태다. 남북전쟁 당시 유럽국들이 원료 공급처인 남부군을 지원해 전쟁 수행이 어려워지자 링컨이 그 자금 조달을 위해 연방정부 재무부의 이름으로 발행했다. 그리고 뒷면이 녹색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이는 민간은행이나 연방준비은행(FRB)이 발행한 것이 물론 아니다. 그리고 가끔 정부에서 발

행을 하곤 했고 케네디 대통령이 마지막 발행했으나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호지부지되었다. 그리고는 정부의 달러 발행은 그 말 자체가 언론매체에서 사라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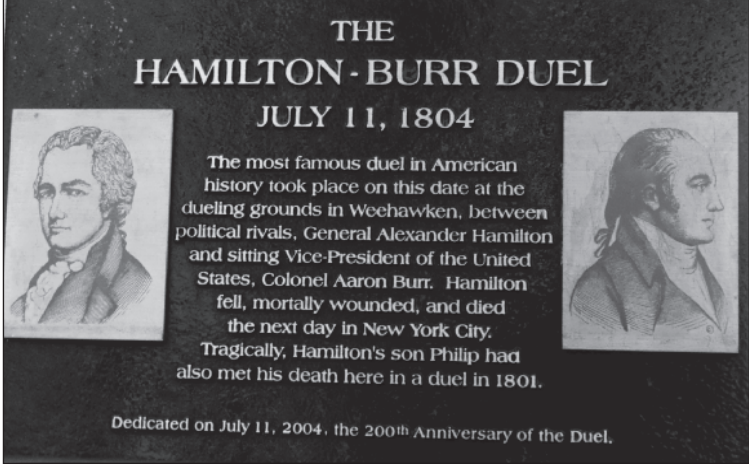
▶Green Back과 암살 = 그런데 가끔 나를 환타지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린백이다. 미 연방준비은행은 도대체 그 존재가 아주 이상하고 신비스럽다. 이는 막강한 미국 정부도 꿈쩍 못하지만 JP 모건, 로스 차일드, 위그스 등 유대인 은행가들이 만든 민간 회사다. 그것도 월슨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틀 전 의원들이 대부분 휴가 간 사이 묘하게 제정됐다.

이 연방은행은 돈을 찍을 때마다 6%의 이익이 배당된다. 설명이 안되지만 그린백 발행을 했거나 시도했던 대통령들은 묘하게도 암살당하거나 암살될 뻔한 경우가 많다.

나는 지금 10달러짜리에서 해밀턴의 초상화를 본다. 약간 미소를 띠고 있는데 그는 저승에서 달러를 얼마 찍어라, 이자는 얼마 받아라 하는 곳이 연방정부가 아닌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이상한 존재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궁금하다.

끝으로 약간 혼란스런 이야기다. 1963년 6월 4일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은행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돈을 직접 찍으라는 행정명령 #1110 호를 발동한 후 암살당했다. 오스왈드가 왜 케네디를 암살했는지 조사하려는 순간 그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총에 맞아 죽어 케네디를 왜 암살했는지, 왜 그도 암살당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과연 누구 소행인지 머리가 복잡하다. ***

해밀턴 공원의 해밀턴과 애런 버 부통령의 결투내용이 적힌 안내판.



여행기

전녀가 본 두만강<1>



김원호(약대 63) CA

매우 아물거리는 기억이기는 하지만 필자가 여섯살 때 형님을 따라 대동강 능라도 모래밭에서 가막조개를 걸러내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모란봉 극장 맨 앞 좌석에서 가족 전부가 나란이 앉아 아버님의 가극 ‘백마산성’을 관람하던 기억이 아득하다.

▶**이산 민족의 비극** = 부친은 1.4 후퇴 당시 헤어져 지금도 종로구청에는 ‘미수복 지구 거주’로 돼 있다. 어머니는 세 아들을 데리고 추운 겨울 친정이 있던 서울로 150리 철길을 따라 남하하였다. 꽃다운 청춘을 모두 잃어버리신 채 50년을 아버님만 기다리시며 통일될 날만 고대하시다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다. 이는 비단 나만이 겪은 이산 민족의 비극은 아니지만 적어도 더 늦기 전에 고향을 한 번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얼마 전 평화통일 자료회의 참석차 8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의 발전은 한 마디로 휘황찬란했다. 문산 통일 전망대를 방문했을 때 임진강 건너 피난으면서 나룻배에 오르다 실족해 설열은 강물에 빠져 죽을 뻔 했던 필자를 어머니가 겨우 끌어 올려주셨던 고랑포를 쳐다보는 감회는 남달랐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북쪽 높은 국기 게양대에 펴터이는 인공기를 바라보며 ‘언젠가 저곳을 나도 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쳤다. 이 지역 전진 사단은 1968년 1월 필자가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김신조 부대의 퇴로를 막는 전투를 하다가 당시 15연대장을 잃은 부대라 기억이 새로웠다. 김신조씨는 그 후 서울약대를 필자보다 1년 먼저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다.

▶**1973년 미국 유학** = 필자가 1973년 유학외서 의학화학 전공으로 학위를 한 이래 약품개발 연구 및 자문, 투약지도에 종사해 왔다. 지난 수년간은 서양역사를 취미 삼아 공부하면서 지중해 연안국가들을 두루 다녀보았지만 남들이 가보고 좋다는 곳을 모두 가보려면 한이 없다. 언뜻 더 늦기 전 북한엘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말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절대 반대다. 로라 링이나 케네스 배의 경우를 모르느냐는 말이다.

회사 다닐 때 출장 품의서를 냈다가 거절당하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다는 convince를 줄 수 있을까? 한 번 하고 싶다고 마음먹은 것이 안되면 자꾸 생각나게 마련이다. 지난 가을 어느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황해도 소재 고아원 방문 케이스가 있어 여권 카피까지 주고는, 다시 아내에게 말했더니 “왜 다른 곳도 많은데 자꾸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마땅한 구실이 없어 다시 생각을 접었다.

아내의 말인 즉 첫째, 가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둘째, 지금까지 자비로 태평양을 오간 적이 거의 없었다. 셋째, 당신은 serious한 Christian이 아니다 라고 다그치니 답변이 궁색하였다.

▶**아내 반대, 북한 여행 관철** = 그 후 몇 달 동안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본 후 생각을 정리하여 다시 반격에 나섰다.

첫째, 주위에 북한을 다녀 온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면서 구체적으로 그 분들의 이름을 거명했다. 그중에는 서울대 선후배, 고교 동창, 평통 친구들, 과학기술 자협회원, 의사 친구들이 있어서 약간은 수궁이 가는 듯 싶었다.

그리고 나서는 다섯 가지 케이스 스테디를 나열하며 그동안 알아본 내역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즉, 크로스 선교회, 아리랑 축제관람단, 평화통일 자문회, 철새 관광사진 촬영단, 두레마을 탁아소 지원, 평양 과거대 방문의 여행 가능성들이었다.

“안내 벽보에는 ‘미국에서는 출산비용이 1만 5천 달러가 드는데 이곳에서의 산모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다’ 고 의료제도를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그러던 차 지난 2월 Los Angeles에서 고교 후배인 치과의사가 주관하는 평양 과거대 의학부 건물 준공 기금 모집 골프행사가 있었다. 골프를 안 친지 수년이 지났으므로 저녁 만찬에만 참석해 대학교개용 slide presentation만을 들었다.

몇주 후 김진경 총장의 만찬에서 약학부 개설에 협력해달라는 제의에 우선 연변·평양 과거대를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중국비자 수속을 시작했다.

마침 필자가 사는 캘리포니아 Palos Verdes동네 바로 길 건너 문리대 화학과 출신이며 삼성 후배가 미주 두레 마을 책임자로 북한 나선에 유아원 등 학교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다.

일단 연변 과학기술대학을 방문해 특강을 하고, 두만강을 건너 나선 제약 공장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모든 서류 수속을 도와주어 아내도 결국 승낙하고 말았다. 같이 다녀 오자고 했더니 혼자 무사히 돌아오라고 해 결국 어렵사리 허락을 얻어낸 셈이 됐다.

▶**연변 과거대 강의** = 연변 과거대 생물화공학부 박 오진 교수의 주선으로 아침 9시 부터 ‘A Glimpse over the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s with modern Medicinal Chemistry’란 제목으로 100분 강의를 마치고 연길시 대종호텔에 도착하니 미주 두레구 본부장이 택시를 대절해 기다리



↑ 왼쪽 사진은 도라산 전망대 앞에서 촬영한 것이고 오른쪽 사진은 연변 과거대에서 필자의 강의 모습이다.

고 있었다. 삼성물산에서 훈련받아서인지 일에 빈틈이 없었다.

연길 인터체인지에서 동남쪽으로 2시간 가량 달려 훈춘을 지나 다시 국도로 20분 만에 중국측 두만강변 출입국 사무소에 도착했다. 고속도로는 3년 전에 건설했다는데 도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창 밖으로는 하얀 매화꽃 경치가 일품이었다. 그전에는 털털거리는 버스를 타고 국도로만 만나질 이상을 가야만 하는 거리였음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시 한 번 그들의 노고에 경의를 가지게 되었다.

▶**눈물젖은 두만강** = 출국수속을 마치고 남쪽 출구를 빠져나가 두만강에 걸쳐진 다리 위로 북한 땅을 볼 수가 있었다. 소위 원정리 마을에 위치한 북한 출입국 관리 건물이 강 건너 보인다.

이 쪽엔 중국 군인, 반대 쪽에는 북한 군인이 초소를 지키고

“그러나 나는 자유무역 특구에 정식 허가를 얻어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고 마음 가짐을 굳게 하였다. 헛된 생각에 잠긴 동안에 다리 양쪽만을 왕복하는 셔틀 버스가 도착해 중국 상인들 무리에 섞여 차에 올랐다. 드디어 북한 땅엘 들어가는구나, 하는 감회에 젖어 섬뜩한 마음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니 잿빛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북한땅에** = 북한 쪽 다리 끝의 초소에 잠시 멈추었다가 통과하라는 군인의 팔신호를 받고 원정리 입국관리 건물 앞에 내렸다.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 미리 연락이 된 나선 특별시의 해외동포 사업지원처로 부터 방지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 40세 가량의 방 지도원과 악수를 나누고 여권을 건네주었다.

관리소 안으로 들어서니 입국서

는 바리케이트를 뒤로 하고 선봉을 향해 출발했다.

2년 전 중국 정부에서 선물로 만들어 주었다는 시멘트 포장도로는 얼마 되지 않아 상태가 좋았다. 길 옆으로는 철쭉나무와 매화꽃이 한창인 시기라 더욱 보기 좋았다. 강을 건너던 때의 두려움은 차차 없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야에 들어오는 창 밖의 시골 풍경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농번기가 시작될 무렵이라 군데군데 밭갈이하는 남루한 의복의 농부들과 방목하는 서너마리의 염소 무리들이 애처롭게 보였다. 농부들의 뒤로 보이는 허름한 살림집들과 나무 관자로 붙여 울린 굴뚝들을 보며 한 겨울에 땀감이 모자라면 매우 추우려니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 마음이 안타까웠다.

▶**모든 촬영은 허가받아야** = 공연한 기우겠지, 하고 마음을 달래는 동안 택시는 잿길 농토길로 접어들어 잠시 후 두메 진료소에 도착했다.

병상 열개 정도를 의사 한 명과 간호원이 맡아 진료하는 작은 건물이었는데 마을 주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필요한 모든 의료봉사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안내 벽보에는 미국에서는 출산비용이 1만5천 달러가 드는데 이곳에서의 산모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다고 의료제도를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두평 남짓한 약국이란 방의 서랍을 들여다 보니 내과약은 거의 없었고, 스트랩토마이신과 앰피실린 항생주사제가 눈에 띄었다. 아마 결핵환자들이 많거나 조그마한 외상치료가 주된 진료부분이 아닌가 싶었다.

두만강을 건너 북한 땅에서는 맨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 기념사진을 찍고자 했더니 방 지도원은 극구 만류한다. 이곳에 오기 전 구 본부장으로부터 사진을 찍으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고 찍으라는 당부를 들었다. 체제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들은 바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왼쪽 사진은 북한 출입국 관리소가 있는 원정리, 오른쪽은 필자가 창평 탁아소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한 모습,



<등반기>

John Muir Trail의 완주



조정시(공대 60) CA

California의 John Muir Trail은 Yosemite 국립공원 내 Happy Isles에서 시작해 High Sierra 산맥 능선을 따라 평균고도 8,000 ~ 9,000피트를 오가고 있다.

그 코스의 과정에는 Cathedral Pass(9,700), Donohue Pass(11,060), Island Pass(10,205), Selden Pass(10,880), Silver Pass(10,895), Muir Pass(11,955), Mather Pass(12,100), Pinchot Pass(12,130), Glen Pass(11,978), Forester Pass(13,180), Trail Crest(13,658) 등 11개의 Pass를 넘어 미주 최고봉인 Mt. Whitney 정상(14,495)에서 끝나는 총 212 마일의 고산 등산길로 전 세계 등산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 중 한 곳이다.

John Muir Trail(JMT)은 서부개척기인 1860년에 시작해 1938년 완공될 때까지 수많은 탐험가들(Theodore Solomons, John Muir, Josiah Whitney, Joseph Le Conte, Joseph N. Le Conte, William Brewer, Clarence King, James Gardiner, Bolton Brown, William McClure)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척된 등산길로 Sierra Club의 초대 회장이며 환경보호주의자인 John Muir(1893~1914)의 공헌을 기념하여 John Muir Trail(JMT)로 명명됐다.

필자는 JMT 전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누어 매년 여름(7월) 한 구간씩 30 ~ 40파운드씩 등에 메

고 동료 산악인들과 같이 Hiking을 해서, 금년(2014년)에 73세의 고령이지만 마지막 구간(제3구간) 산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JMT 제1구간(2003년)과 제6구간(2002년)을 필자에게 소개해서 인도한 남가주 경기 산악회 김동근 전 회장과, 처음부터 필자와 이 산행을 동행하면서 끊임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준 미주 중동산악회 이상무 고문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나이에 상관없이, 큰 뜻을 세우고 꾸준한 체력단련을 해온 결과가 오늘의 결실을 맺게 한 실례로서, 필자의 John Muir Trail 완주 기록이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산악인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이 글은 각 구간의 특이점을 요약 설명한 후, 필자의 JMT Hiking Itinerary를 참고해 JMT Hiking을 준비하는 산악인들의 Hiking Planning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제1 구간 = Yosemite Valley의 Happy Isles에서 Tuolumne Meadows Visitor Center까지 약 24 마일의 거리를 2003년 7월에, 이틀에 걸쳐 동료 산악인들과 같이 7명이 등반했다.

이 구간은 고도 4,035피트인 Happy Isles에서 시작하여 Vernal 폭포, Nevada폭포를 오르고, Half Dome Junction을 지나, Sunrise Lake Junction에서 1박(13마일)한 후, 다음 날 Cathedral Pass(9,700)을 지나 Tuolumne Meadows Visitor Center까지 약 11 마일의 완만한 등산길을 걷는 구간이다.

첫날의 고도 Gain(5,300)이 다소 힘들었지만, Nevada 폭포 위에서 Yosemite Valley를 내려다 보는 장관이 과연 절경임을 느끼게 한다.

▶제2 구간 = Tuolumne Meadows Ranger Station에서 Devils Post-pile을 지나 Reds Meadow로 나오

는, 총 34.8 마일을 2010년 7월, 3일에 걸쳐 동료 산악인과 같이 10인이 등반했다.

이 구간은 Tuolumne Meadows에서 시작하여, Yosemite 국립공원과 Ansel Adams Wilderness를 경계로 하는 Donohue Pass(11,060)와 JMT 중에서 유일하게 High Sierra 능선 동쪽에 위치한 Island Pass(10,205)를 지나 Reds Meadow로 나오는 구간으로, 약 700년 전 소 빙하기를 체험한 대자연(Unicorn & Cathedral Peaks, Mt. Dana, Mt. Gibbs, Pothole Dome, Lambert Dome)과 야생화로 뒤덮인 산간 초원들, 수많은 호수와 개울들로 그 아름다움을 전줄 곳이 없는 구간이다.

특히 Thousand Island Lake에서 바라보는 Banner Peak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나 할까.

▶제3 구간 = Florence Lake을 건너, Lost Village에서 북향하여 Reds Meadow까지 55.2 마일의 거리를 2014년 7월, 5일간의 등정으로 동료 산악인과 같이 7명이 완주했다.

교통 편의상 2개 Team으로 나누어 A-Team은 Reds Meadow에서 남쪽으로 산행하고, B-Team은 Lost Village에서 북쪽으로 산행하여, 중간지점 Silver Pass 근처에서 만나 서로 Car Key를 교환했다.

이 구간은 High Sierra 중에서 John Muir Wilderness에 속하는 구간으로, Selden Pass(10,880), Edison Lake Jct.(7,900), Silver Pass(10,895)를 지나며, 3,000 피트의 고도 Gain과 Loss를 반복하는 험준한 Trail로, 산행 중에 Brown Bear 등 야생동물을 가장 많이 목격한 산행길이었다.

마지막 Silver Pass에서 Reds Meadow까지는 비교적 산길이 완만해 자연을 즐길 수가 있었다.

▶제4 구간 = South Lake(Bishop)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Florence Lake(Lost Village)까지 약 47마일의 산행길을 2012년 7월에, 4일간의 등정으로 동료 산악인 7명이 같이 완주했다.

이 구간은 South Lake에서 Bishop Pass(11,972)를넘고 Dusy Basin을 지나 Le Conte Canyon Ranger Station(8,750)까지 12.8 마일을 가야 JMT을 만나게 되는



↑ 지난 2012년 7월 11일 중동 산악회 이상무(왼쪽)고문과 같이 John Muir Pass (11,955')에서 한 장면 '찰칵'

보너스 1일 산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Bishop Pass에서 Le Conte Canyon으로 내려오면서 보는 King's Canyon의 장엄함과 John Muir가 사랑하는 두 딸을 위해 이름을 붙인 Muir Pass(11,980) 오르막길에 위치한 Helen Lake(11,615), Muir Pass을 넘어 북쪽 내리막 길에 위치한 Wanda Lake(11,420) 등 맑고 청명한 호수들, Muir Pass을 넘어 내려오면서 전개되는 Evolution Lake과 그 주위에 병풍같이 늘어선 고산들의 풍경은 과연 세계 제일이라 할 수 있었다.

▶제5 구간 = South Lake(Bishop)에서 Onion Valley까지 약 66마일을 2013년 7월에, 동료 산악인 7인이 함께 6일만에 완주했다.

이 구간은 첫날 South Lake에서 Bishop Pass를 넘어 Le Conte Canyon까지 12.8 마일과 마지막 날 Charlotte Lake Jct.에서 Kearsarge Pass를 넘어 Onion Valley까지 8.5 마일은 JMT 산행을 위한 2일간의 보너스 산행이었다.

이 구간은 JMT 상의 Mather Pass(12,100), Pinchot Pass(12,130), Glen Pass(11,978)를 포함, 입구와 출구의 Bishop Pass(11,972)와 Kearsarge Pass(11,845)를 합해 총 5개의 Pass를 넘나드는 매우 도전적인 산행이었다.

또한 Pinchot Pass을 내려오면서

만나게 되는 Wood Creek 위로 세워진 부교 Golden Gate of the Sierra의 특이함과, Dollar Lake를 지나면서 보이기 시작한 장엄한 화강암 암석 기둥인 Fin Dome(11,693)이 Rae Lake 근처에선 그 위용을 더욱 자랑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제6 구간 = Onion Valley에서 Mt. Whitney Portal까지 약 49마일을 2002년 7월에, 4일간의 등반으로, 동료 산악인들과 같이 8인이 등반을 마쳤다.

이 구간은 JMT의 마지막 구간으로 첫 날 Onion Valley에서 Kearsarge Pass(11,845)를 지나 Vidette Meadow에서 JMT을 만나는 11마일의 1일 보너스 산행과 Forester Pass(13,180)를 지나 Trail Crest(13,658)를 거쳐 Mt. Whitney 정상(14,495)에 올라 JMT 212 마일의 대장정을 끝내는 구간이다.

둘째날 Forester Pass(13,180)를 오르는 어려움과 마지막 날 Guitar Lake에서 Trail Crest(13,658)를 향해 3,000피트를 오르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Trail Crest에서 밑에 전개되는 Guitar Lake, Hitchcock Lakes 등을 내려다보는 즐거움이 잠시나마 그간의 고통을 잊게 했다.

Trail Crest에서 2마일 더 가서 Mt. Whitney 정상에 오르니 그간의 고행은 다 사라지고 성취감에 도취된 즐거움만이 온 몸을 어루만지는 듯 하였다. ***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성낙인)는 2015년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갑

- 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 2. 수집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 3. 수집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 : 임성용 과장(010-9238-9759) 서울대학교 기록관(전화 : 02-880-8819 팩스: 02-884-7149 E-mail: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 : 김봉은 전문위원(010-3032-5913
- 5. 제공자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모교 역사자료 수집에 동문 139명 기증

본 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8월 1~31일 8명의 동문과 교직원 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7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31명(서울 동창회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호·425호 6면, 426호 8면, 427호 7면, 428호 8면, 429호 4면, 430호 6면, 431호 3면, 432호 7면, 433호 8면, 434호 9면, 435면 6면)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39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남석희(수학56출)동문:문리대 졸업기념 버클 1점(1956년) ▲이창애(기약 53-57)동문:졸업증서 ▲강석호(화학공학 57 - 61)동문:재학시절 노트류 20여권, 수업교재 2권 ▲유노상(경제58 - 64)등록카드 성적증명서 상대 배지 및 버클 ▲임재환(농업경제59 - 63)동문:배지, 교모, 등록카드 및 성적표(1959-63) ▲정대유(응용미술61 - 67)동문 교복, 견장, 버클, 타이핀, 모교 개교 20주년 기념 학생작품 및 동창 작품 전 목록.***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룩비•기타 후원 동문(2014.7.1 ~ 10.3)

동창회비

▶Alabama
유성무(상대 66)

▶Alaska
하인환(공대 56)

▶Arizona
김영철(공대 55)
지영환(의대 59)

▶California
강재호(상대 57)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강천호(사대 58)
강홍제(상대 53)
계지영(문리 60)
고석원(문리 50)
고영순(음대 59)
고재천(공대 57)
권영덕(공대 54)
권오형(사대 61)
김강수(문리 59)
김건진(문리 62)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군빈(법대 56)
김기태(의대 54)
김낙구(상대 67)
김동산(법대 59)
김동호(농대 58)
김명환(문리 67)
김병호(상대 57)
김석두(농대 58)
김석홍(법대 59)
김선기(법대 59)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김영덕(법대 58)
김영희(사대 56)
김옥경(음대 69)
김원경(약대 59)
김 정(치대 59)
김정민(상대 58)
김정희(음대 56)
김준일(공대 62)
김창무(음대 53)
김태윤(법대 53)
김현왕(공대 64)
김혜숙(약대 77)
김희재(사대 66)
나두섭(의대 66)
남장우(사대 56)
노명호(공대 61)
류승일(의대 59)
문인일(공대 51)
박경룡(약대 63)
박경호(사대 53)
박부강(사대 54)
박성욱(상대 58)
박인창(농대 65)
박찬호(자연 81)
박취서(약대 60)
매동환(공대 65)
백길영(의대 58)

백승호(치대 55)
방정자(간호 61)
배병옥(음대 58)
백옥자(음대 71)
서동영(사대 60)
성낙호(치대 63)
손기용(의대 55)
손창순(공대 69)
신광재(공대 73)
신대식(상대 60)
신우식(치대 59)
심기련(상대 57)
심상은(상대 54)
심진숙(간호 68)
안병일(의대 63)
안병협(공대 58)
양은혁(상대 56)
양창효(상대 54)
염동해(농대 74)
유희자(음대 68)
윤경민(법대 55)
윤계자(약대 63)
이계승(공대 67)
이명선(상대 58)
이문상(공대 62)
이방기(농대 59)
이영일(문리 53)
이재룡(문리 71)
이정근(사대 60)
이정옥(공대 52)
이종묘(간호 69)
이중희(공대 53)
이채진(문리 55)
이현숙(사대 62)
임동규(미대 57)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대 58)
임정란(음대 76)
임창희(공대 73)
임화식(치대 59)
임희영(치대 67)
정규남(공대 52)
정영희(사대 57)
정동구(공대 57)
정종주(가정 72)
정예현(상대 63)
정재훈(공대 64)
정정순(사대 56)
정진수(공대 56)
정현진(간호 68)
제영혜(가정 71)
조동준(의대 57)
조정시(공대 60)
주정래(상대 65)
지종근(농대 56)
차재철(의대 62)
차중환(사대 54)
최경선(농대 65)
최영순(간호 69)
최종권(문리 59)
탁혜숙(음대 67)
하선호(치대 81)
현순일(문리 58)
홍춘만(문리 58)
홍유현(음대 61)
황동하(의대 65)
황성현(공대 56)
황준오(치대 70)

▶Chicago
강수상(의대 48)
강영국(수의 67)
강화영(문리 50)
고병철(법대 55)
구경희(의대 59)
김갑조(간호 51)
김갑중(의대 57)
김계균(공대 60)
김규호(의대 68)
김동희(공대 66)
김사직(상대 59)
김연화(음대 68)
김 영(문리 66)
김일훈(의대 51)
림영신(의대 54)
박영규(농대 57)
소진문(치대 58)
송진웅(농대 53)
오상현(의대 65)
이덕수(문리 58)
이소희(의대 61)
이승자(사대 60)
이시영(상대 46)
이영철(공대 60)
이용락(공대 48)
이종일(의대 71)
남성희(의대 58)
박용화(의대 52)
박준환(의대 55)
서영일(의대 62)
이상일(의대 54)
이성길(의대 65)
최병두(의대 52)
하계현(공대 64)

▶Hawaii
김승태(의대 57)
김용수(농대 75)
김용진(공대 50)
장광수(사대 50)
최경윤(사대 51)

▶Heartland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김제권(사대 68)
백산옥(문리 51)
이상강(의대 70)
정민재(농대 70)

▶Las Vegas
김택수(의대 57)
이 관(공대 55)
홍수웅(의대 59)

▶Michigan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김희주(의대 62)
남성희(의대 58)
박용화(의대 52)
박준환(의대 55)
서영일(의대 62)
이상일(의대 54)
이성길(의대 65)
최병두(의대 52)
하계현(공대 64)

▶Minnesota
김영남(사대 53)
변우진(인문 81)
성옥진(치대 87)
송창원(문리 53)
왕규현(의대 56)

▶New England
김만옥(약대 56)
김명자(문리 62)
김문소(수의 61)
김선혁(약대 59)
김명철(공대 60)
박종건(의대 56)
정정옥(의대 60)

▶NY & NJ
계동휘(치대 67)
고순정(간호 69)
곽노섭(문리 49)
곽상준(약대 55)
권문웅(미대 61)
김명경(약대 61)
김병권(문리 63)
김병석(의대 53)
김병술(약대 52)
김보련(54)

김석식(의대 58)
김석자(음대 61)
김영봉(의대 83)
김영애(사대 56)
김완주(의대 54)
김용술(상대 56)
김용연(문리 63)
김재경(농대 58)
김정순(법대 53)
김정희(간호 69)
김태양(사대 61)
김한중(의대 56)
김현중(공대 63)
김현희(간호 59)
김훈일(공대 60)
민준기(공대 59)
박건이(공대 60)
박성일(상대 58)
박수안(의대 59)
박순영(법대 56)
박종섭(사대 74)
박현성(약대 60)
방준재(의대 63)
배명애(간호 47)
배상규(약대 61)
백낙환(약대 56)
변건웅(공대 65)
서병선(음대 65)
선종철(의대 57)
성기로(약대 59)
손경택(농대 57)
손광호(의대 59)
송병문(공대 62)
송영순(사대 60)
신한경()
심영석(공대 76)
양명자(사대 63)
우상영(상대 55)
원인순(문리 71)
유재섭(공대 65)
유택상(문리 58)
유영호(의대 52)
윤봉균(사대 54)
윤영석(의대 57)
윤인숙(간호 63)
이강홍(상대 60)
이경태(공대 63)
이국진(사대 57)
이만석(공대 58)
이문자(간호 66)
이상복(의대 56)
이운순(의대 52)
이재진(의대 59)
이재원(법대 60)
이전구(농대 60)
이충호(의대 63)
임공제(의대 63)
정창동(간호 45)
조아미(음대 61)
조중수(공대 64)
조황환(치대 65)
조희재(음대 58)
최영혜(간호 64)
최종진(의대 55)

최준희(의대 58)
한성호(약대 60)
한영수(의대 61)
한인수(사대 73)
함종균(간호 66)
허경열(의대 73)
현영수(음대 61)
홍선경(의대 58)

▶Ohio
박 철(사대 55)
송용재(의대 63)
이영웅(의대 56)
최인갑(공대 57)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최동근(문리 50)
한국남(공대 57)
한영준(사대 60)

▶Philadelphia
고영자(치대 63)
김국간(치대 64)
김무형(약대 63)
김영남(의대 61)
김영우(공대 55)
김정현(공대 68)
민홍식(수의 60)
박호현(의대 52)
손재옥(가정 77)
송영석(의대 56)
신성식(공대 56)
양운택(의대 58)
염극용(의대 54)
원종민(약대 57)
윤경숙(문리 59)
윤정나(음대 57)
이규호(공대 56)
전회근(의대 54)
정덕준(상대 63)
정용남(문리 60)
정태광(공대 74)
정홍택(상대 61)
조영호(음대 56)
주기목(수의 68)
지홍민(수의 61)
차호순(문리 60)

▶Rocky Mt.
이석호(공대 66)
최근녕(법대 63)
표한승(치대 58)

▶N.S.Carolina
김정희(약대 56)
신두식(의대 58)
이범재(의대 56)
홍 훈(자연)

▶Texas
곽노환(문리 48)
김동수(의대 60)

김한섭(의대 53)
김훈목(사대 58)
신달수(공대 50)
양덕주(문리 66)
유 황(농대 56)
이규진(약대 60)
이길영(문리 59)
이영재(상대 58)
이주희(음대 89)
전중희(공대 56)
진기주(상대 60)
최관일(공대 54)
최성호(문리 58)
최용천(문리 53)
탁순덕(사대 57)
황명규()

▶Utah
김인기(문리 58)
박정일(미대 48)

▶DC
강연식(사대 57)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영기(공대 73)
김창호(법대 56)
김혜식(공대 59)
남춘일(사대 69)
박경훈(상대 50)
박동수(의대 65)
박용걸(약대 56)
박인영(의대 69)
박일영(문리 59)

방정화(의대 61)
서윤석(의대 62)
서진석(의대 62)
서희열(의대 55)
석균범(문리 61)
송병준(약대 68)
신용계(의대 62)
안승건(문리 55)
안인옥(간호 71)
양광수(공대 73)
유덕영(공대 57)
유재풍(법대 60)

이경상(농대 80)
이영수(공대 59)
이수안(공대 54)
이유세(사대 72)
이재승(의대 55)
이종두(의대 57)
이준영(치대 74)
임창주(공대 55)
임청규(공대 62)
임필순(의대 54)
장수영(공대 57)
장윤희(사대 54)
정기순(간호 67)

▶Hawaii
김승태(의대 57)
200

▶NY & NJ
김정순(법대 57)
200
이강홍(상대 60)
300
조아미(음대 61)
200

▶Ohio
송용재(의대 63)
200

정원자(농대 62)
조정윤(공대 57)
최경수(문리 54)
최규식(상대 64)
최정미(사대 45)
한성업(의대 55)
홍영석(공대 58)
홍용식(공대 51)

▶Wa.States
김석민(사대 55)
김선호(사대 59)
김영창(공대 64)
박진수(의대 56)
이길송(상대 57)
이동립(의대 52)
이희백(의대 55)

후원회비

▶California
김인국(문리 50)
300
김동호(농대 58)
200
박종수(수의 58)
300
백옥자(음대 71)
200

석균범(문리 61)
200
염동해(농대 74)
200
원미량(미대 65)
200

이채진(문리 55)
200

▶Chicago
강수상(의대 48)
200
오상현(의대 65)
200
이용락(공대 48)
500
조봉완(법대 53)
200

▶Hawaii
김승태(의대 57)
200

▶NY & NJ
김정순(법대 57)
200
이강홍(상대 60)
300
조아미(음대 61)
200

▶Ohio
송용재(의대 63)
200

미주 동창회
대도약을 위한 후원

▶조형원(약대 50) 500
▶최지원(의대 55) 500
▶권철수(의대 68) 500
▶문광재(의대 68) 500
▶김길평(상대 62) 501
▶이충호(의대 63) 501
▶방은호(약대 43) 600
▶신창민(법대 60) 1,000
▶곽노섭(수학 53) 1,000
▶권기현(사대 53) 1,000
▶조순자(문리 53) 1,000
▶한재은(의대 59) 1,000
▶최 철(의대 62) 1,000
▶이명선(상대 58) 1,125
▶이준행(공대 48) 2,000
▶차재철(의대 62) 3,000
▶강신호(의대 51) 3,000
▶이상강(의대 70) 5,000
▶손재옥(가정 77) 10,000
▶이병준(상대 55) 10,000

기타 후원

강연식(사대 57) 125
공순옥(간호 66) 100
김동수(의대 60) 125
김부근(의대 54) 100
이운순(의대 52) 125
임필순(의대 54) 100
정량수(의대 60) 25
정정옥(의대 60) 100
정창동(간호 45) 50
정태광(공대 74) 100
한영준(사대 60) 25
<29면에 계속>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4년 7월 ~ 2015년 6월)

성명 : 한글		영문		단과대학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주소 :				전 주소			
업소 이름 :				업소 주소			
전화 : (B)		(H)	(C)	(Fax)	e-Mail :		
관악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룩 광고비(6개월)		일반광고비		업소룩 광고비(6개월)
연 \$200	☐	2014.7~2015.6 \$75	☐	2014.7~2014.12 \$120	☐	명함크기(3.5" x 2") \$120	☐
연 \$500	☐			2015.1~2015.6 \$120	☐	1/6면 (5" x 4.5") \$200	☐
연 \$1,000	☐				☐	1/3면 (10" x 4.5")\$400	☐
기타 \$	☐				☐	1/2면 (10" x 6.7")\$600	☐
					☐	전면 (10" x 13.5")\$1000	☐
					☐	전면(Back 10" x13.5")\$1500	☐
보낼 곳:1952 Gallows Rd.,Suite 206,Vienna VA 22182 Tel(Fax):703-462-9083 e-Mail:snuaausa12@gmail.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703-462-9083>로() Check No.()							
Card No. :				Security Code :		Expire Date :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다음의 Tax 번호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TIN : 13-3859506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미주 동창회는 물론
모교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L 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213-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재정/보험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간호대 72)
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엔지니어링 컨설팅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건축/컨설팅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의료/약국

Gilbert Pharmacy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치과병원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재정/컨설턴트

Michael Kim, CEO
김기형(상대 75)
3435 Wilshire Blvd, #2820 LA.CA 90010
213-505-8102(0) 626-722-7836
e-mail Michaelk@UnitedProjects.US
www.UnitedProjects.US

서비스/자동차/재정/보험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비영리법인 애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교외

Teamspirit Investment & Dev.
이종묘(간호대 69)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리테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우주개발/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714-952-2240
10874 Hope St.PO Box6034 Cyro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NY-NJ 뉴욕/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I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건축/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
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NE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MD·VA·워싱턴 DC

재정 / 보험 / 컨설팅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연대 82)
703-663-8400(O) 703-785-8467(C)
1952 Gallows rd.Ste 214 Vienna, VA 22182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치과/ 모터/ 기계/ 전기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shady Grove Ct.Gaithersburg MD 20877

Drivetech, Inc
엄달용(공대 69)
703-327-2797
Carrington Drive, Chantilly, VA 20152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ton OR.97007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수의대 68)
215-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건축 설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레스토랑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X 텍사스

산업/건축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여러 동문님들이 게재해주시는 업소록 광고의 광고비는 미주 동창회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디 많은 협력을 바랍니다”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27면에서 계속>

광고 및 업소록

이영진(공대76) 120
이종묘(간호 69) 120
Wilshire 은행 120
1000 김영도(공대 67) 120
300 김혜정(문리 82) 120
400 서동영(사대 60) 120
240 이준영(치대 74) 120
정재훈(공대 64) 120
정진수(공대 56) 120
하선호(치대 81) 120
손재옥(가정 77) 120

1차년도 지역 동창회 분담금 납부

(괄호안은 서울 2013.7~2014.6)

<완남동창회>
▶NY 2000(2000)
▶CH 1200(1200)
▶DC 1000(1000)
▶PH 1000(1000)
▶NE 500(500)
▶북가주 800(800)
▶HL 400(400)
▶Wa.St400(400)
▶SD 350(350)
▶Houston 350(350)
▶OR 200(200)

▶Dal. 350(350)
▶Rocky Mt. 200(200)
▶AL 100(100)
▶중부 Texas 200(200)
<일부납부동창회>
▶HI 100(200)
▶남가주 1000(2000)

<미남 동창회>
▶AR 0(200)
▶Carolina 0(100)
▶FL 0(100)
▶GE 0(400)
▶MN 0(400)
▶OH 0(200)
▶UT 0(200)

동문신간

■ 갈 곳 없는 외출 - 李榮植 지음

올해 ‘문학미디어’ 봄호에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李榮植(언어51 - 55 前목포대 교수)동문의 첫 번째 시집. 이 시집에는 최근 창작시 1백 10편, 1950년대 습작기에 발표한 11편, 미국에 거주하는 친지들을 위해 영어로 쓴 시 13편 등 모두 1백34편이 수록돼 있다. 대체로 청·장년 세대와 중년들의 시편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지혜와 달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책의 표지그림은 동갑내기 아내 임성순 화가의 작품이다. <한림刊·값 15,000원>

■ 개화기의 외국어교육 - 李光淑 지음

모교 독어교육과 李光淑(독어 교육66 - 70) 명예교수가 이 책에서 개화기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외국어교육의 기원과 흐름을 밝히고, 당대의 외국어교육의 목표, 수업연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이 현재의 외국어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소개했다. 이제까지 개화기의 외국어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관제나 규정이 많이 논의됐으나 실제로 시행된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다. 李명예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저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작업에 착수해 우리나라 외국어교육의 근원을 밝혀줬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 26,000원>

■ 이 세상 어딜 가든지 - 丁海 지음

아래아한맥문학동인회 회원인 丁海?(농경제55 - 61)동문의 시론 에세이. 일제강점기에 유·소년기를 보내고, 해방과 더불어 혼란과 무질서, 동족상쟁인 6·25전쟁과 5·16군사정변을 청소년기에 겪은 丁동문이 격변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골라서 글로 남겼다. 丁동문은 표제작 ‘이 세상 어딜 가든지’에서 “현재는 비록 짧은 찰나의 한 삶의 흐름에 지나지 않지만 이 확실한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한다. <아래아한脈刊·값15,000원>

■ 사람의 산 우리 산 인문학 - 崔元碩 지음

경산대 崔元碩(지리82 - 89)교수는 모교에서 지리학을 전공하면서 한국 풍수의 대가 崔昌祚(지리69 - 73)교수에게서 풍수를 배웠다. 그러면서도 산에 마음을 빼앗겨 석사 때부터 산을 연구하는 독특한 행보를 걸어왔다. 그는 스스로를 ‘山家’로 지칭하는 산 연구자다. 이 책은 산을 인문학의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탐구한 국내 최초의 기념비적인 성과다. 산에만 빠져 살아온 학자의 오랜 산 공부의 여정을 집대성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崔교수는 ‘산의 전통지리학’인 풍수와 근대적인 학문인 지리학의 연구방법론을 통해 한민족과 산의 오랜 관계를 밝혀냈다. 한국의 산은 사람과 산이 함께 어우러진 ‘사람의 산’이라는 것이다. <한길사刊·값20,000원>

■ 대망의 민족통일 도적같이 오리니 - 柳錫烈 지음

모통이돌선교회 柳錫烈(사회 교육58 - 62)이사장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은 7부로 나눠 한반도의 통일 준비, 동북아 정세와 전망, 북한의 대남 전략, 그루터기 신앙과 북한 선교 등을 심층 분석했다. 柳이사장은 “우리는 북한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고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문광서원刊·값 12,000원>

■ 김익수 교수의 내가 사랑한 우리 물고기 - 金益秀 지음

어류학자 전북대 金益秀(생물 교육60 - 64) 명예교수가 40년간의 연구 기록을 바탕으로 놀랍고 흥미로운 우리 물고기 이야기를 담은 책. 한반도의 다채로운 환경에 적응해 저마다의 지혜를 발휘하며 사는 물고기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책은 아름다운 우리 물고기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위기에 처한 고유종 물고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함께 제시한다.

金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새로운 물고기종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학명을 붙였다. 金교수가 발견한 참종개의 학명은 ‘익수키미아 코리엔시스(Ik-sookimia koreensis)’이다. <다른세상刊·값14,800원>

편집후기

〇… 거듭 감사드립니다 = 필자는 지난 9월호 ‘편집후기’를 통해 모친의 작고 소식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고 전화로, 또는 조위 카드로 필자의 마음을 보듬어주시는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진정어린 조위의 말씀에 진심으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새삼 ‘슬픔은 나누면 절반, 기쁨은 나누면 두배’라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아울러 ‘편집후기’까지 읽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회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〇…1~3면 기사는 회장단의 Message = 동창회보 1~3면은 회장단이 동문들과 지역 동창회에 드리는 메시지, 혹은 중요 사업 진척 상황을 전해드리는 난입니다. 따라서 제목과 부제도 필자

■ 대학이 희망이다 - 吳然天 지음

모교 제25대 총장을 지낸 행정대학원 吳然天(정치70 - 74)교수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다. 개인의 여정과 함께 지난 4년간 모교 총장으로서 감당했던 일들에 대한 담담한 소회들을 이야기했으며, 연설문을 통해 인간 吳然天의 가치관과 철학을 소개하기도 하며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준다. 吳교수는 “우리는 현재 가치관의 혼돈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공동체의 구심력을 잃어 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미래와 화합을 위해 대학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 15,000원>

■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 任浩慶 옮김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任浩慶(불어교육79 - 83)동문이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저자 요나스 요나손의 두 번째 소설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를 우리말로 옮겼다.

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동창회보에서 필자가 직접 작성한 기사는 말미에 반드시 <이기준 편집주간> 또는 <편집주간>이라는 by-line을 달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자가 과거 일간지 재직시부터 오랜 동안 관습화 된 공신력 제고 등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by-line이 붙지 않은 기사는 전혀 필자가 쓰지 않은 기사라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〇…다시 정상화된(?) 발행일정 = 10월호 편집 일정이 9월 말~10월 2일로 마감됨으로써 회보 발행 일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7월호부터 10일 이후로 늦어졌던 회보 발행이 다시 5일 경 발행 일정에 맞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 때로는 공휴일까지 출근해서 작업을 해온 덕분입니다. 아뭏든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 책은 스웨덴과 남아공을 배경으로 100세 노인의 삶보다 더 기구하고 황당무계한 까막눈 소녀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역사적 사건들을 차용해 저자 특유의 재치와 유머를 담아 사회 현실을 풍자한다. 비천한 태생이지만 두뇌만은 비범했던 한 여인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중형무전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열린책들刊·값14,800원>

■ 책 읽어주는 남자, 10년의 노트 - 芮秉一 지음

플루토미디어 芮秉一(정치84 - 88)대표가 ‘하루 5분, 경제와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취지에 공감한 회원들에게 2004년에 이메일로 보냈던 ‘예병일의 경제노트’ 2천여 편의 글 중에서 인생과 나를 돌아보게끔 해주는 1백 12편의 글을 뽑아 엮은 책. 저자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삶의 모습을 꿈, 고난, 오늘, 이별, 습관, 지속, 좋은 삶, 행복, 고전, 진정한 나, 길 위에서 등 11개의 범주로 나누고 저자가 읽은 책 속에서 씨앗을 꺼내 발아시킨 생각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21세기북스刊·값 14,000원> ***

작가의 집

House of Writers

그림이 있는 문화 공간

Park View Gallery

전시회 · 출판기념회 · 결혼피로연 · 송년회 · 동창회 · 각종모임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www.houseofwriters.org ● 김병연(공대) ● (213)380-3000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공) · 오흥조(치) · 이영목(공) · 이전구(농) · 송순영(문)

명예회장 : 김은중(상)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옥(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 이채진(문)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 공순옥(간)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기현(사대)

상임고문 : 박윤수(문) · 이영목(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평희(공) 총무국장 : 한정민(농)
조직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 함은선(음) 사업국장 : 김정식(농)
섭외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옥(가정)

회보 임원

발행인 : 오인환(문)
주필 : 백순(법)
편집위원장 : 장경태(사)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윤경의(공) · 서윤석(의) · 이윤주(상) · 이해덕(상)
정평희(공) · 김정식(농) · 진학송(약) · 함은선(음)
이나래(경)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Homepage Webmaster : 김원영(미대 82)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 · 고병철(법) · 조동준(의) · 이채진(문)
최용완(공) · 정홍택(상) · 윤상래(수의) · 김창수(약)
차민영(의) · 이석구(문) · 김용현(경) · 유재풍(법)
장석정(법) · 하용출(사) · 민경훈(법) · 이원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서종민(공) · 이민연(법) · 윤상래(수의)
김지영(사) · 신응남(농) · 함은선(음)

감사 : 박평일(농) · 주기목(수의)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salkj@gmail.com. snua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이서희(법대 70) 213-840-2064 sleelapt@gmail.com	회계년도 Feb-Feb
	차기회장	박혜옥(간호대 69) 818-952-2871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Jan-Dec
	부회장	박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뉴욕	회장	곽승용(의대 65) 347-506-0478 syngkwak@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kyungaelim@gmail.com	
달라스	회장	최연(공대 70) 817-919-3057 younchoy@sbcglobal.net	
	차기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룩키마운틴스	회장	김영일(법대 64) 719-321-9989 youngisaackim@hanmail.net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차기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샌디에고	회장	최흥수(자연대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부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kim00@yahoo.com	
시카고	회장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moogong.com	Jan-Dec
	부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jongjoo@msn.com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hwan-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wonlee@qbmintl.com	
	수석총무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완(자연대 83) 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김동현(상대 68) dhkimkim@hotmail.com	
	부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jeonbana@gmail.com.	Jan-Dec
	부회장	유기병(문리 64) 215-822-5248	
플로리다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캐로라이나	회장	정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jung@duke.edu	
	차기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김용수(농대 75)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성낙일(해양 77)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Jan-Dec
	부회장	최인섭(공대 75) inchoi@msn.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부회장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Dish Pizza Salads Soups Sushi



대표 이승훈(상대 74)

Jayone 562-633-7400 562-633-7474 facebook.com/JayoneFoods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com/user/Koreanfoodmart

877-HAPPY-81 장경태(사대 75)

novita usa
Something better for you



JW 토닉 샴푸



HAPPY SEEDS INCORPORATED



세정력의 차이!
욕실품격의 완성
노비타 비데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해정(82入,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배려와 커뮤니케이션: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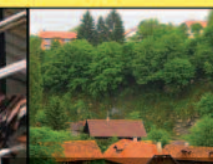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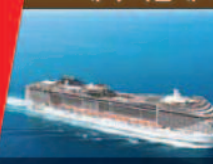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한스에서 미리 계획하는 일정들은 모두 한스 단독으로 진행되는 맞춤 여행 패키지들로 여행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직접 한스의 전문 인솔자가 모시고 가고 호텔, 식사 모두 upgrade된 고품격 패키지입니다. 모든 여행은 고객들의 신청에 따라 특별히 진행되며 어떤 여행 패키지도 10분 이상만 되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와 원하시는 일정에 맞춰 맞춤 패키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동창회, 친구들끼리 여러분들만의 특별 여행을 새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했던 여행지들



1차 2007년 중해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 이집트와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네덜란드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발틱 여행 5차 2011년 페루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발칸반도 9개국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8차 2014년 베네룩스 3국 투어

2014-2015년 한스관광이 직접 모시고가는 여행

• 5월4일 - 5월13일 - 2014년 SNU 단체 여행: BENELUX 3 COUNTRIES & NORMANDY, FRANCE 9박10일 "잘 다녀 왔습니다" NETHERLANDS(암스텔담, 튜립 축제 참가, 노트르담)- BELGIUM(브뤼셀, 브뤼헤) - LUXEMBOURG (룩셈부르크) - FRANCE NORMANDY(도발, 몽생미셸, 루아르)

• 7월4일-7월16일: 1차/ 7월28일-8월10일: 2차 RUSSIA & N.EUROPE 13박14일

• 7월8일 - 7월14일 -AMAZING KOREA TOUR 6박7일 - 2세대를 위한 영어 가이드 투어

• 9월4일 - 9월14일 -WESTERN EUROPE 10박11일

• 9월12일 - 9월21일 - BOHEMIAN EASTERN EUROPE 9박10일

• 9월21일 - 9월28일 - 크로아티아의 휴일 7박8일

• 9월22일 - 10월4일 -GREECE / TURKEY 12박13일

• 9월25일 - 10월12일 -PORTUGAL / MOROCCO /SPAIN 13박14일

• 10월7일-10월15일: 1차/ 10월15일-10월23일: 2차 고국 전국일주 동서남해안, 홍도, 흑산도 8박9일

• 10월23일 -10월28일 -THE BEST OF CHINA 서안, 장가계 계림 5박6일

• <특별출발> -THE BEST OF CHINA & ESSENCE OF SOUTH EAST ASIA

• 10월23일 -11월2일 중국(서안, 장가계, 계림) - 베트남 (하노이, 하롱 베이) - 캄보디아(앙코르와트) 10박11일

• <특별출발> ESSENCE OF SOUTH EAST ASIA

• 10월28일 -11월2일 -1.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캄보디아(앙코르와트) 5박6일

• 10월27일 -11월7일 -HOLYLAND & THE BEST OF JORDAN 11박12일

2015년.....

• 1월19일 -1월29일 - INCREDIBLE INDIA (산비의 인도 여행) 10박11일

• 2월5일- 2월15일 PATAGONIA SPECIAL 10박11일 BUENOS AIRES, USHUAIA, EL CALAFATE

• 2월7일 - 2월12일 - 여자들끼리 가는 PUNTA CANA GOLF TOUR 5박6일

• 3월29일 - 4월4일 -SPRING BREAK SPECIAL - SPAIN 6박7일

• 4월 10일 - 4월17일 - GREEK ISLAND CRUISE & ISTANBUL 7박8일. ISTANBUL, MYKONOS, SANTORINI, ATHENS

• 4월14일 - 4월22일 - 고국 맛자랑, 멋자랑 남해안, 홍도, 흑산도, 해변열차 8박9일

• 4월17일 - 4월26일 - AMADEUS EASTERN EUROPE 9박10일

• 4월26일 - 5월9일 - PORTUGAL, MOROCCO, SPAIN 13박14일

• 5월4일 - 5월15일 - WESTERN EUROPE 11박12일

• 5월18일 - 5월28일 - NORTHERN SPAIN 10박11일

• 5월30일 - 6월7일 -TASTE OF SPAIN -SPECIAL 7박8일

한스관광 HANS WORLD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CREATING**PLACES** | HELPING**PEOPLE** | PLANNING**PARKING**

Designing Vibrant
Sustainable
Integrated
Mixed-Use People Places



ARCHITECTURE ENGINEERING PLANNING ASSET MANAGEMENT

www.timhaahs.com **TimHaahs** 손재옥
(가정대 77)

ATLANTA | JACKSONVILLE | MIAMI | NEW BRUNSWICK | PHILADELPHIA